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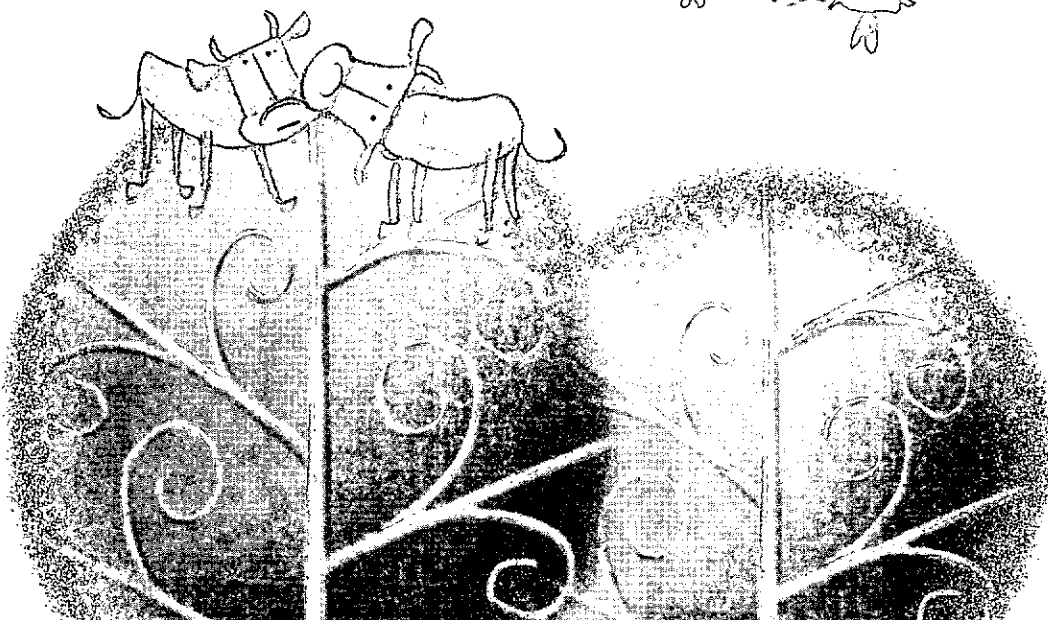
2004년 인권교육실천사례 및 문예작품공모 수상작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실천사례

◆ 최우수상 ◆

- “키 작은 아저씨! 키 큰 아저씨! 모두모두 사랑해요.” 3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교사 김 솔

◆ 우수상 ◆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 서울 정곡초 5학년 4반 아이들의 인권교육 이야기 — 35
서울 정곡초등학교 교사 이 선 영

나란히, 마땅히 그리고 소중히

- 우리 모두는 참 특★한 사람 — 57
경상북도 구미 문장초등학교 교사 김 흥 일

◆ 장려상 ◆

- 우리들 세상(학교교육)과 함께 가는 인권교육 95
전라북도 남원 아영초등학교 교사 강 지 숙

- 인권 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111

상인천초등학교 교사 박 정 숙

- 인권문예작품 수상작 137

인 권 교 육 실 천 사 례

최우수상 김 솔 (경기 천마초등학교)

우 수 상 이 전 영 (서울 정곡초등학교)

김 홍 일 (경북 문장초등학교)

장 려 상 강 지 숙 (전북 아영초등학교)

박 정 숙 (상인천초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

◆ 최우수상 ◆

**“키 작은 아저씨! 키 큰 아저씨!
모두모두 사랑해요.”**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교사 김 솔

1. 거인 아저씨와의 첫 만남

가. 거인아저씨! 보고 싶어요.

지난 1학기, 우리 반 아이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하였다.

‘난쟁이가 된 거인 아저씨’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실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반 아이들은 ‘난쟁이가 된 거인아저씨’를 이따금 기억하곤 하며 때론 편지를 보내어 보고 며칠씩 답장을 기다리곤 한다.

선생님! 난쟁이가 된 거인 아저씨가 과연 답장을 보내어 줄까요?

오늘도 세영이는 진지하고도 조바심 어린 음성으로 넉지시 질문을 던진다.

글쎄다! 아마 세영이의 마음을 아저씨가 알게 된다면 답장을 꼭 보내 주시겠지?

선생님! 그런데 난쟁이가 된 거인아저씨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키가 작아진 아저씨가 매우 불쌍해 보이던데! 민수는 지난 수업시간에 감상한 동화의 결론이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이다.

그래요! 꼭 난쟁이로 만들 것까진 없잖아요. 전 그 이야기를 지은 작가 아저씨가 너무나 미워요. 보통 사람의 키만큼만 줄이지 왜 난쟁이로 만들었을까요? 놀림당하게!

아이들의 질문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드디어, 내 대답이 궁색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난쟁이가 되어버린 동화책 속의 거인 아저씨에 대하여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 낸 작가에 대한 불만과 주인공에 대한 동정을 각기 나름대로 의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들이 주인공의 신체변화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내 전자도서관(<http://cheonma.dongsamo.co.kr/>) 속의 웹 콘텐츠로 존재하는 실재하지도 않은 인물에 대해 조금은 지나치리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가 바로 작아진 신체에 대한 불만이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있어 주인공이란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하며 주인공이 ‘난쟁이’로 지칭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 신체적인 왜소함은 개인이 가진 콤플렉스 중에서도 가장 큰 콤플렉스로 통하고 있다. ‘얼짱’¹⁾, ‘몸짱’²⁾ 등의 신조어(新造語)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신체적 조건에 두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신체적 조건이 열등한 사람에게 있어 매우 반(反)인권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아울러, 신체적인 장애를 일컫는 반(反)인권적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음을 볼 때³⁾, 학교와 가정에서

1) 얼짱: ‘얼굴 짱’의 줄임말. (네이버 백과사전)

2) 몸짱: ‘몸매 짱’의 줄임말. (네이버 백과사전)

3) ‘난쟁이’라는 표현은 성장 장애, 작은 신장자 등의 표현이 적절하며 본 사례연구에서는 ‘난쟁이’를 ‘키작은’.

서 그 동안 얼마나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간과되어 왔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⁴⁾

이에 본 연구자는 “난쟁이가 된 거인”이라는 동화를 소재로 하여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형 활동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 동안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인권’의 개념을 바로잡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키 작은 아저씨! 키 큰 아저씨! 모두 모두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명칭은 프랑스의 동화작가 마크 반 라에르의 ‘난쟁이가 된 거인’을 소재로 하여 본 학급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명칭임을 밝혀둔다.

2. 실천의 개요

가. 실천의 목적

본 연구는 『“키 작은 아저씨! 키 큰 아저씨! 모두모두 사랑해요”』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바람직한 아동의 인권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자도서관에 구축된 전자도서활용을 통해 이야기 속에 제시된 인권에 관련된 교육적 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2. 관련 예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접근을 위한 체험형 활동프로그램을 구안하며,
3. 체험형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하도록 조력(助力)한다.

나. 실천대상 및 기간

1) 실천대상

천마초등학교 2학년 수련반 아동 40명(남: 20/여: 20)

2) 실천기간

2004년 8월 1일 ~ 10월 31일 (3개월간)

‘거인’을 ‘키 큰’등으로 바꾸어 지칭하고자 한다.(‘장애인 인권과 국어 통합교육’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실), 2003. 4. 3.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어린이 인권의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미흡하며 9.1%의 아동만이 ‘인권’에 대해 학교에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 5.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다. 실천단계별 내용

실천의 단계	주요 실천내용	실천기간	비고
준비단계	▣ 문헌연구 -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활동 - 인터넷 웹 관련 자료의 확보 ▣ 선행연구의 고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실/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	2004. 8. 1~ 8.15	
계획단계	▣ 연구주제 확정 ▣ 실행중점의 설정 ▣ 프로그램의 구안	2004. 8. 15~ 8. 31	
실행단계	▣ 기초실태조사 ▣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 ※ 매주 재량, 특별활동 시간 중 실시(주당 2시간) - 총 9차시	2004. 9. 1~ 10.15	
검증단계	▣ 연구결과의 검증 ▣ 검증결과의 분석 및 해석 ▣ 사례 보고서의 작성	2004. 10.15~10.31	

라. 실천내용의 설정

1) 실천내용(1)

본교 전자도서관에 구축된 전자도서활용을 통해 이야기 속에 제시된 인권에 관련된 교육적 지도 요소를 추출하였다.

- ☐ e-Book “난쟁이가 된 거인” 분석하기
- ☐ 인권관련 지도요소 추출하기

2) 실천내용(2)

관련 예화를 중심으로 체험형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 ☐ 세부 활동 계획의 수립

3) 실천내용(3)

체험형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하도록 조력(助力)하였다.

☐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사례

3. 실천내용 및 사례

가. 실천내용(1)의 실행

본교 전자도서관에 구축된 전자도서활용을 통해 이야기 속에 제시된 인권에 관련된 교육적 지도 요소를 추출하였다.

- ☐ e-Book “난쟁이가 된 거인” 분석하기
- ☐ 인권관련 지도요소 추출하기

1) e-Book “난쟁이가 된 거인” 분석하기

본교 전자도서관에 탑재된 다양한 형태의 전자도서 중 인권과 관련된 동화를 탐색하였으며 이들 중 프랑스의 동화작가 마크 반 라에르 원작(原作)의 ‘난쟁이가 된 거인’을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난쟁이가 된 거인’의 대체적인 개요이다.

〈표 1〉 e-Book “난쟁이가 된 거인” 분석하기

관련 장면	관련그림	주요내용 및 관련개념	
1		옛날 어느 마을에 키가 매우 큰 거인이 살고 있었 습니다. 그 거인은 자신의 집보다 키가 큰 정도여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거인을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관련개념	☞왕따현상, 사회적 편견

관련 장면	관련그림	주요내용 및 관련개념	
2		거인은 마을에서 매우 떨어진 산 속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인을 찾아주지 않았고 거인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거인은 자신의 키가 작아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관련개념	다양한 형태의 장애현상 장애현상에 사회적 시각
3		하지만, 좀처럼 자신의 키를 작게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은 마녀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마녀라면 자신의 큰 키를 작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개념	신체조건이 주는 사회적 불평등
4		마녀를 찾아간 거인은 마녀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내 키를 작게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마녀는 마법의 약을 만든지 너무 오래 되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약을 만들어 거인에게 먹였습니다.	
		관련개념	사회적 편견의 극복방법
5		약을 먹은 거인은 “쿵”하는 소리와 함께 키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키가 작아져서 마녀보다도 더 작아져 버렸습니다.	
		관련개념	잘못된 가치판단/사회적 편견
6		키가 작아진 거인은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관련개념	잘못된 가치판단/사회적 편견

‘난쟁이가 된 거인’의 내용은 대체로 인권교육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는 현실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화 속에서조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야기 속의 거인은 키가 보통사람 보다도 훨씬 크다는 이유로 두려움,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왕따’현상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치판단에 대한 대상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보다는 신체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동화 속에서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장애현상에 대해 주변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통해서도 그려지고 있는 데 이야기 속 거인은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됨됨이와 관련 없이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신체적 장애와 같은 외적 조건이 주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극복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야기 속의 거인은 마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인간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키가 작아지려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류(主流)사회에 흡수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점은 편견을 이겨내려는 바람직한 가치판단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반 인권적 요소에 쉽게 영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예화 자료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1. 본 예화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의 한 단면인 신체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아울러, 사회적 편견 및 반 인권적 차별에 대해 주인공이 갖는 내적 고민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본 예화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주인공의 노력이 반인권적 가치에 영합하는 활동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 예화를 바탕으로 도출한 다양한 관련개념을 중심으로 인권관련 지도요소를 구체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예화 ‘난쟁이가 된 거인’은 다양한 문제상황을 제시해주는 구체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여 활용하였으며 구체적 체험형 활동 프로그램의 구안단계에 있어서는 이를 통한 인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중심의 활동 프로그램 구안에 주력하였다.

2) 인권관련 지도요소 추출하기

예화자료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관련 지도요소를 추출하였다.

- ①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 ②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견 체험하기

- ③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 현상 체험하기
- ④ 사회적 편견의 극복방법 탐색하기

본 연구에서는 인권관련 지도요소를 바탕으로 체험형 활동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고자 하였다.

나. 실천내용(2)의 실행

관련 예화를 중심으로 체험형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 세부 활동 계획의 수립

1) 세부활동계획 수립하기

실천내용(1)에서 제시된 인권관련 지도요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권관련 실천형 세부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표 2〉 세부 활동 계획의 수립

월/주	인권관련 지도요소	세부 프로그램	실행방안
9-1	관련 예화 탐색하기	1. 나는 누구일까요?	교내 도서관에서 “난쟁이가 된 거인”을 e-Book으로 감상하고 토론하기
9-2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2. 키 큰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	거인 아저씨와 난쟁이 아저씨의 모습 그려보기
		3. 아저씨께 편지를!	거인(난쟁이)아저씨에게 격려의 편지쓰기
9-3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견 체험하기	4. 앗! 이럴수가?	일상에서 편견이 담긴 말을 찾아 조사하기
		5. 나의 별명! 너의 별명!	우리반 아이들의 별명을 조사하여 예쁜 별명 붙여주기
10-1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현상 체험하기	6. 나도! 장애인	눈 감고 장애물 건너기 장애체험하기
		7. 이야기 세계!	난쟁이가 된 거인의 뒷부분을 역할극으로 꾸며보기
10-2	사회적 편견의 극복 방법 탐색하기	8. 수화로 여는 이웃 사랑	장애인과의 대화를 위한 수화 배우기
		9. 장애인을 위한 마을 꾸미기	장애인 마을의 시장이 되어 마을 꾸며보기

다. 실천내용(3)의 실행

체험형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하도록 조력(助力)하였다.

○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사례

1)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사례

(1) **관련영화 탐색하기**

Ⅰ 나는 누구일까요?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9. 1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교 전자 도서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실)
3. 활동의 과정:
 - 도입 : 영화 감상 소감 발표하기(난쟁이가 된 거인)
 - 전개 : e-Book으로 감상하기/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토론헌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이야기가 주는 교훈 알아보기)

■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나는 누구일까요?’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가 되는 관련영화인 “난쟁이가 된 거인”을 텍스트 자료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플래시자료)의 형태로 각각 감상하고 이를 통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거인(나중에 ‘난쟁이가 됨’)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토론헌하도록 함으로써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아동이 스스로 느끼고 내면화시키는데 프로그램 구안의 목적을 두었다.

■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프로그램의 적용은 크게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로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예화 감상 소감 발표하기	○ “난쟁이와 거인” 이야기의 감상소감을 발표해 보도록 하였다.	도서자료 “난쟁이가 된 거인”
전개	e-Book으로 감상하기	○ 전자도서의 형태로 감상해 보았다. - 등장인물이 한 행동에 대해 학습지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 하도록 했다.	결론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함. ㄱ 이야기에 대한 의문점을 도출하였다.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기	○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였다.	ㄱ 토론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하였다.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ㄱ 의문점에 대한 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였다.

■ 체험활동의 모습



e-Book 감상장면



등장인물에 대한 토론활동

■ 체험활동의 결과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토론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순서	관련장면	도출된 의문점(발표)	발표자	잠정적인 결론(제안)
			제안자	
1	거인 아저씨는 키가 너무 커서 혼자 살고 있다.	거인 아저씨가 단지 키가 커서 따돌림을 당했을까?	주민수, 류선경, 이한빈	아마 거인아저씨의 성격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황재성, 이에림	

순서	관련장면	도출된 의문점(발표)	발표자	잠정적인 결론(제안)
			제안자	
2	거인아저씨가 마을에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숨어버렸다.	마을사람들의 행동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김영지, 조성희	마을 사람들은 거인 아저씨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빨리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최준혁, 김한솔 오신형, 주아현	
3	거인아저씨는 자신의 키를 작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친해 지려고 생각한다.	거인아저씨는 자신의 큰 키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아한다. 하지만, 나 같으면 키를 작게하지 않을 것이다.	김희선, 이선우 남지연, 김세용	자신의 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밝은 성격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재일, 지동현 김우진	

(2)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2 키 큰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9. 6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
3. 활동의 과정:
 - 도입 : 관련 예화의 줄거리 발표해 보기
 - 전개 : 키 작은 아저씨의 모습 그려보기/키 큰 아저씨의 모습 그려보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그림을 보고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키 큰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 프로그램은 예화 속의 등장인물인 거인(난쟁이) 아저씨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함으로써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모둠 중심의 소집단학습을 통하여 주인공의 모습을 각자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이야기 속에 나타나있지 않은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추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본 프로그램은 관련 예화(난쟁이가 된 거인)에 대한 줄거리 발표하기, 등장인물의 모습을 그려보기,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하기 등의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관련 예화의 줄거리 발표하기	○ “난쟁이와 거인”이야기의 줄거리를 떠올려 발표해 보도록 하였다.	도서자료 “난쟁이가 된 거인”
전개	키 큰 아저씨의 모습 그려보기	○ 키 큰(거인)아저씨의 모습을 모둠별 협동작품으로 완성하여 보았다.	다양한 재료와 용구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그렇게 상상하여 그린 이유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키 작은 아저씨의 모습 그려보기	○ 키 작은(난쟁이)아저씨의 모습을 협동작품으로 완성하여 보았다.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그림을 보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추론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모둠 작품속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 체험활동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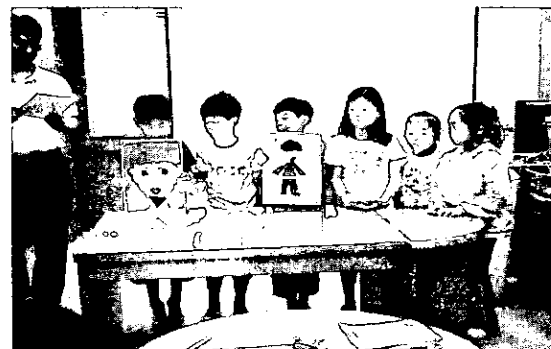


키 큰 아저씨의 모습 그리기

■ 체험활동의 결과



모둠작품1(키 큰 아저씨)



모둠작품2(키 작은 아저씨)

[3] 아저씨께 편지를!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9. 10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본교 전자 도서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실)
3. 활동의 과정:
 - 도입 : 편지를 쓰는 형식 알아보기
 - 전개 : 아저씨께 편지 쓰기(키 큰 아저씨/키 작은 아저씨)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나에게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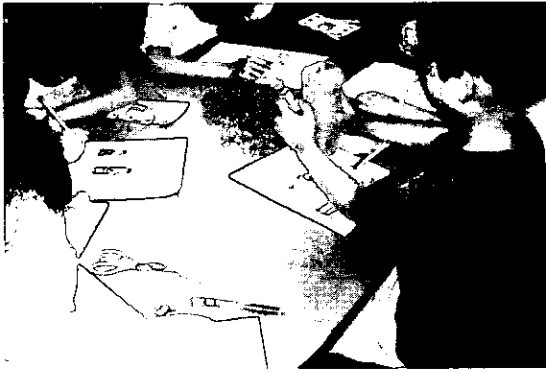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아저씨께 편지를!’ 프로그램은 예화의 주인공인 거인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하여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인공(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태도를 길러주는데 프로그램 구안의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편지 쓰는 형식 알아보기	○ 편지글이 갖추어야 할 기본 형식을 알아보았다. ※ 편지글 ① 첫인사 ② 하고싶은 말 ③ 끝인사 ④ 쓴 날짜	편지글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개	아저씨께 편지 쓰기 (키 큰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	○ 키 큰 아저씨(거인)에게 편지를 써 보았다. ○ 키 작은 아저씨(거인)에게 편지를 써 보았다.	이야기 내용을 중심으로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게 하였다.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나에게 보내는 편지)	○ 장애인에 대한 그 동안의 마음자세를 반성하는 편지 써 보았다.	

체험활동의 모습



편지쓰기 활동 모습

체험활동의 결과

키 큰 아저씨께
오늘은 이름을 조금 바꾸어 부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거인과 난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래요.
아저씨! 요즈음 마을 사람들과는 잘 지내고 계세요. 개구쟁이 통은 요즈음도 아저씨를 뱃살 난쟁이 거인으로 놀려대지 않나요.
난쟁이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말이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저씨 그런데 키가 작아져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나요? 불편한 점은 혹시 없으세요.
예림이가 도울게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예림이 전화는 〇〇〇-△△△△입니다.
오전에 전화하지 말고 반드시 오후에 전화하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2004년 9월 10일

예림이가!

안녕 세일아!
잘 있었니? 장난치다가 다친 팔은 좀 어떠니? 지금쯤 많이 나았겠지?
요즈음은 선생님께 칭찬 많이 받고 있니?
얼마 전, 장애우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지? 세일이 넌 장애우 친구들을 매우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어, 선생님께서 장애인은 우리들이 도와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이웃들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도 잘못하여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이라 는 이유로 놀린다면 참으로 기분이 나쁠 것 같애. 그래서 다음부터는 장애인들에게 친절하기로 마음을 바꿨어.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럼! 이만 줄일게.

2004년 9월 10일

세일이가

(3)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견 제하기

4. 앓! 이럴수가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9. 13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
3. 활동의 과정:
 - 도입 : 말 잇기 놀이
 - 전개 : 편견이 담긴 말 찾아보기/단어 게임! 하나, 둘, 셋...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편견이 담긴 말을 바르게 고쳐보기)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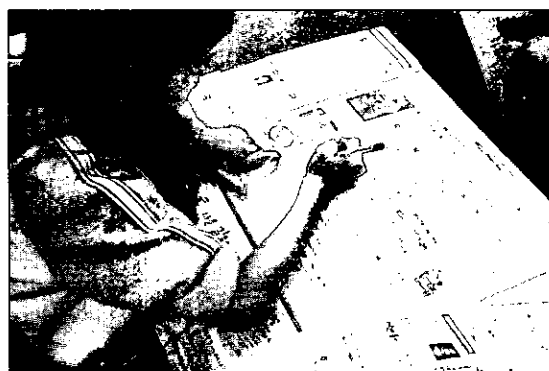
‘앓! 이럴 수가’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나 단어 중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거나 지칭하는 반(反)인권적 단어를 찾아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고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는 활동이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순히 신체 일부의 특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아동이 깨닫고 이러한 용어가 바른 표현이 아님을 일깨워주는데 프로그램 구안의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말 잇기 놀이하기	○ 학급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말 잇기 놀이를 실시하였다.	끝자로 시작되는 말을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전개	편견이 담긴 말을 찾아보기	○ 말 잇기 놀이에서 나온 단어를 모두 기록하고 이중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선택해 보았다.	※준비물: 단어카드, 놀이판
	단어게임! 하나, 둘, 셋...	○ 편견이 담긴 단어가 적힌 카드를 찾아 그 뜻을 말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게임을 실행해 보았다.	
정리	편견이 담긴 말을 바르게 고쳐보기	○ 신문이나 잡지에 사용된 단어 중 신체적 편견이 담긴 단어를 찾아 고쳐 보았다.	정해진 시간(5분)동안 가장 많은 단어를 찾아 고친 오둠이 승리하도록 하였다.



말 잇기 놀이 장면



단어게임 하나! 둘! 셋!

편견이 담긴 말 바르게 고치기

★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부적절한 신체표현

***** ()안은 적절한 표현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말

- | | |
|-----------------|---------------------|
| ① 정상인(비 장애인) | ⑨ 귀머거리(청각장애인) |
| ② 외눈박이(시각 장애인) | ⑩ 째보(언청이 환자) |
| ③ 병신(장애인) | ⑪ 먹보(많이 먹는 사람) |
| ④ 난쟁이(키가 작은 사람) | ⑫ 삼겹살(살이 많이 찐 사람) |
| ⑤ 키다리(키가 큰 사람) | ⑬ 말라깽이(살이 거의 없는 사람) |
| ⑥ 땅딸보(키가 작은 사람) | ⑭ 정신박약아(정신 장애인) |
| ⑦ 봉사(시각 장애인) | ⑮ 절름발이(하반신 장애인) |
| ⑧ 병어리(언어 장애인) | |

5 나의 별명! 너의 별명!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9. 17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
3. 활동의 과정:
 - 도입 : 우리 반 아이들의 별명 조사하기
 - 전개 : 별명이 가지는 뜻을 알아보기/별명에 대한 생각 이야기하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예쁜 별명으로 고쳐 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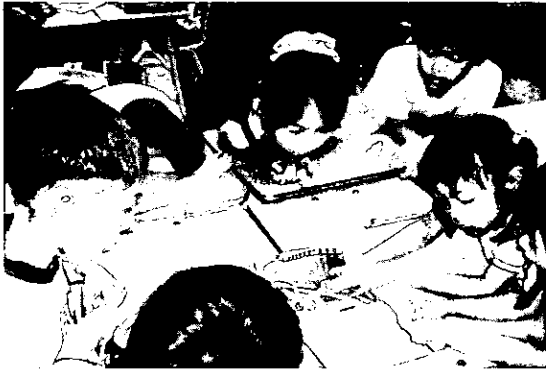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나의 별명! 너의 별명’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아동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프로그램 구안의 목적을 두었다. 학교에서 아동 개개인은 별명(Nickname)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부정적이고 인권 침해적 자기 비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급 내 아동 개개인에게 붙여진 별명을 분석하고 이를 아름답고 바람직한 별명으로 바꾸어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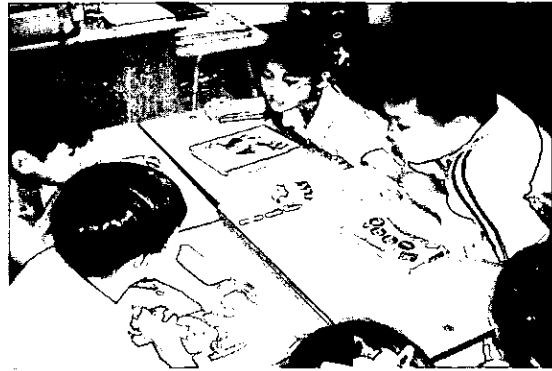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우리 반 아이들의 별명 조사하기	○ 학급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각자의 별명을 조사하였다.	체크리스트(집계표)
전개	별명이 가지는 뜻 알아보기	○ 별명이 가지는 의미와 별명을 그렇게 붙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았다.	※준비물: 개인별 학습지
	별명에 대한 생각이야기 하기	○ 자신에게 붙여진 별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다.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친구의 이미지에 적합한 예쁜 별명으로 고쳐 짓도록 하였다.	별명을 새로이 붙일 친구의 장점이거나 특기를 찾도록 하였다.

체험활동의 모습



우리 반 아이들의 별명 조사하기



예쁜 별명 지어주기

체험활동의 결과

★ 우리 반 아이들의 별명조사하기

번호	이름	처음 별명	붙여진 이유	특기/장점	새 별명
1	김 ○ ○	곰탱이	행동이 다소 느려 보여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	박사님
2	이 ○ ○	돼지	똥똥한 편이다.	축구를 잘 한다.	차두리
3	강 ○ ○	보라돌이	귀엽다.	노래를 잘한다.	보아
35	지 ○ ○	꽃돼지	통통하다	성격이 좋다.	민음이
36	연 ○ ○	세균맨	잘 씻지 않는다.	친구를 잘 도운다.	기쁨이
37	조 ○ ○	호빵맨	얼굴이 둥글다.	성격이 좋다.	아름이
38	최 ○ ○	외계인	행동이 조금 엉뚱하다.	글씨를 잘 쓴다.	한석봉
39	정 ○ ○	땅콩	키가 작으며 재치 있다.	독서를 좋아한다.	독서대장
40	전 ○ ○	외눈박이	윙크하는 버릇이 있다.	달리기를 잘한다.	이봉주

(4)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현상 경험하기

[6] 나도! 장애인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10. 4 4교시(11:30-12:20)
2. 장 소: 교실 및 운동장, 기타 교내 시설 활용
3. 활동의 과정:
 - 도입 : 2인 3각 놀이하기
 - 전개 : 눈감고 장애물 피하기/장애 체험하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장애우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조사·발표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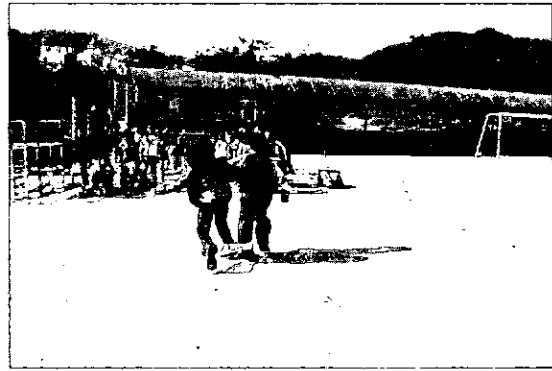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나도! 장애인’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현상을 아동이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을 비 장애인인 아동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이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권리(통행권 등)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프로그램 구안의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2인 3각 놀이하기	○ 2개의 팀으로 나누어 2인 3각 놀이를 실시하여 보았다.	운동장에서 실시 ※보자기(팀별 1개씩)
전개	눈감고 장애물 피하기	○ 눈을 눈가리개로 가린 후 교실내의 장애물을 스스로 피해 정해진 물건을 가져 오도록 하였다.	※준비물: 눈가리개(4개)
	장애 체험하기	○ 도우미 친구의 도움을 받아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눈을 감고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조사·발표해보도록 하였다.	장애체험활동을 통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체험활동의 모습



2인 3각 놀이하기



눈감고 장애물 피하기



장애체험하기

체험활동의 결과

★ 장애체험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소감

번호	이름	장애체험에 대한 소감(생각)
16	윤 ○ ○	처음에는 눈을 가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 내려가다가 한번은 발을 헛딛어 넘어졌다. 다행히 옆에 도우미 친구가 있어 다치지지는 않았다.
19	김 ○ ○	눈을 가리고 교실에 있는 책상들을 피해 다녔다. 눈을 뜨고 있을 때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막상 눈을 감으니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장애인들은 매일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니 너무 안됐다.

7 이야기 세계!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10. 8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본교 전자도서관
3. 활동의 과정:
 - 도입 : 배역 정하기/역할극 준비하기
 - 전개 : 무대 꾸미기/역할극으로 표현하기/소감 발표하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역할을 바꾸어 표현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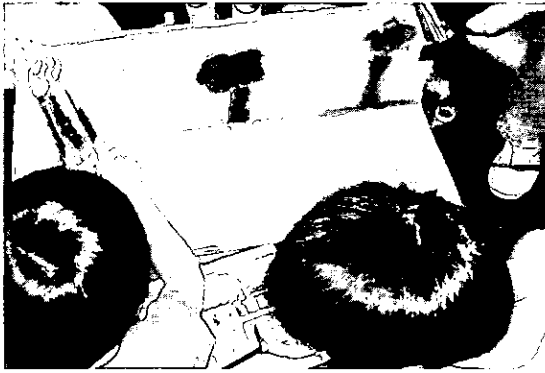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이야기 세계!’ 프로그램은 ‘난쟁이가 된 거인’의 뒷 이야기를 원작(原作)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각색하고 이를 역할극(그림자극, 인형극)의 형태로 시연해 봄으로써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교훈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는 데 프로그램 구안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결말이 도출된 데 대한 원인과 결과의 분석을 중시했으며 인권적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결론 도출에 주력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배역 정하기/ 역할극 준비하기	○ 역할극 시연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모둠별 대본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운동장에서 실시 ※필기구
전개	역할극 시연을 위한 무대 꾸미기	○ 역할극 시연을 위한 무대 및 인형을 제작하였다.	※준비물: 무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세트재료 (풀,가위,자 등...)
	에화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 그림자극, 인형극으로 표현하여 보았다.	
	감상 소감 발표하기	○ 역할극을 감상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필기구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각자의 배역을 바꾸어 역할극으로 표현하였다.	배역을 맡은 사람이 직접 대본을 수정하여 시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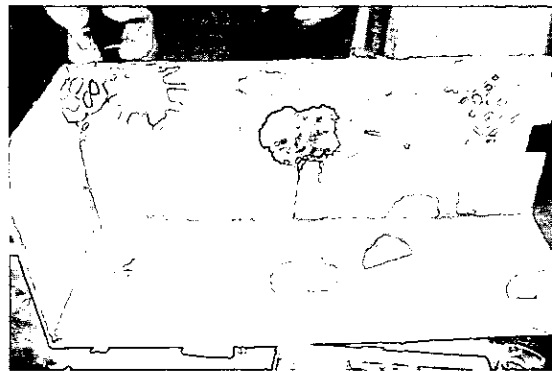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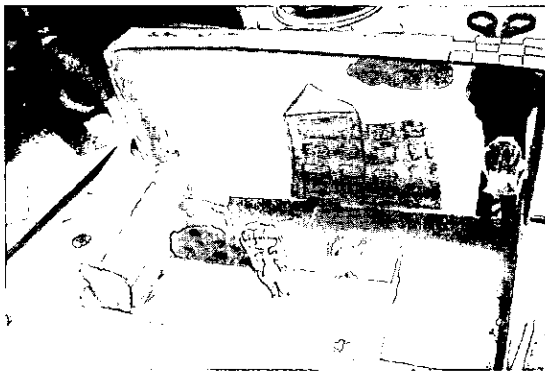
체험활동의 모습



무대 꾸미기 활동 모습



인형극 시연을 위한 인형제작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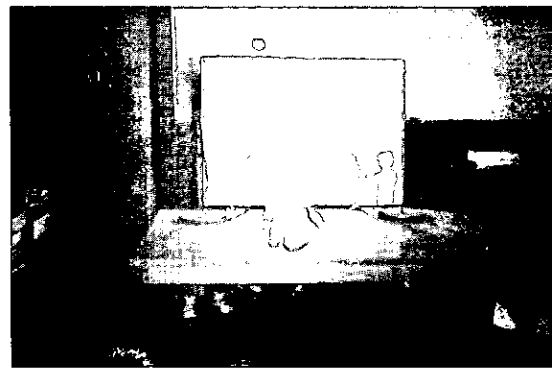


완성된 무대작품(인형극 시연용)

체험활동의 결과



인형극 시연연습



그림자극 시연장면

(5) 사회적 편견의 극복방안 탐색하기

8 수화로 여는 이웃사랑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10. 11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
3. 활동의 과정:
 - 도입 : 몸짓으로 의사전달하기 게임
 - 전개 : 수화로 노래하기(노래: 개사곡-모두모두 사랑해요!)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희망일기 쓰기)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수화는 점자와 함께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학습해보고 이를 활용하여 수화노래를 불러봄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프로그램의 구안 목적을 두었다. 단원 도입에서 실시한 몸짓으로 의사전달하기 활동을 통하여 수화(약속된 언어)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응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 희망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무관심, 편견의 태도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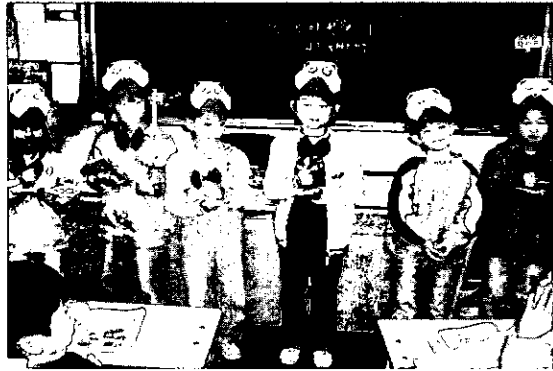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몸짓으로 의사전달 게임하기	○ 간단한 문장을 몸짓을 활용하여 전달해보고 이를 다른 사람이 맞추어 보도록 하였다.	문장카드는 교사가 제시하고 이를 아동이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전개	수화로 노래하기	○ 간단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화를 지도하였다. ○ 수화를 활용하여 개사곡을 부르도록 하였다.	※개사곡- 코시송(KOCE송을 변형한 모두모두 사랑해요.)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장애인에 대한 마음자세를 주제로 일기를 기록하였다.	

체험활동의 모습



몸짓으로 의사 전달하기



수화로 노래하기

체험활동의 결과

★ 희망일기 쓰기

장애인은 우리의 이웃

글쓴이: 2학년 수권반 이세영

● 2004년 10월 11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 재량활동시간에는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을 하였다. 우선, 몸짓으로 의사전달하기 놀이를 하였다.

우리 모둠의 민수가 술래가 되어 여러 가지 동작을 하였다. 민수의 동작은 너무나 웃겼다. "할아버지께서 골프를 치신다"라는 뜻의 동작을 했는데 우리 모둠 친구 중 아무도 못 맞췄다.

나도 술래가 되어 "나뭇꾼이 노루를 구해주었다"라고 몸짓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꾸 '노루'를 '사슴'으로 알아들어 매우 답답했다.

결국, 내가 정답을 가르쳐 주고 말았다. 선생님께서는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손짓을 활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하셨다. 아마 내가 장애인이었으면 너무나 답답했을 것 같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몸짓으로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장애인들은 너무 대단하다. 선생님께서는 수화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수화를 이용하여 노래도 불러 보았다. 수화는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에 장애인을 만나면 반드시 사용해 봐야지.

9 장애인을 위한 마을 꾸미기

※ 활동의 개요

1. 수업일시: 2004. 10. 15 4교시(11:30-12:20)
2. 장 소: 본 연구반
3. 활동의 과정:
 - 도입 : 우리 학교의 장애인 시설 조사하기
 - 전개 : 장애인을 위한 마을 꾸며보기(그리기)/ 초대장 만들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장애인 사랑하기'를 주제로 한 동시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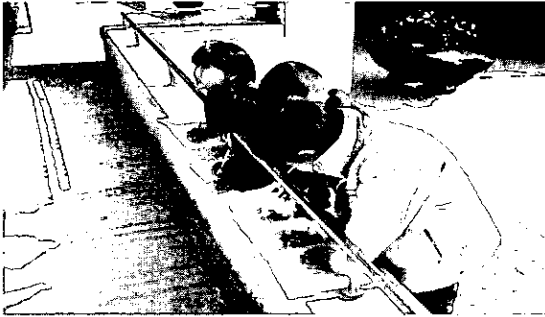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구안목적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시설물들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들이 교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직접 조사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을 생각해보고 장애인 마을 꾸며보기를 통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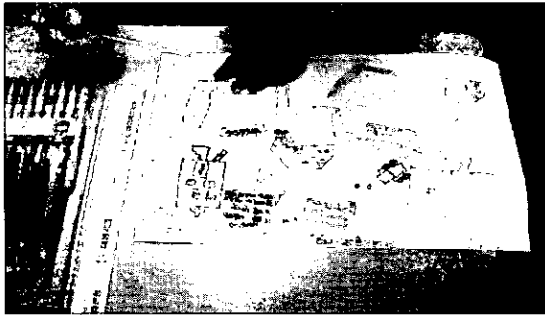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적용과정	주요 활동 내용	지도내용 및 방법	준비물/유의사항
도입	우리학교의 장애인 시설 조사하기	○ 우리 학교에 설치된 시설물 중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조사하였다.	조사학습지
	조사내용 발표하기	○ 교내의 장애인 시설물 상태를 발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전개	장애인 마을 꾸며보기 /초대장 만들기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마을을 그려서 표현하였다.	※준비물- 도화지,사인펜,색연필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마을 지도 그리기 자료 활용)
		○ 장애인 마을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기록하였다.	
정리	실천의지 다지기	○ '장애인 사랑하기'를 동시로 표현하였다.	

체험활동의 모습



장애인 관련시설 조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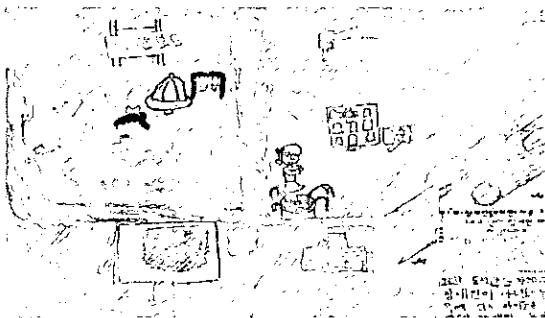


장애인 마을 꾸며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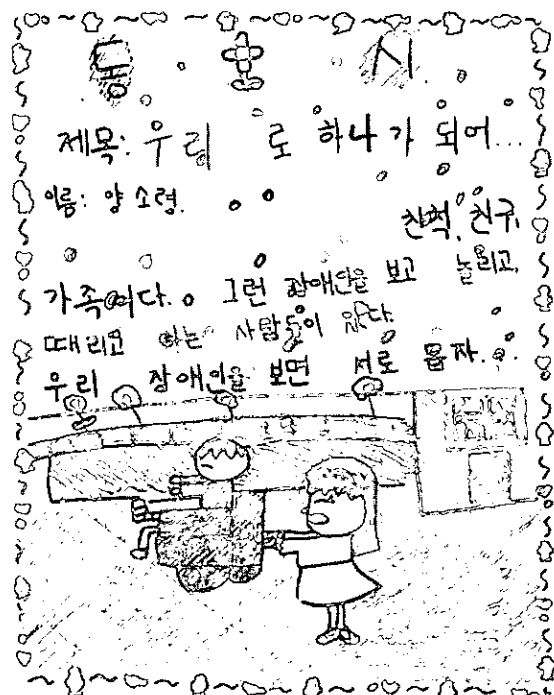


초대장 만들기

체험활동의 결과



장애인 마을 꾸미기 작품



장애인 마을 초대장

동시작품(주제: 장애인 사랑하기)

4. 실천효과

본 연구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투입 초기인 9월 2주에는 기초 실태조사를, 프로그램의 투입이후인 10월 4주에는 실천효과 검증을 위한 행동의 변화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검증에 사용된 도구는 자체 제작한 설문지(인권의식 자기측정표)를 참고로 하여 인권교육에 따른 아동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에 있어 인권개념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술)용어는 아동의 발달단계상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자기측정 평가표의 행동변화 판단기준(BCRS-Behavior Change Reference Standards)역시 본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구안하여 적용한 것임을 밝혀둔다.<표 3>

〈표 3〉 자기측정평가표의 행동변화판단기준
(BCRS-Behavior Change Reference Standards)

단계	인권의식 형성도	문항반응점수	비고
Level1	인권의식이 매우 잘 형성되어있다.	85.0~100.0	인권 의식이 양호하게 형성
Level2	인권의식이 대체로 잘 형성되어있다.	70.0~84.9	기본적 인권의식 형성
Level3	인권의식의 형성이 미흡하다.	50.0~69.9	인권의식 형성 미흡
Level4	인권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	0.0~49.9	

한편, 인권의식 자기측정표는 다음의 평가항목을 포함시켜 구안하였다.⁵⁾<표 4>

〈표 4〉 자기측정평가표의 구성방안

평가영역 (기본개념)	평가문항수 (총20문항)	문항내용
차이/차별	5	1. 2. 나와 남의 차이/차별 3. 남녀의 차이/차별 4. 나이에 따른 차이/차별 5. 학교에서의 차이/차별
공동체/ 민주적 참여	5	6. 집단 따돌림(왕따)현상에 대한 생각 7. 8. 집단 따돌림(왕따)에 대한 아동시각 9.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10.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및 태도
신체적 정신적 차별로 부터의 자유	5	11. 신체적 차별에 대한 생각 12. 인종적 차별에 대한 생각 13. 국적차별에 대한 생각 14.15.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생각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해결	5	16. 17. 갈등해결 방법 18. 갈등해결에 대한 생각 19. 갈등이 계속될 때의 대처방안 20. 폭력에 대한 생각

5) 평가영역(기본개념)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라잡이”(강순원외 共著), 인권교육담당관실편에 제시된 학교인권교육의 내용 영역중 본 프로그램과 직접관련이 있는 4개 영역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3>, <표 4>에서 제시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5>

<표 5> 아동의 인권의식 변화도(N=40)*

문항 번호	평가영역	설 문 내 용	반응결과 (반응점 평균)**		변화도	비고
			9월 2주	10월 4주		
1	차이/차별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1.2	3.7	+2.5	합: +13.4 평균: +2.68
2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달라도 옳다면 받아들인다.	0.7	3.9	+3.2	
3		내(남/여)는 다른 이성(여/남)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1.7	4.8	+3.1	
4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1.6	3.5	+1.9	
5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의 의견도 존중해준다.	1.3	4.0	+2.7	
6	공동체/ 민주적 참여	나는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4.2	4.9	+0.7	합: +7.7 평균: +1.54
7		왕따현상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	5.0	+0.3	
8		왕따 당한 친구는 보호받아야 한다.	2.5	4.5	+2.0	
9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한다.	1.1	3.9	+2.8	
10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내 의견 만큼이나 중요하다.	2.3	4.2	+1.9	
11	신체적 정신적 차별로 부터의 자유	키가 작은 친구에 대해 놀리거나 괴롭혀선 안된다.	3.8	4.8	+1.0	합: +15.7 평균: +3.14
12		나와 피부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한다.	2.5	4.7	+2.2	
13		나는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잘 도와준다.	0.4	4.1	+3.8	
14		장애인들을 보면 도움을 준다.	0.1	4.5	+4.4	
15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0.2	4.5	+4.3	
16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해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 할 때에도 의견을 잘 들어준다.	1.3	4.2	+2.9	합: +12.0 평균: +2.4
17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다.	0.2	3.5	+3.3	
18		의견이 다른 경우 폭력을 쓰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3.5	4.9	+1.4	
19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0.4	3.7	+3.3	
20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6	4.7	+1.1	
종합			37.3/L4	86.0/L1	+48.7	

* L1=Level1 /L2=Level2 /L3=Level3 /L4=Level4 ** 문항당 반응점수-5점(반점)

<표 5>는 본 연구반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변화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 적용 후 본 연구반 아동들의 인권의식은 프로그램 투입초기 문항 반응 점수가 37.3점으로 L4(Level4)로 나타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거나 미흡하였으나 (자기중심적 아동성향이 강함), 프로그램 투입이후에는 86.0점으로 상승하여 L1(Level1)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은 +48.7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가관련 4개 영역에 대한 변화도는 다음과 같았다.

1. 전반적으로 인권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는 부족했으나, 체험을 통한 가치 판단능력은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영역중 가장 큰 변화도를 보인 영역은 「신체적 정신적 차별로 부터의 자유」에 대한 개념인식이었으며 프로그램 투입전에는 이에 대한 인식 반응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투입이후에는 평균 +3.14점 정도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2. 설문내용 중 가장 큰 반응 변화도를 보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부분이었다.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와 실천정도가 매우 미흡했으나, 프로그램 적용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동체/민주적 참여영역에 대한 개념형성도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생활습관에서 민주적 생활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아동의 바람직한 인권의식 형성 및 반(反)인권적 생활습관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차별문제에 있어 아동들이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장애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맺으며...

처음 ‘인권’이라는 화두(話頭)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상당한 부담감과 낯설음을 느꼈다. 그 동안, 학교현장에는 도덕교육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항상 내 생각만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권리는 무시하는 생활태도 및 습관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권교육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게 본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의 아이들과 나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이 곧 인권의 바람직한 구현장소가 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좀 더 나는 인권적으로 성숙한 활동을 기대하며 『“키 작은 아저씨! 키 큰 아저씨! 모두모두 사랑해요”』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강순원의 共著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라잡이”, 인권교육담당관실편, 2003.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실, “우리 교과서의 인권 이야기”, 2003.
3. 박옥주, “장애인 인권과 국어 통합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자료실, 2003.
4. 배성호, “인권동화를 통한 통합적 인권교육”, 인권교육실천사례, 2003.
5. 원희영, “친구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좋지?” 인권교육실천사례, 2003.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어린이 인권의식 조사”, 2000.
7. 정미경, “민들레반의 『알가닥 나영이네 놀러가기』” 인권교육실천사례, 2003.
8. 한수영, “인권을 잘 알고 실천하는 우리 반”, 인권교육실천사례, 2003.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 서울 정곡초 5학년 4반 아이들의 인권교육 이야기 —

서울 정곡초등학교 교사 이선영

1. 들어가며

지난 겨울에 우연히 인권교육 연수를 받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인권이란 말도 친하지 않았고 방송에서 떠드는 인권은 완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그런데 연수를 받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권은 우리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쉽게 주어져 있는 자유가 아니었다. 쉽게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믿고 있지만 주어지지 않은 그런 권리가 인권이었다.

우리 학교는 장애인 영구임대 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의 아이들의 가족 중에는 많은 수가 (약 10%정도) 장애인이다. 아이들의 부모님도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학교를 나서면 쉽게 장애인을 만날 수 있고 이웃사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번도 수업 시간에 그들의 시선에서 인권을 이야기 해 본적이 없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들은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깨닫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인권교육이 가장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 인권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며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가 되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늦었지만 지금... 인권교육을 시작해 보려한다.

2. 학습 목표

- ①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 기본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인간은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됨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아동, 장애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도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④ 나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동시에 남의 인권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교육기간 : 2004년 7월 1월 ~ 10월 22일 (매주 목요일 재량시간)

4. 교육 대상 : 서울 정곡초등학교 5학년 4반 (남: 14명, 여: 14명)

5. 학습 교수 활동 단계

번호	주 제	교수 학습 활동
1	인권에 대한 민감성 기르기	▶ 인권이란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나 문장을 말풍선에 적어 보기 ▶ 인권에 대한 골든벨 퀴즈 ▶ 뉴스나 신문에서 '인권'에 관한 기사거리나 이야기 찾아보기
2-1	아동의 인권 알기	▶ 나에 대해 알아보기 ▶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 알아보기
2-2	아동의 인권 알고 실행하기	▶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 이야기하기 ▶ 인권을 유린당한 친구의 상황을 추측해보고 현실알기
2-3	나의 인권과 친구의 인권 찾아주기	▶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놀린 '뚝뚝아' 친구 재판하기 ▶ 우리 반 왕따 없애기 프로젝트
3-1	장애인의 인권 상황 파악하기	▶ 장애 체험하기 및 느낀점 서로 나누기
3-2	장애인의 인권 찾기	▶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영화 “여섯 개의 시선 中 대륙횡단”을 보고 간접 체험 및 느낀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포스터, 표어, 노래 가사 바꾸기 등)
3-3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고쳐야 할 점	▶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한 곳을 찾아보고 ‘구청장님께 이를 고쳐달라는 편지’쓰기
4-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알기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영화 “여섯개의 시선 中 찬드라 이야기”를 보고 간접 체험 및 친구들과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4-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알리기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주변에 알리기
5	책에서의 인권 찾기	▶ ‘엄마, 엄마’ 읽고 주인공이나 작가선생님께 편지쓰기
6	미디어에서의 인권찾기	▶ 영화 ‘여섯 개의 시선’과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감상하기
7	웹상에서의 인권 여행	▶ 인권과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알아보기 ▶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8	우리는 인권 수호자	▶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로서 해야 할 일 실천하기

2) 인권에 대한 골든벨 퀴즈

- 골든벨 퀴즈는 O,X 형식으로 진행되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물어보지만 '이런 것들도 인권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시켜주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인권 골든벨을 울려라!

- 문제 및 해답-

1. 장애인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다. (X)
2.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맞다. (X)
3. 여자와 남자는 차별받아서 안 된다. (O)
4. 집안일은 엄마와 누나, 동생 등 여자만 해야 한다. (X)
5. 청각장애인 중에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O)
6.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O)
7.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도 낮다.(X)
8. 어린이는 부모님이 원한다면 놀고 싶을 때 놀 자유도 없다. (X)
9.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준다.(O)
10. 나의 종교로 인하여 학교에서나 회사에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X)
11. 예쁜 여자들이 직업을 갖기 쉬운 것은 당연하다. (X)
12.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X)
13. 우리나라에는 인구의 약 10%인 450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 (O)

- 아이들은 제법 답을 잘 맞추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인권에 관한 문제인지 하며 고개를 갸웃둥 거리기도 하고 우리의 인구 중 약 10%의 인구가 장애인이라는 데에는 놀라는 아이들이 많았다.

3) 뉴스나 신문에서 '인권'에 관한 기사거리나 이야기 찾아보기

- 실생활에서 인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활동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느낀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았다.

뉴스나 신문에서 기사거리를 찾고 나서 느낀 점 발표해 보기

-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뉴스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 중에서 종교의 자유를 원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형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 인터넷으로 인권 뉴스를 찾아보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기사가 많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다.
- 인권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가 많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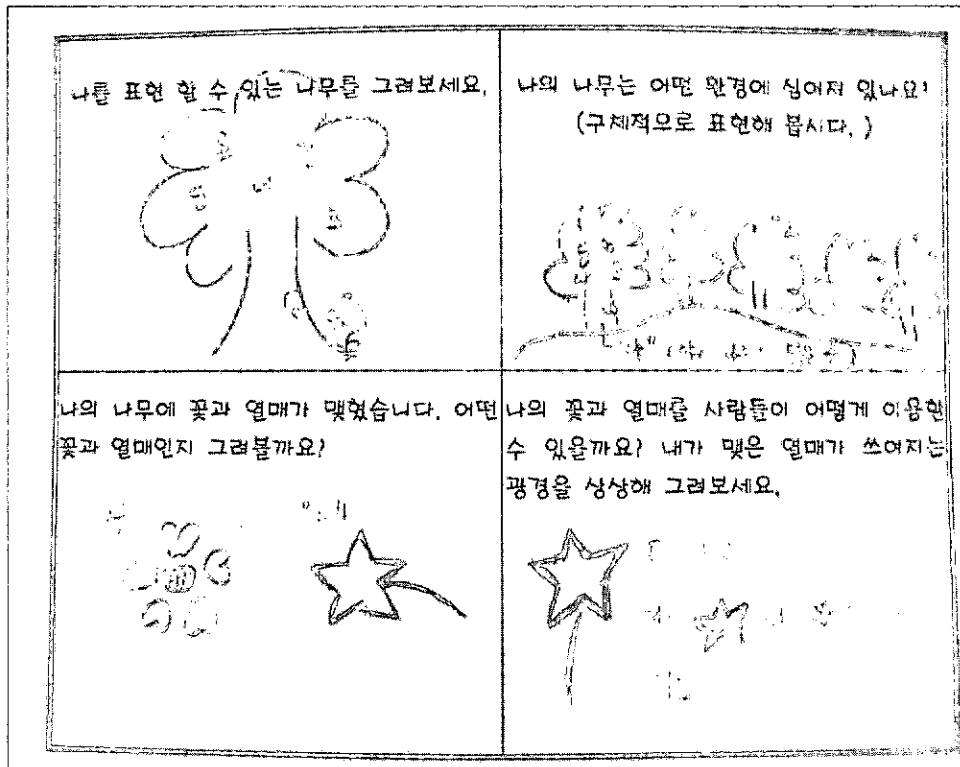
나. 내(아동)의 인권 찾기

1) 나에 대해 알아보기

- 나의 존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를 나무에 비유해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내가 맺은 열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봄으로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신의 중요성 및 다른 친구들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직접 나타내는 것 보다 나무에 비유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는 활동을 함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어 다른 이나 자신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뿌듯해 했다.

나를 표현 할 수 있는 나무를 그려보세요,	나의 나무는 어떤 환경에 심어져 있나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나의 나무에 꽃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떤 꽃과 열매인지 그려볼까요?	나의 꽃과 열매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맺은 열매가 쓰여지는 광경을 상상해 그려보세요,



2)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 알아보기

- 아이들은 아동 권리 협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특히 '제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항목에 환영의 표시를 했는데 학원이다 뭐다해서 적절한 휴식을 즐기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느껴졌다. 같이 협약을 본 후 학습지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권리협약 몇 조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제대로 이해했나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아동 권리협약 ()조
누가 키워주셨나요?	아동 권리협약 ()조
종교가 있나요?	아동 권리협약 ()조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나요?	아동 권리협약 ()조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동 권리협약 ()조
자유시간에 즐겨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동 권리협약 ()조
또래 친구들이 만든 모임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아동 권리협약 ()조

3)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는 무엇인가요? 그때의 느낌을 마임으로 표현하기

- 우선 아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 후 그때의 느낌(보통 화가 나고 분노가 생김)을 마음속에 구슬로 만들어 담아보게 한다. 그리고 그 구슬을 꺼내어서 깨뜨리는 것을 마임으로 함으로서 분노를 해소시키고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는?

- 문방구에서 준비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앞질러 가서 먼저 물건을 산 적이 있었다.
- 가게에 들어가도 어른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어린이가 들어가면 본 척도 안 한다.
- 슈퍼에서 물건을 잘못 사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어린이라서 그런지 바꾸어 주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가니 친절하게 바꾸어 주었다.
-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리를 그냥 비키라고 해서 일어나야만 했다.
- 롯데월드에서 한참이나 줄을 섰는데, 어른들이 친구들과 있는 내 자리 앞으로 새치기를 했다. 우리가 항의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화 또는 분노의 구슬을 뱉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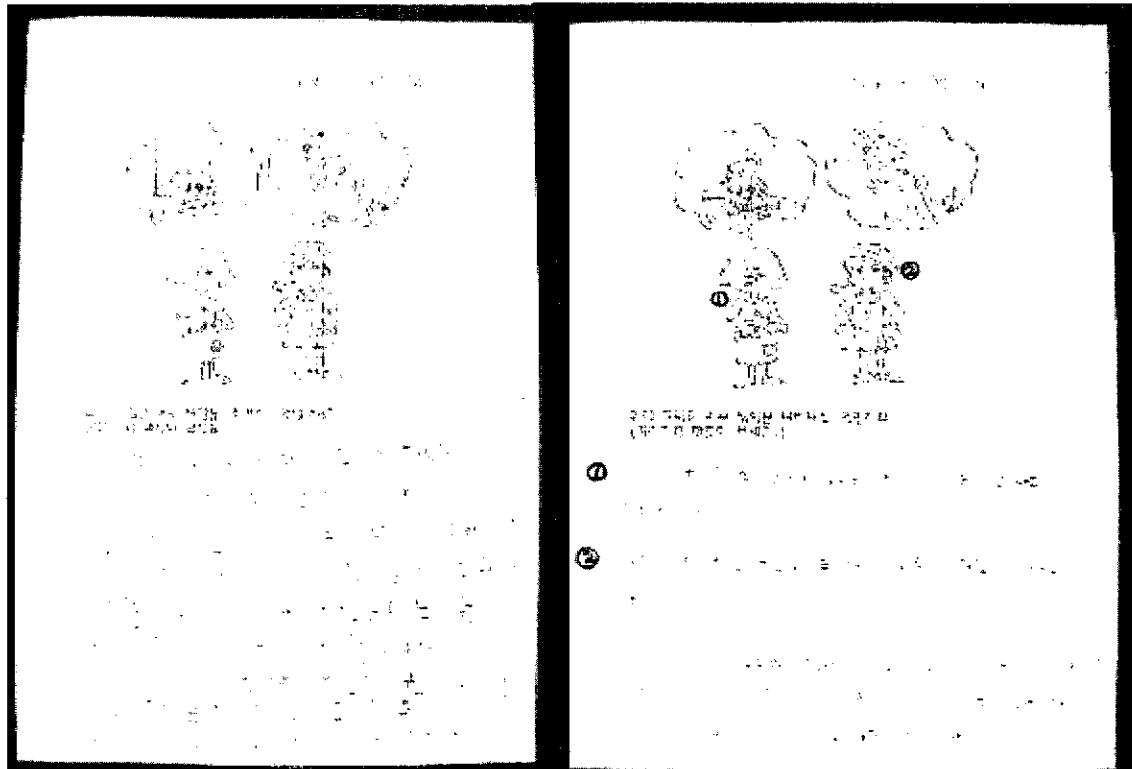


<분노의 구슬 깨뜨리기>

4) 인권을 유린당한 친구의 상황을 추측해보고 현실알기

- 인권 관련 만화를 보고 상황을 추측하여 내용을 적고 인권침해가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했다. 그 후 원래 그림의 내용(월드컵 공을 꿰매고 있는 제3세계의 아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실제 아동노동을 하다 시력을 잃기까지 한 '쏘냐(인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기장에 쏘냐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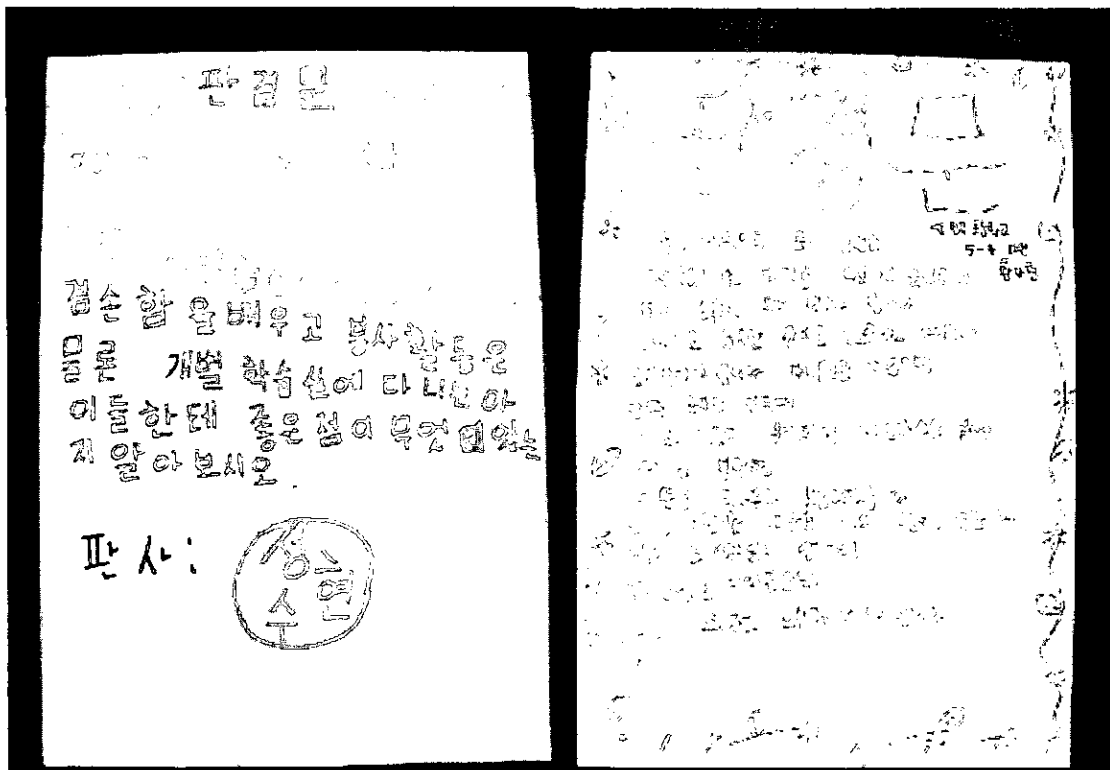
그림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
5-4 이인하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가 만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 아이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신발도 못 신고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것을 보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UN의 어린이 권리조약 32조에 보면 어린이는 일을 할 때 쉬어도 된다고 써있는데 설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5-4 송지은 가난한 아이는 자신의 권리를 할머니가 되어서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늙어서도 거지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부자인 아이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자신의 권리를 영원히 가질 수 있어서 우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놀린 '똑똑이' 친구 재판하기

- 우리 반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정서적으로 지능적으로 다른 친구들 보다 낮은 친구가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를 같은 친구로 보지 않고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들어서 모의재판을 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 상황 : 개별학습실은 장애가 있어 일반학급에서만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다. 그런데 '똑똑이'어린이는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바보'라고 놀려서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개별실 어린이들은 '똑똑이'어린이를 차별혐의로 고발했다.



<아이들이 내린 판결문>

6) 우리반 왕따 없애기 프로젝트

우리반 왕따 없애기 프로젝트

5학년 4반 친구들의 생각

1. 우리반 왕따를 없애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 친구들이 서로 잘 아는 분야를 같이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본다.
-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와 같이 논다.
- 자기가 잘 하는 것을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
-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은 부족한 점을 이해하며 같이 친하게 지낸다.
- 처음부터 왕따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서로 이해한다.

2. 이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같이 이야기 해보기
- 놀리지 않기
- 친구를 화나게 하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3.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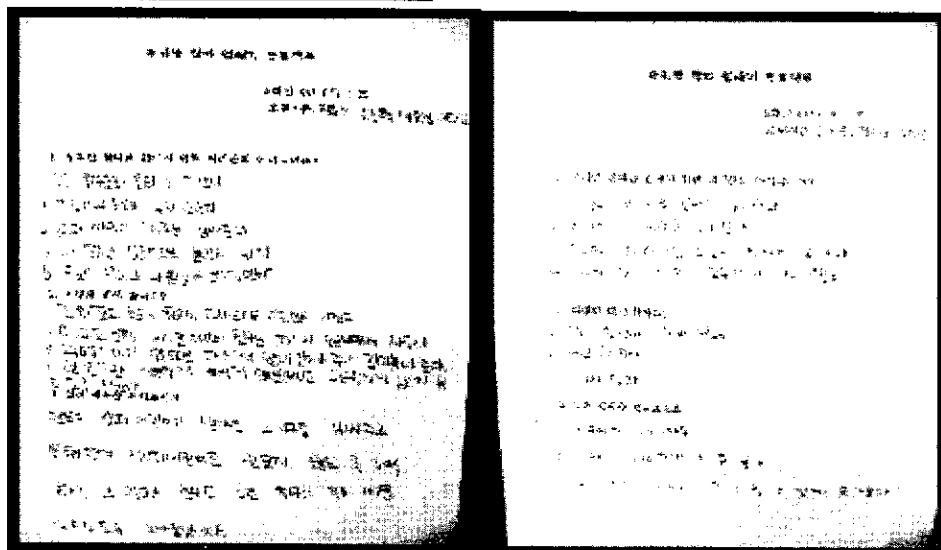
- 친구에게 다가가 본다. 그 아이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 후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우리반 카페에 상담실 게시판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오해도 풀어서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 왕따 당한 친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등하교 때나 혼자 있을 때 동무가 되어준다.

- 먼저 모둠별로 서로의 의견을 나눈 후 왕따 없애기를 위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 등을 의논한다. 모듬의 의견을 학습지에 적은 후 모듬친구 중 한명이 의견을 발표한다. 아이들은 의견을 잘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을 3가지 정도 뽑은 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2주간 일기에 자신이 잘 실천했는지 '한줄 반성'(한 줄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문장쓰기)을 하여 마음속 깊이 친구를 왕따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짐함으로 왕따없애기를 실천화 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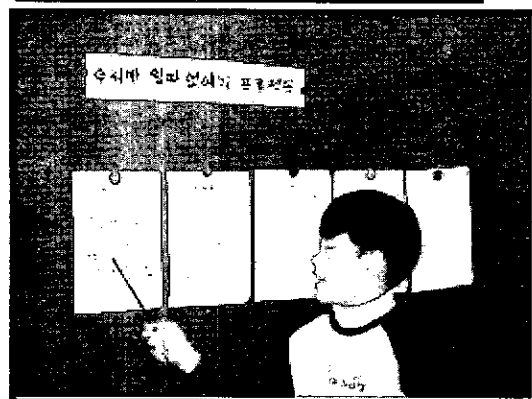


◁모듬원과 함께 의논하기

▽ 함께 생각을 정리하기



모듬원의 생각을 발표하기 ▷



다. 장애인의 인권 알기

1) 장애 체험하기

- 학교 앞 아파트에는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한 현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활동이 장애 체험을 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활동 후 느낀점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장애체험을 하는 어린이들>

장애 체험을 하고 나서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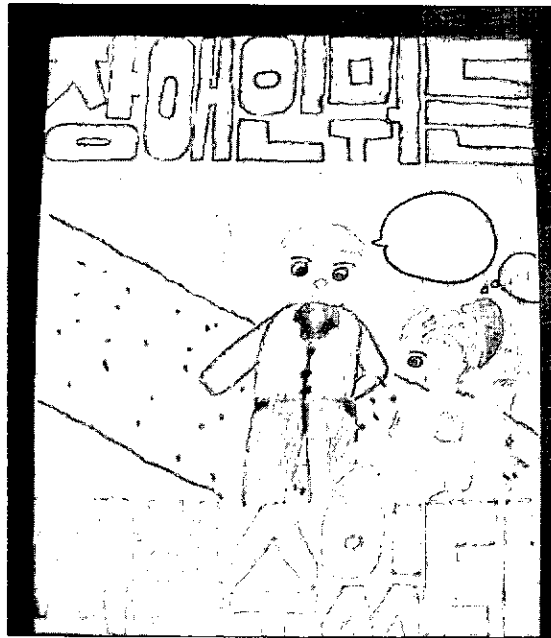
- 진짜로 장애인이 된 것 같았다. 단지 눈을 가렸을 뿐인데도 너무 무서워서 계속 손으로 벽을 짚어야 했다.
-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된 것 같았다. 한참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겨우 열발자국도 가지 못한 것이 놀라웠다.
- 앞으로는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길에 움푹 파졌거나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너무 위험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영화 “여섯개의 시선 中 대륙횡단”을 보고 간접 체험 및 느낀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 아이들과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영화를 꼭 보고 싶었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무겁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대륙횡단’이다.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쉽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는 도움이 때로는 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지 영화를 본 아이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① 포스터로 그려보기

-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전현선



② 표어(간단한 주장의 말) 짓기

- 당신이 걷고 있는 거리! 휠체어도 자유롭게 걷게 해 주세요!
-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르다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 도움을 주실 때는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③ 노래가사 바꾸기

- 장애인,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장애인도 모두같은 사람~이랍니다.
(‘산토끼’ 노래에 맞추어)
- 작은 사랑, 사랑으로 장애인들 함께~ 우리 같이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노래에 맞추어)

3)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한 곳을 찾아보고 '구청장님께 이를 고쳐달라는 편지' 쓰기

- 아이들에게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힘든 점은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더니 아주 자세히 조사해 왔다. 게다가 구청장님께 편지를 쓰니 정말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이 편지들은 잘 모아서 강서구청장님께 정말로 보내려고 한다. (읽어보시고 고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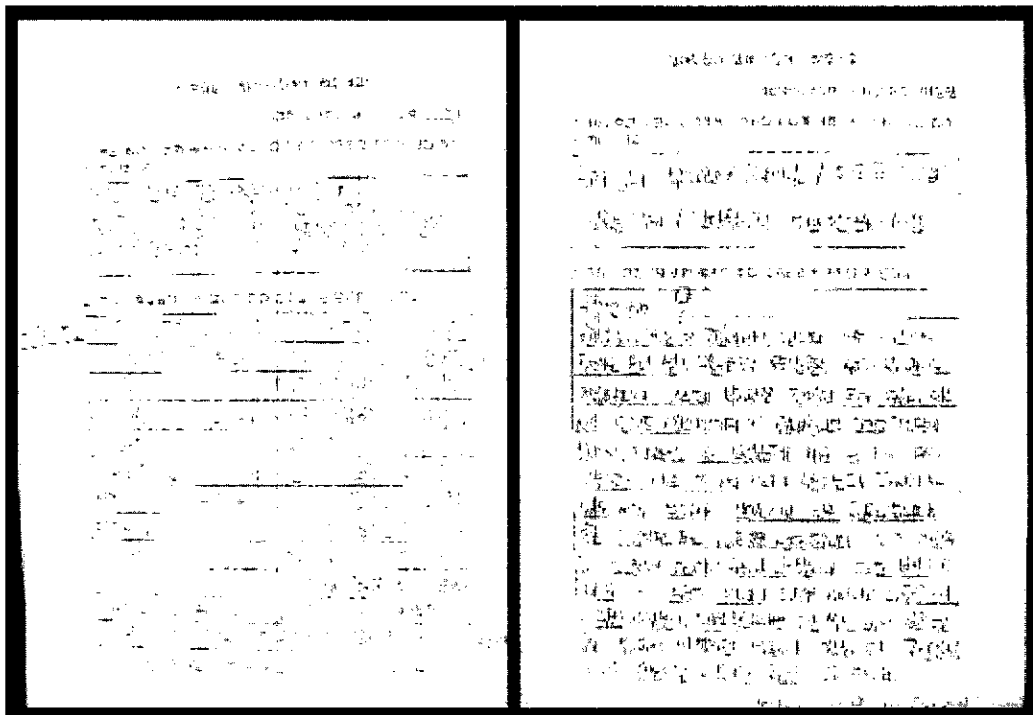
***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곳 ***

우리동제 복지관, 학교 앞, 아파트 출입구, 신호등 주위, 한양 문구점, 방신 시장 등

구청장님께

구청장님 저는 배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 복지관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보여서 계단으로 가 보았는데 계단의 폭이 무척 높았습니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 보니 다치지도 않은 제가 올라가기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계단 수도 너무 많아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나가는 출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 한곳은 계단이고 한곳은 내리막길 이었는데, 내리막길에는 한쪽만 벽이 있고 한쪽은 없어서 미끄러질 위험이 컸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점을 고쳐주세요.

2004.10.7 정국초 5-4 배효정 올림



<구청장님께 아이들이 쓴 편지>

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알기

- 외국인 노동자도 피부색과 말은 달라도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급을 받으며 이민을 갔고,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에서 퍼붓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반 아이들은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본 적도 그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세계 지구촌 이웃의 문제를 한번쯤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수업시간에 다루어 보았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영화 “여섯개의 시선 중 찬드라 이야기” 를 보고 간접 체험 및 친구들과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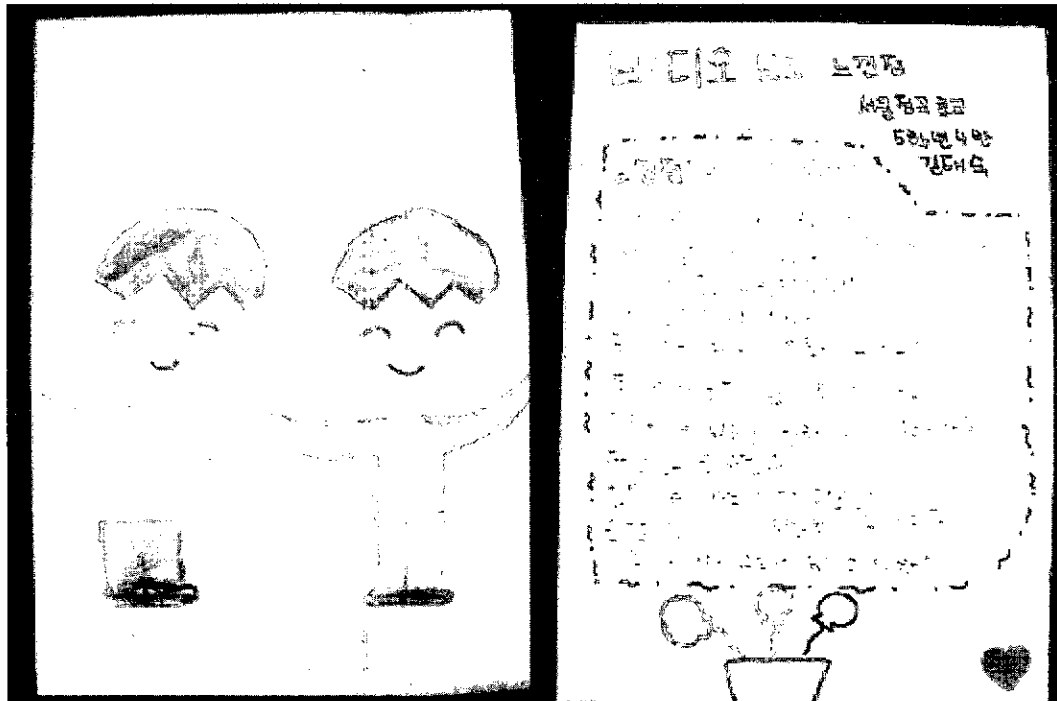
- 아이들은 찬드라가 처음에는 단순히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더니 어떻게 6년간이나 아무도 찬드라가 외국인인줄 몰랐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가졌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실화임을 들려주자 ‘세상에! 너무했다.’는 말들을 연거푸 했다.

아이들이 느낀 점과 고칠 점 자유롭게 토의하기

- 사람들이 외국인 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실제로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
- 어떻게 6년이나 모를 수 있었을까? 잘못된 경찰과 의사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 우리도 전에는 외국에서 그런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배운 인권이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
-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을 빨리 가르쳐야 할 것 같다.
-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는 기관이 생겨서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주변에 알리기

-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을 표현한 것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학부모님들은 학기 초 학부모 총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나 조금 놀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신 것 같다. 다른 반 5학년 친구들은 ‘4반에 와서 자신도 비디오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아이들이 비디오를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

아이들이 느낀점을 본 주위의 반응 (아이들이 발표한 것)

- 어머니께서는 이런 것도 배우냐고 하셨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인 노동자에게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하셨다.
-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 옆 반 친구인 희정이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더니 너희 반에서 본 비디오를 나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기에 영화의 찬드라 이야기를 해 주었다. 진짜 있었던 일이지냐고 물어서 선생님께서 그렇다고 하셨다고 대답했다.

마. 책에서의 인권 찾기

- “엄마, 엄마”를 읽고 주인공이나 지은이에게 편지를 쓰거나 하고 싶은 말을 써 보도록 하였다.

나영이에게

나영아 안녕? 나는 현주라고 해. ‘엄마 엄마’라는 책을 읽고 네가 너무나 용기 있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 넌 호기심이 많은 말괄량이인 것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나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 사실 나도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거든. 그래도 이제는 너처럼 깨끗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해. 우리 오빠가 나를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책에서라도 만나서 정말 기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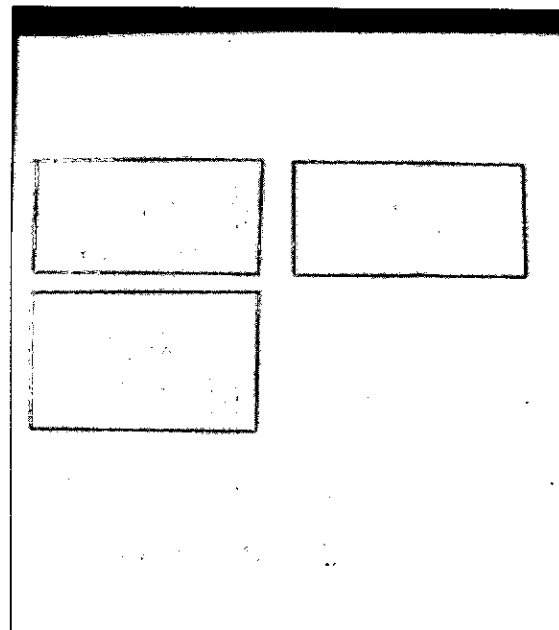
그럼... 지금처럼 활발하게 살아. 나도 그럴게.

안녕~!

2004. 10 정곡초 5학년4반 현주가

바. 미디어(영화)에서의 인권 찾기

- 영화 ‘여섯 개의 시선’ 남은 부분과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아동 권리 협약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첫 번째 이야기인 ‘그녀의 무게’를 재미있어 하면서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사. 웹상에서의 인권여행

- 학교에서 행해지는 2시간의 재량활동 중 1시간은 컴퓨터 교육이다. 그래서 컴퓨터 시간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쉽게 인권문제에 접근하며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진정', '제소'와 같은 단어의 뜻을 어려워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많은 단체들이 인권을 위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의 인권여행

서울정곡초 5-4 () 이름:

1. 인권과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2.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알아보기
3.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http://www.humanrights.go.kr>)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아. 우리는 인권 수호자

- 3개월간의 인권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인권 수호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급회의 시간을 통하여 인권을 위해 수호자로서 우리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3가지를 찾아보고 앞으로 남은 2학기 내내 같이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인권수호자 5-4 친구들이 지켜야 할 일

1. 이웃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한달에 한번씩 방화 제2복지관에 가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기
2. 우리반 저금통(봉사활동이나 자선기금으로 낸 것)을 인권단체에 보내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학교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열심히 모읍시다!
3. 우리반이나 학교에 왕따 없애기에 앞장서기

7. 교육의 효과 점검하기

가. 인권에 대한 설문하기

우리반 어린이들의 인권 의식 변화 설문결과

1.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예: 28명 / 아니오: 0명)
2. 자신의 인권을 잘 지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예: 20명 / 아니오: 2명 / 모르겠다: 6명)
3. 장애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예: 22명 / 아니오: 1명 / 모르겠다: 5명)
4.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예: 27명 / 아니오: 0명 / 모르겠다: 1명)
5. 인권교육이 스스로에게 유익한 교육이었습니까?
(예: 24명 / 아니오: 0명 / 모르겠다: 4명)

나.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효과- 교육을 마치며

3개월간의 인권교육이 끝났다. 처음 의도에는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실천중심의 인권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 우리반 아이들은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고 왕따를 만들지 말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친구들을 '애자'(장애자를 지칭하는 말)라고 놀리는 아이도 없다. 개별학습실에 가는 거수를 놀리는 일도 거의 없다. 방과 후 부진아반에 가는 친구들도 당당하게 공부하러 간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확실히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 이것이 효과하면 효과일까.

도덕시간에 수업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정말 감흥을 받고 실천에 옮길까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열심이지만 행동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이것과는 처음부터 출발점이 달랐던 것 같다. 단순히 봉사하고 질서를 지키는 삶이 아닌, 자신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를 수업시간에 끌어온 것이었다.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것은 물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업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없고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인권교육의 힘이 아닌가 한다. 누구나 받아야 하며 누구나 교육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이 인권교육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도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아 니 나에게 남은 숙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한명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모두 힘써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1)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3)
2002년 인권캠프 활동모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2)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정두용 외, 정민사 (2003)

나란히, 마땅히 그리고 소중히

— 우리 모두는 참 특★한 사람 —

경상북도 구미 문장초등학교 교사 김홍일

1. 나란히, 마땅히 그리고 소중히

가을의 시작,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권 이야기. 그 이야기 시작의 이유 세 가지.

나란히

우리 반 한 쪽 면에는 늘 목발 한 짝이 기대어져 있다.

선천적으로 척추수막염이라는 병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고 대소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의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어느 다른 아이 같으면 자기의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하며 소극적일 것일진대 우리 ○○이는 달랐다. 어느 4월 어느 날, 학교 앞 산으로 산행이 하였는데 ○○이는 목발도 없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산을 올랐다. 비록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산을 올랐지만 길가에 핀 나무와 꽃을 보면서 웃는 ○○이의 모습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이어달리기도 하더라도 꼭 빠짐이 없다. 그리고 체육 시간 줄넘기도 제법 잘한다. 그리고 늘 웃는 모습이다.

처음 ○○이를 봤을 때 가졌던 나의 염려는 그렇게 사라졌다.

워낙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아이들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가 크게는 이 사회 속에서, 작게는 이 학교 속에서 상처 받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때로는

“선생님, △△가 다리 병신이라고 놀려요”

울먹이며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의 눈 속에서 큰 슬픔이 배어있는 것을 느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란히, 나란히...

길을 걸을 때론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이를 위해 잠깐 멈춰 서서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한다.

더 크게 우리 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 친구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 아이들이 지녔으면 한다.

이 것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권 교육의 첫 번째 이유이다.

마당

나의 부모님의 연세는 모두 70대이다.

요즘 따라 무척이나 여위워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나의 부모님도 나의 같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우리 시골 집 대문 옆 창고에 자전거가 한 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뽕얀 먼지가 가득하다.

그 옛날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타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맛난 사과 한 상자 가득 싣고 옷 으시며 들어오시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그 자전거를 타실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또 뭉클해진다.

얼마 전 신문 사설 제목 하나는 나에게 의미 있는 충격을 전해 주었다.

오래 사는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8.7%에 달하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경남 의령·남해, 경북 의성·군위, 전남 곡성·고흥 등 30개 군(郡)에선 65세 노인인구가 벌써 20%를 넘어섰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다는 얘기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나의 고향이 군위인지라 이 신문 기사와 뉴스는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방송 뉴스에서는 부양 가족, 연금 등 경제 논리로만 말하고 있어서 화가 나기도 했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몸을 바치신 과도기의 사람들이셨는데 이제 와서 그냥 하나의 경제 논리에 빠져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린 듯한 현실이 너무 우울하다.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욱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대판 고려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의 사랑이 그리워 눈물 짓고 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비쳐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어떨까?

그 마음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노인들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향한 바른 사랑으로 물들었으면 한다.

마땅히,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인권 교육 시작의 이유다.

소중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미는 전자 산업 도시이다.

시외로 나가면 많은 중소 기업과 공장들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주 근로자들이 있다.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옷차림으로 길을 가다 한번쯤 뒤돌아 보게 된다.

그들의 고달픈 삶을 알려고는 하지 않은 채 ‘혹시’불법 체류자는 아닐까, 돈 벌려고 왔구나, 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와 같이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과 사회적 인식만으로 바라 보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주 근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의 잘못인양 가슴이 쓰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주 근로자들 또한 자기 나라에서는 귀한 아들이요, 귀한 사람일텐데. 큰 꿈을 안고 이 낯선 땅을 밟았을 텐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꿈도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중히, 소중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이주 근로자들의 꿈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며 그들의 꿈을 소중히 바라보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함께 숨 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가 되었다.

2. 변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준비

가. 변화의 대상 및 기간

1) 대 상 : 구미 문장초등학교

사랑받고 사뭇한 4학년 4반 32명의 친구들 (남자 16명, 여자 16명)

2) 기 간 : 2004년 9월 1일 ~ 10월 31일 (2개월 간)

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점 및 활동 시기

활동 중점	세부 프로그램	활동 시기	인권 관련 분야
인권, 즐겨 찾기	인권에 첫 눈 뜨기	9월 1, 2주 재량/특별활동	인권 전반
	나는야, 인권탐험대장 척척이	9월 3, 4주 재량/특별활동	인권 전반
	노래의 힘은 기적을 만들고	지속적	인권 전반
인권, 힘껏 배우기	교과서 속 인권 이야기 - 국어 :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 국어 : 발 - 도덕 :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 국어 : 세계 인종의 신체적 특징	교육과정의거 10월 9일 2교시 9월 23일 1교시 9월 7일 2교시 10월 29일 1교시	인권 전반 장애우 인권 노인 인권 이주 노동자 인권
	인권 동화로 새맘 갖기 - 장한 친구 희완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 환둥이네 할머니 - 외로운 지미, 지붕위의 꾸마라 아저씨	9월 5주, 10월 1주 아침 활동 및 재량/특별활동	장애우 인권 노인 인권 이주 노동자 인권
인권, 맘껏 펼쳐기	나란히, 마땅히 그리고 소중히 - 나란히 함께 걷는 길 -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10월 2주 재량/특별활동	장애우 인권 노인 인권 이주 노동자 인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작전 - 우리 학교, 마을 주위에 장애우를 위해 고쳐야 할 곳 찾아보기 -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계획하기 - 우리나라의 좋은 점 소개하기	10월 3주 재량활동 국어/미술시간	장애우 인권 노인 인권 이주 노동자 인권
	내일은 활짝 웃어요	10월 4주 재량/특별활동	인권 전반

다. 세부 프로그램별 구체적 활동 내용

활동 중점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구체적 활동 내용
인권, 즐거 찾기	인권에 첫 눈 뜨기	· '인권 바로 알기' 인권 안내 수업 · 인권의 의미를 살린 그림 글자 만들기 · 인권 교육 주제인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를 넣어 짧은 글 짓기 ·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 적기 · '인권'을 주제로 마인드 맵 작성하기
	나는야, 인권탐험대장 척척이	· 인권과 관련한 신문 기사 찾아보기 ·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찾아보기 · 장애인 올림픽 관련 신문 기사 찾아보고 응원편지 쓰기 · 인권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 찾아보고 소개하기 ·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노래의 힘은 기적을 만들고	· '사랑, 도움, 섬김, 나눔' 주제의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 '인권 보호' 주제로 가사 바꾸어 쓴 후 노래 부르기
인권, 힘껏 배우기	교과서 속 인권 이야기	·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 수업으로 인권에 대한 가치 느끼기 - 국어 읽기 둘째 마당 2. 이야기 세계 (4/9) 40~41쪽 · 장애인 인권 관련 수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키우기 - 국어 말듣쓰 둘째 마당 1. 우리들의 시 (1/9) 30~31쪽 · 노인 인권 관련 수업으로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키우기 - 도덕 1. 가깝고 반가운 친척 (2/3) 14~15쪽 · 이주 근로자 인권 관련 수업으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키우기 - 국어 말듣쓰 셋째 마당 더 나아가기 (8/9) 76~77쪽
	인권 동화로 새 맘 갖기	· 장애인 인권 관련 동화 '가방 들어 주는 아이 / 장한 친구 희 원이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표창장 만들어 주기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노인 인권 관련 동화 '흰둥이네 할머니'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이주 근로자 관련 동화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 외로운 지미'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줄 선물 꾸미기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인권, 맘껏 펼쳐기	작은 사랑의 표현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	· 우리 반 친구 ○○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 우리 반 친구 ○○에게 희망의 종이 비행기 날려 보내기 ·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은혜의 꽃 만들어 달아 드리기 ·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 · 이주 근로자에게 희망의 편지 쓰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작전	·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주위에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고쳐야 할 곳 찾아보기 ·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실버타운 계획하기 · 이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좋은 점 소개하는 글 작성하기
	내일은 활짝 웃어요	· 인권 보호 포스터 그리기 · 인권 보호 주장하는 글 쓰기 · 인권 보호 아름다운 동시 쓰기 · 인권 보호 서약서 쓰기

라. 활동의 지향점 및 절차

1) 인권 교육 활동의 지향점 및 절차

▪ 인권 교육은 단순한 개념적 지식으로서의 '인권'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가르쳐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리스터의 인권 교육의 3요소

첫째는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으로서, 관련 '지식(knowledge)'의 획득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사람들과 조직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둘째는 인권을 '위한(for)' 교육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skill)'의 개발을 장려한 것이다.

셋째는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으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의 '가치(value)'를 경험하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中
(42쪽, 인권교육의 기초원리)

살펴본 인권교육의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인권, 즐겨 찾기	⇔	인권, 힘껏 배우기	⇔	인권, 맘껏 펼치기
인권 '대한(about)' 교육		인권을 '위한(for)' 교육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

인권, 즐겨 찾기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다양한 인권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 교과서 속 인권 이야기와 인권 동화로 새 맘 갖기로 구성된 인권, 힘껏 배우기 활동으로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맘껏 펼치기를 통해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인권 보호와 사랑에 대해 적극적으로 타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보다 나은 변화를 위한 인권적 환경 구성 및 인간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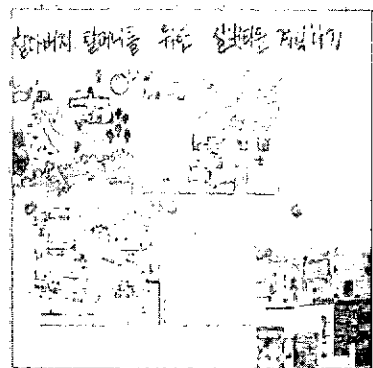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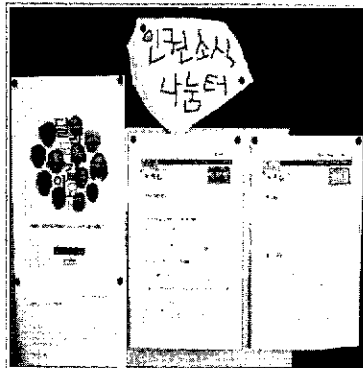
1) 인권적 환경 구성

아이들이 보다 친근히 인권과 친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실 뒷면과 옆면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아이들의 작품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공유 속에 아이들의 인권 의식이 조금씩 자라며 인권 보호에 대한 마음의 크기도 조금씩 커질 수 있었다.

■ 인권적 환경 구성 내용

- 우리 꾸민 UN 어린이 권리 조약
- 인권 소식 나눔터
- 인권 작품 전시회 등



2) 인권적 인간 관계 형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간의 인간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지라도 교실 분위기가 좋아야만 그리고 교사와 아이, 아이들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때 그 효과가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삼가 하였고 아이들간에도 지켜야할 약속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다.

작은 사회인 교실에서부터 인간 존중의 모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스러운 인간 관계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변화를 위해 시작된 특별한 일들

인권, 즐겨 찾기

나란히 함께 걷는 길,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가. 인권, 즐겨 찾기의 이해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려주었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는 처음 들어보는 낱말에 대한 낯설음과 의아함이 가득 배여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바르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자주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사람의 소중한 권리인 인권을 바르게 일깨워주고 올바른 인권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권이라는 글자와 친해지며 인권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에 대해 시작이 좋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권, 즐겨 찾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인권 보호 활동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어지는 장애인, 노인, 아주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활동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물결치는 사랑은 아이들의 인권 의식에 또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리라 생각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인권에 대해 알아 가면서 시나브로 변하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그 작은 변화는 앞으로 세상을 움직일, 밝힐 아름다운 한줄기 빛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 인권, 즐겨 찾기 세부 프로그램의 활동 시기 및 지향점

세부 프로그램	활동 시기	프로그램의 지향점
인권에 첫 눈 뜨기	9월 1, 2주 재량/특별활동	인권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재미있는 인권 관련 활동을 통해 처음 대하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권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함.
나는야, 인권탐험대장 척척이	9월 3, 4주 재량/특별활동	자기 주도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찾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노래의 힘은 기적을 만들고	지속적	아름다운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즐겨 부름으로써 사람 사랑과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의 크기를 넓힐 수 있도록 함

가. 프로그램의 이해

이 활동은 인권에 대해 잘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알아가고 인권과 친해질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권에 첫 눈을 바로 뜰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생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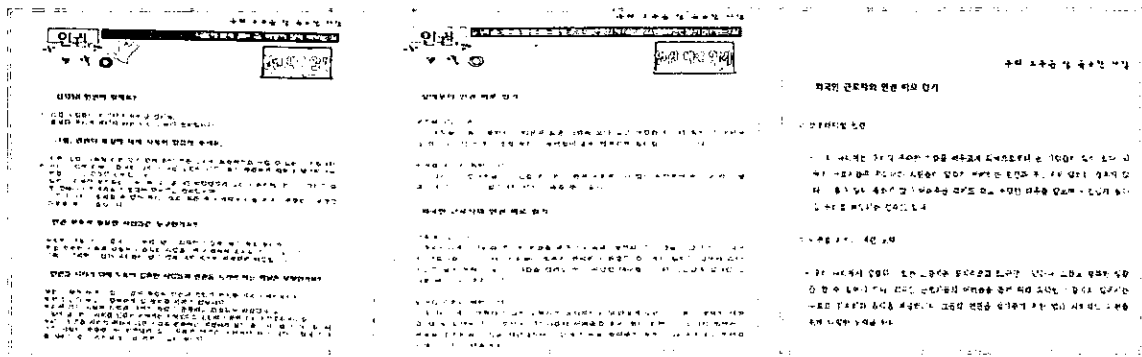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 1) 인권에 대해 첫 눈을 바르게 뜰 수 있도록 2학기 첫 재량 활동 시간에 '인권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인권에 대한 안내 수업을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인권 정보를 제공하였다.
- 2) 9월 한달 목요일 아침 활동을 통해 인권과 친해질 수 있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인권에 대해 바르게 첫 눈을 살며시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 3) 활동 후에는 인권에 대한 서로의 첫 생각과 표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으며 교실 뒷 편 인권게시판에 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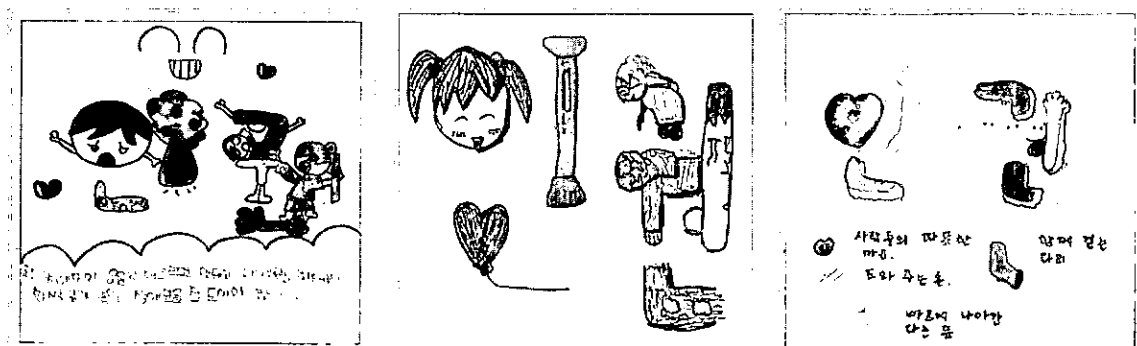
■ 구체적 활동 내용

- '인권 바로 알기' 인권 안내 수업
 - 인권의 의미, 특징, 인권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인권을 지켜야 하는 까닭
 -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의 인권 바로 알기
- '인권'의 의미를 살린 그림 글자 만들기
- 인권 교육 주제인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를 넣어 짧은 글 짓기
-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 적기
- '인권'을 주제로 마인드 맵 작성하기

□ '인권 바로 알기' 인권 안내 수업 자료



□ '인권'의 의미를 살린 그림 글자 만들기



□ 인권 교육 주제인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를 넣어 짧은 글 짓기

• 나란히

- 우리 모두 나란히 바른 인권의 길을 걸어갑니다.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길을 나란히 걸어야 하는 것이예요.

• 마땅히

-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 장애가 있는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땅히 우리와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 소중히

- 인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는 자신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성한 사람은 이런 자들을 소중히 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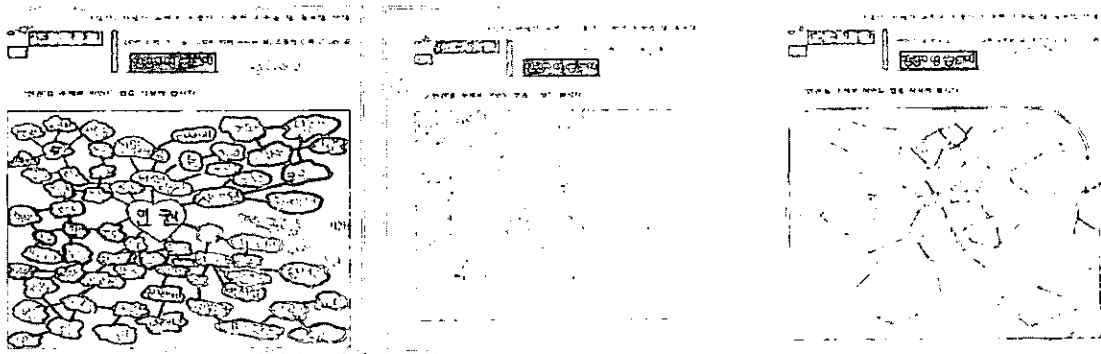
□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 적기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 봅시다.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 봅시다.

노인,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기병, 여성, 사랑, 인권 동화, 이웃, 희망, 병원, 의식, 난민, 평화, 존중, 특별함, 꿈, 인권위원회, 용기, 권리, 삶, 소중함, 의식, 자원 봉사자, 이웃, 웃음, 목발, 노숙자, 차별, 존중, 누구나, 모든 인간, 행복, 평등, 봉사, 여자, 도와주다, 함께, 평화, 힘, 소원, 해외 동포, 어깨동무 등

□ '인권'을 주제로 마인드 맵 작성하기



인권, 즐겨 찾기 ② 나는야, 인권탐험대장 척척이

가. 프로그램의 이해

이 프로그램은 인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의 인권의 실태와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조사하는 활동이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조사를 통해 인권을 좀더 알아가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좀더 느낄 수 있는 활동, 우리 주위의 인권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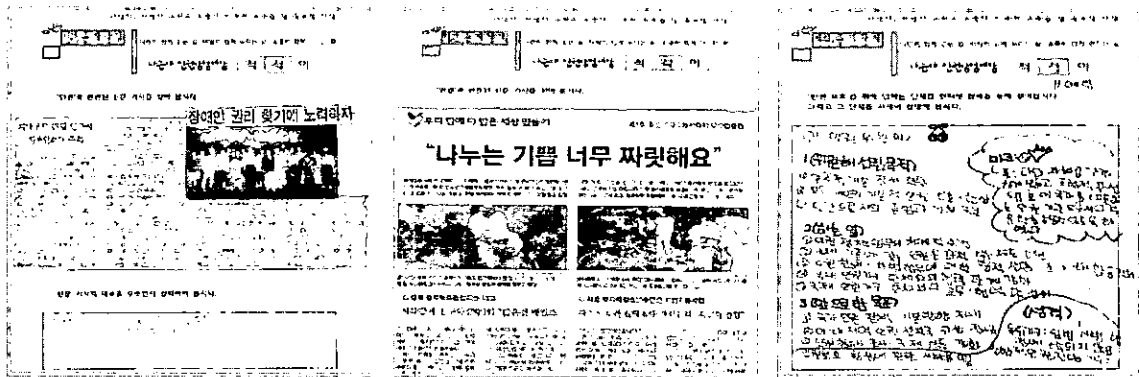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 1) '나는야, 인권탐험대장 척척이'는 인권과 관련하여 스스로 척척 알아보고 찾아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실에서 이동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탐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이트나 검색어를 제시해 주었으며 주어진 학습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또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과 인권 관련 TV 프로그램 및 신문 기사 등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였다.
- 4) 적극적인 인권에 대한 마인드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아이들의 조사물을 소중히 여기며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여 올바른 인권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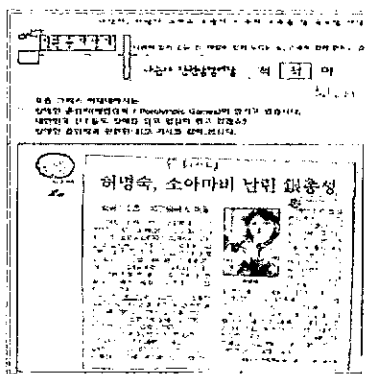
- 인권과 관련한 신문 기사 찾아보기
-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찾아보기
- 장애인 올림픽 관련 신문 기사 찾아보고 응원편지 쓰기
- 인권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 찾아보고 소개하기
-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 인권과 관련한 신문 기사 찾아보기



□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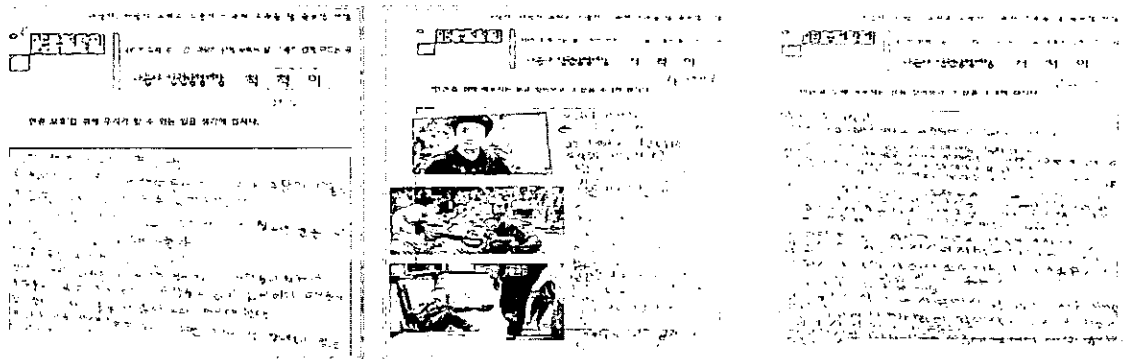
□ 장애인 올림픽 관련 신문 기사 찾아보고 응원편지 쓰기



김영건 선수에게
 김영건 선수 안녕하세요?
 장애인 올림픽 하시느라 힘드시죠?
 장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것을 이룰
 거예요.
 저는 일을 하다 힘들면 자꾸 그만두게 되요.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데도 대단하게 금메달을 따셨잖아요.
 저도 남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서 하고 싶은 것
 을 꼭 이룰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4년 9월 30일 조성득 드림

□ 인권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 찾아보고 소개하기



□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인권, 즐겨 찾기 ③ 노래의 힘은 기적을 만들고

가. 프로그램의 이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래이다.

아이들 또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며 가사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끈끈한 줄을 제공한다. 쉬운 리듬, 아름다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를 함께 불러 봄으로서 이제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노래는 인간의 권리를 사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정말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고쳐주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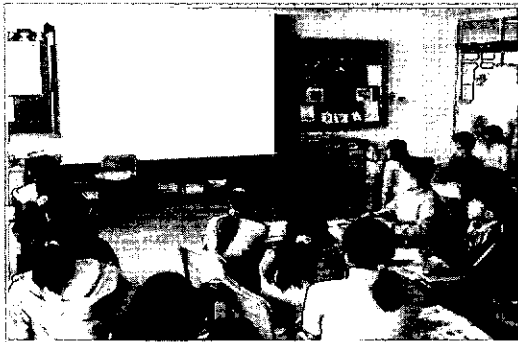
- 1) 인터넷이나 복사한 노래 악보를 이용하여 수업 시작할 때나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그리고 나쁜 오후에 함께 노래를 배우고 즐겁게 불렀다.
- 2) '사랑, 도움, 섬김, 나눔'을 주제로 하며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선정하였으며 노래를 배우기 전 가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 3) 이 노래가 생활 속에 가득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노래의 가사처럼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늘 지니며 노래를 불렀다.

■ 구체적 활동 내용

- ‘사랑, 도움, 섬김, 나눔’ 주제의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 우리가 간직해야 할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 내일이 찾아오면
 - 사랑을 할꺼야 등
- 창작 동요 및 교과서 동요에 ‘인권 보호’ 주제로 가사 바꾸어 쓴 후 노래 부르기

□ 아름다운 노래와 부르는 장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공간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 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있지요
아름다운 세상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즈막히 함께 불려요 사랑의 노래를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어깨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거둬서 나의 꿈을 담아 주고서 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사랑을 할꺼야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꺼야 사랑을 할꺼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 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 ‘인권 보호’를 주제로 가사 바꾸기

· 인권의 연인

넌 알고 있니? 우리 주위엔 말야 불쌍한 장애인들이 자꾸만 많아져 나는 너무 슬펐어
난 도와주고 싶었어 불쌍한 장애인들을 내가 도와줘 내 힘 다할 때까지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누구를 도와 준 적 없어서 자꾸 커져 가는 장애인의 아픔 싶었어
우리 모두들 장애인을 도와주면 안될까? 불쌍한 사랑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어
우리의 사랑으로

· 인권에서 부는 바람

인권에서 부는 바람 소중한 바람 우리 함께 길 갈 수 있는 소중한 바람
장애인 어린이 노인 노동자 우리 함께 길 갈 수 있는 소중한 바람

인권, 힘껏 배우기

나란히 함께 걷는 길,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가. 인권, 힘껏 배우기의 이해

인권, 즐겨 찾기를 통해 형성된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 더 넓히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인권 관련 내용을 분석, 선정하여 인권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권 동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와 인권 동화를 통해 인권을 좀 더 힘껏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는 활동이다.

2개월 간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내용을 선정, 재구성하여 고유의 학습목표도 달성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에 대한 자그마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은 더욱더 진지해 질 수 있다는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동화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동화책을 선정하여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활동을 실시하였다.

즉, 인권 힘껏 배우기 활동은 인권, 즐겨 찾기 활동에서 마련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로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며 배우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배우며 또한 그들의 인권 보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권, 즐겨 찾기 세부 프로그램의 활동 시기 및 지향점

세부 프로그램	활동 시기	프로그램의 지향점
교과서 속 인권 이야기	교육과정에 의거 10월 9일 2교시 9월 23일 1교시 9월 7일 2교시 10월 29일 1교시	장애우, 노인, 이주 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교육 과정 선정,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장애우, 노인, 이주 노동자 인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까닭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장애우, 노인,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함
인권 동화로 새 맘 갖기	9월 5주, 10월 1주 아침 활동 및 재량/특별활동	장애우, 노인, 이주 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인권 동화를 선정하여 읽은 후 다양한 방법의 표현 활동과 실천을 통해 장애우, 노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인권, 힘껏 배우기 ① 교과서 속 인권 이야기

가. 프로그램의 이해

- 인권 교육이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늘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구제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권 존중의 문화’, ‘인권 존중의 공동체’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와 활동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말과 행동, 규범 등이 좌우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마치 오랫동안 통일교육이 도덕·윤리과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것처럼 인권교육도 내용적인 면에서 주로 사회나 도덕 교과와 일부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교 인권교육의 목적은 단지 인권 관련 내용을 특정 교과목을 통해 숙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 있는 인권(혹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실제의 삶이 다양한 만큼 인권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범교과적,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中
(72쪽, 학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인식)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서 교과 속에서도 충분히 인권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운데 학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인식을 살펴보면 서 그 동안 가졌었던 인권교육에 대한 작은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 교육 요소를 선정·분석하여 아이들과 함께 인권 전반, 장애인·노인·이주 근로자 인권 보호에 관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인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 1) 인권 전반, 장애인·노인·이주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수업을 전개하였다.
- 2) 수업 과정 속에서 더욱더 아이들이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 전 계획을 세우고 수업 후 아이들의 변화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체적 활동 내용

-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 수업으로 인권에 대한 가치 느끼기
 - 국어 4학년 2학기 읽기 둘째 마당 2. 이야기 세계 (4/9) 40~41쪽
- 장애인 인권 관련 수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키우기
 - 국어 4학년 2학기 말듣쓰 둘째 마당 1. 우리들의 시 (1/9) 30~31쪽
- 노인 인권 관련 수업으로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키우기
 - 도덕 4학년 2학기 1. 가깝고 반가운 친척,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2/3) 14~15쪽
- 이주 근로자 인권 관련 수업으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키우기
 - 국어 4학년 2학기 말듣쓰 셋째 마당 더 나아가기 (8/9) 76~77쪽

□ 인권 전반 관련 수업

관련 분야	인권 전반
과목 및 단위	국어 4학년 2학기 읽기 둘째 마당 2. 이야기 세계 (4/9) 40~41쪽
학습 목표	· 차시목표 : 이야기를 읽고, 주제를 알 수 있다. · 인권목표 : 생명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수업 목적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글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생명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알아 갈 수 있도록 한다. 그 가운데 모든 인간은 존중 받아야 하며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수업 과정	·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글 읽기 · 인물이 한 말과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찾아보기 · 발표를 통해 글의 주제인 생명과 인간 존중의 가치 알아보기 · 생명과 인권 보호가 더욱 필요한 사람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고 나누기
수업 효과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임을,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많은 인권 보호 활동에 중요한 지침을 준 그러한 수업이 되었다.

□ 장애우 인권 보호 관련 수업

관련 분야	장애우 인권
과목 및 단위	국어 4학년 2학기 말들쓰 둘째 마당 1. 우리들의 시 (1/9) 30~31쪽
학습 목표	· 교과목표 : 시를 듣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쓸 수 있다. · 인권관련 : 친구의 발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목적	'발'이라는 시를 들으며, 시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의 발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발이 불편한 우리 반 친구 ○○의 발을 이해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며 뛰는 ○○이의 발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친구와 더욱 가까워지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과정	· '발'이라는 시 듣기 · 시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과 그 인물들의 발의 가치 생각해보기 · 발이 조금 불편하지만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이 격려하기 · ○○이의 발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 ○○이를 좀더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하며 발표하기 ·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려주기
수업 효과	친구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의식을 버리며 그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

□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수업

관련 분야	노인 인권
과목 및 단원	도덕 4학년 2학기 1. 가깝고 반가운 친척,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2/3) 14~15쪽
학습 목표	· 교과목표 : 친척끼리 화목하게 지내려는 마음을 가진다. · 인권목표 : 할머니의 사랑을 알고 노인 인권 보호의 의식을 가진다.
수업 목적	자기를 위해서 화상을 입으신 할머니의 이야기인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글 읽고 할머니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수업 과정	·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글 읽기 · 글을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 발표하기 · 글 속의 주인공이 되어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 표현하기 · 노인 인권의 중요성 알기 ·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수업 효과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노인 인권 보호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그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 이주 근로자 인권 보호 관련 수업

관련 분야	이주 근로자 인권
과목 및 단원	국어 4학년 2학기 말들쓰 셋째 마당 더 나아가기 (8/9) 76~77쪽
학습 목표	· 교과목표 :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쓸 수 있다. · 인권관련 : 세계 여러 인종을 이해하고 이주 근로자의 삶을 생각하고 이주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수업 목적	'세계 인종의 신체적 특징'이라는 글을 읽고 세계 인종을 이해하는 마음을 넓히고 특히 구미에서 많이 일하는 이주 근로자의 삶과 그들의 인권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한다.
수업 과정	· '세계 인종의 신체적 특징' 글 읽기 · 잘못된 부분 찾아 바로 고쳐 쓰기 · 세계 여러 인종의 신체적 특징과 모습, 생활 방식 이해하기 · 구미에서 일하는 이주 근로자에 대한 편견 버리기 · 이주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하는 방법 생각하고 발표하기
수업 효과	세계 인종의 신체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모두 같은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이주 근로자들을 한번 더 생각하고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를 찾는데 작은 도움을 주었다.

가. 프로그램의 이해

책 한 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삶의 알찬 지해도, 몰랐던 새로운 지식도, 나른함을 일깨워주는 즐거움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책 속의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개척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과 관련된 동화책을 읽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
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들의 따뜻해진 마음을 통해 사회의 사랑의 온도
는 점점 높아져 갈 것이다.

‘인권 동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권 교육의 바람직한 하나의 교육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참다운 사람의 권리와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책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일.

우리들의 마음이 책 한 권 한 권으로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멋진 일을 상상하니 기분
이 좋아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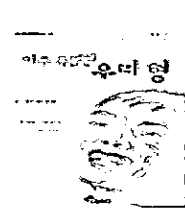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 1)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에 관한 인권 동화 및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발간한 다양한 인
권 동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도서관에서 대출·열람하거나, 구입하여 읽도록 하였다.
- 2) 다양한 방법으로 읽은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의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단순히 책읽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서 받은 감동과 교훈을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또한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난 후의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게시하였으며 한 권의 학습 문집 ‘시 꽃 피는 가을이 오면’
에 실었다.

■ 구체적 활동 내용

· 장애인 인권 관련 동화
‘가방 들어 주는 아이 / 장한 친구 희완이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동화 속 주인공에게 표창장 만들어 주기
-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 /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노인 인권 관련 동화
‘흰둥이네 할머니’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이주 근로자 관련 동화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 외로운 지미’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동화 속 주인공에 줄 선물 꾸미기
-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우리 반이 읽은 인권 동화 및 내용 소개

구 분	제 목	책 표지	책 내용
장애인 인권	가방 들어주는 아이		석우는 장애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 주는 일을 맡게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놀림과 주위 사람들이 시선으로 가방들어다 주는 일이 못내 싫었지만 차츰 석우는 친구를 도와주는 예쁜 마음을 키워나간다. 영택이를 도와주며 칭찬도 받고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을 받는 영택이와 친구가 되면서 석우는 점점 성숙해져간다.
	장한 친구 희완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희완이는 할머니께 쫓겨나고 고모부의 죽음과 새아버지의 만남 등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희완이의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와 사귀고 놀면서 점점 장애를 극복해 가는 희망의 이야기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형 종식이. 반갑다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일그러진 얼굴에 구부러진 팔, 정말 감추고 싶은 형이었다. 그런 형이 싫어 집까지 뛰쳐나가 보지만 마침내 종민이는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된다. 장애가 있기에 더욱 용기를 낼 수 밖에 없었던 형 종식이와 그의 동생 종민이가 찾아가는 행복과 사랑.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잖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노인 인권	흰둥이네 할머니		소외된 노인의 삶의 보고 보고, 그 삶을 동화게 담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리 밝지만은 않다. 어둡고 슬픈 이야기에 자연스레 눈물이 글썽거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여섯 편의 동화가 지닌 슬픔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둘러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제 목	책 표지	책 내용
이주 근로자 인권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동화집은 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쓰여졌다.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들의 모습에서 수십년 전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났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다.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펴낸 책
	외로운 지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그린 창작인권동화. 외국인으로 태어난 지미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 외국인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외로웠으나 희망을 가지며 살아간다. 어느날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도시로 찾아나가서 겨우 가족을 찾았으나 동생 수미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간 수미는 끝내 죽고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미의 희망 찾기.

□ 인권 동화를 읽는 아이들의 모습 및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하는 장면



□ 장애인 인권 관련 동화

‘가방 들어 주는 아이 / 장한 친구 희완이 /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을 읽은 후의 생각과 느낌의 다양한 표현

- 책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가방 들어주는 아이	석우에게 석우야, 안녕? 나는 승제라고 해. 니가 2학년애 올라가서 장애인 친구 영택이를 만나서 많은 고생 했지? 니가 교회 옆 옥탑방으로 이사 갔을 때 영택이라 제일 집이 가까워서 니가 가방을 들어주게 되었지.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봐!', '재 바보 아니야?'라는 식으로 놀려대서 싫었을거야.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너는 '이제 가방을 안 들어 주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3학년이 되고, '다시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고, 상장을 받을 때도 같은 생각 때문에 다시 가방을 들어 줬잖아. 내 생각에도 절 한 일인 것 같아. 네가 계속 영택이 가방을 들어주면 너도 보라울 느낄거야. 그리고 영택이의 다리가 낡을 때를 기다리며 가방을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 그럼 많이 도와줘. 안녕! 승제가
------------	--

장한 친구 회완이

회완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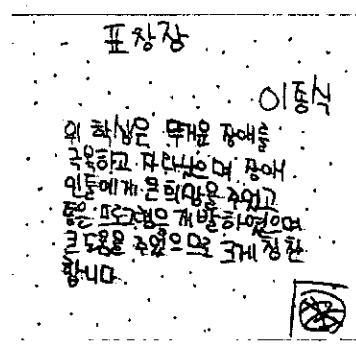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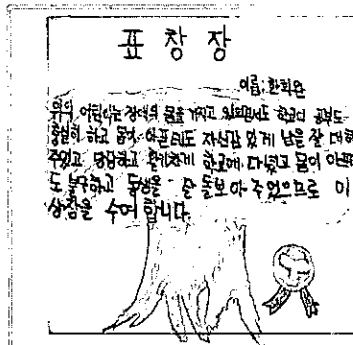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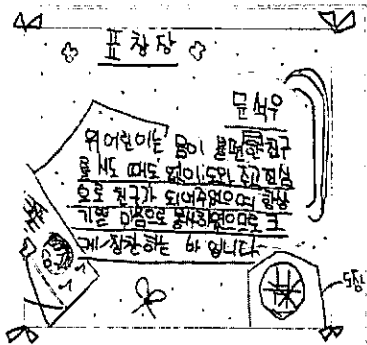
회완아 안녕? 나는 〇〇야. 넌 정말 대단해. 줄을 잡고 앉을 수 있잖아.
그리고 목발 없이도 조금은 걸을 수 있잖아. 나도 너처럼 빨리 나고 싶어.
회완아! 난 네가 정말 있으면 너하고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너하고 많은 이야기하고 싶어. 너하고 친구 되고 싶어. 네가 실제로 있었으면 너와 많이 친해지고 싶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종민이에게

네가 너의 형을 만났을 때 속상해하고 화가 났었잖아? 그 심정 나도 이해해. 하지만 네 형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니까 이해해줘. 나중에 네가 형이랑 친해지고 나서 사고를 당할 때에도 너를 생각하지 않고 형을 보살피고 생각한 네가 자랑스럽고 너의 그 우애를 본받고 싶어. 형에게 져가 부탁하고 데려오자고 하던 너의 모습에 나는 한번 더 감동을 받았어. 너는 진심으로 형을 위하는 착한 아이 같았어. 앞으로 더욱더 형제 우애가 깊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잘 있어.

- 동화 속 주인공에게 표창장 만들어 주기



-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

가방 들어주는 아이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
힘들면서 안 힘든 척
슬프면서 안 슬픈 척
장애인은 외로고 슬퍼요

영탁이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지요.
석우예요.

석우처럼
장애인을 아껴요.
장애인을 보살피요.
장애인을 도와요.

장애인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장애인
장애인을 싫어하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장애인

장한 친구 회완이

장한 친구 회완이

사람은 아무리
몸이 불편하여도
노력과 끈기가
있으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어요/
영탁이는 힘들어요.
회완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
힘과 용기가
있으면 강한 일을
해 낼 수 있어요.
회완이처럼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나는 우리 형을
사랑한다.

매일마다
해맑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형

나는
우리 형이
한 번 되어보고 싶다.

나쁜 일도 겪어보고
좋은 일도 겪어
형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나는 앞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어야겠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을 피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겠다.
- 자신이 장애인인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는 종식이에게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 이 책을 읽고 장애인 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나는 이제부터 장애인들을 보면 도와주고 장애인 친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나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읽고 이제부터 ○○이를 도와주고 ○○이 다리가 낫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나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다.
-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장애인은 좀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내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노인 인권 관련 동화

‘횡동이네 할머니’를 읽은 후의 생각과 느낌의 다양한 표현

-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횡동이네 할머니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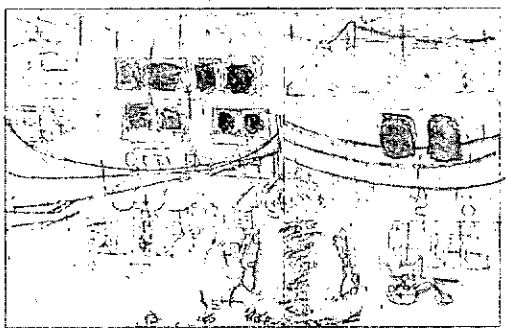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할머니. 저는 ‘횡동이네 할머니’를 읽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도 어머니를 위해서 잘 대해주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머느리는 할머니를 저녁 7시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아 줘요.

저는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늘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세요.

하지만 횡동이네 안돼보였어요. 할머니 횡동이네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 나라에서 내려와 많이 돌봐 주세요. 아셨죠?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다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만나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면 꼭 도와 드리겠다.
- 흰둥이네 할머니를 읽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더욱더 잘하고 집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 드리겠다.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우리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노인들께 더 잘 하겠다고 다짐한다.
- 나는 이제부터 우리 할머니께 많이 효도도 하고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할머니를 꼭 안아 드릴 것이다.

□ 이주 근로자 인권 관련 동화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 외로운 지미'를 읽은 후의 생각과 느낌의 다양한 표현

- 책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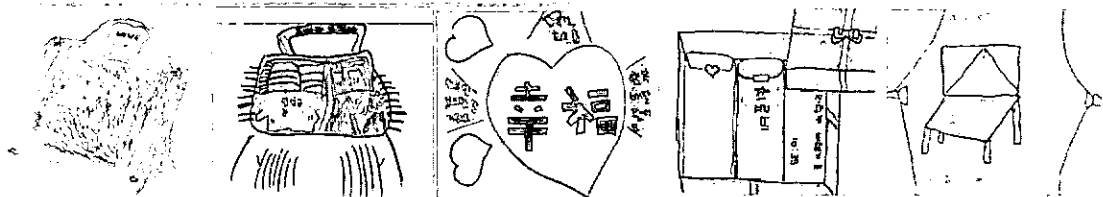
꾸마라 아저씨께
우리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으시죠? 모두 아저씨를 검둥이라고 차별을 받으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이 제가 바라는 중요한 소원이예요.
바로 꾸마라 아저씨 당신은 진정하고 흠 없고 밝은 인생으로 살다 하늘 나라로 가신거 예요.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평등한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외로운 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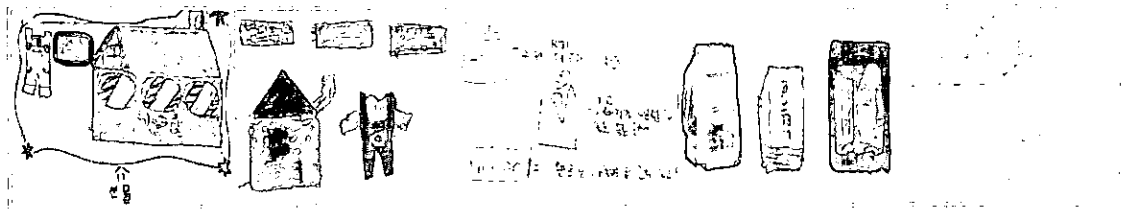
지미에게
지미야 안녕? 난 천진이라고 해.
엄마와 아빠랑 떨어져 살아서 친구들에게 놀림 많이 받았겠다. 그래도 엄마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죽어서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았겠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희망을 잃지 말고 살렴. 화이팅!

- 동화 속 주인공에 줄 선물 꾸미기

꾸마라 아저씨에게 줄 선물



자미에게 줄 선물



- 책을 읽은 후 소감 및 다짐의 글 쓰기

- 외국인도 같이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 나는 그 회사 사람들처럼 이주 근로자라고 차별하지 않을 꺼다. 다음에는 지금까지처럼 이주 근로자를 모른척하지 않을 꺼고 기운이 나는 말 몇 마디를 해 줄 것이다.
- 이주 근로자들이 더럽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진다.

인권, 맘껏 펼치기

나란히 함께 걷는 길.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가. 인권, 맘껏 펼치기의 이해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을 때 몸으로 행동했을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배웠고 교과 시간과 인권 동화로 변화된 마음을 다시 이제는 실천으로 맘껏 펼치면 비록 아이들의 작은 힘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우, 노인, 이주 근로자들에게 지금껏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계획하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행복이 장애우와 노인, 이주 근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임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을 배우는 이 시간.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희망찬 내일과 아름다운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듯하다.

즉, 인권 맘껏 펼치기 활동은 지금까지의 인권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과 감동의 편지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우리 주위의 모습을 살펴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활짝 웃는 세상을 위해 작은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나. 인권, 맘껏 펼치기 세부 프로그램의 활동 시기 및 지향점

세부 프로그램	활동 시기	프로그램의 지향점
작은 사랑의 표현 -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	10월 2주 재량/특별활동	미처 나누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작은 사랑을 편지와 선물의 형식을 빌어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들에게 표현함으로써 인간 존중과 사랑의 위대함을 배우도록 함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작전	10월 3주 재량활동 국어/미술시간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꾸며보는 활동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찾아봄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좋은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함
내일은 활짝 웃어요	10월 4주 재량/특별활동	인권 보호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작은 메시지를 띄우며 알리도록 함

인권, 맘껏 펼치기 Ⅰ 작은 사랑의 표현 -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

가. 프로그램의 이해

이 활동은 우리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누지 못했던 작은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활동이다.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있어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편지 한 장, 작은 선물 하나 속에도 이 담아 보았다.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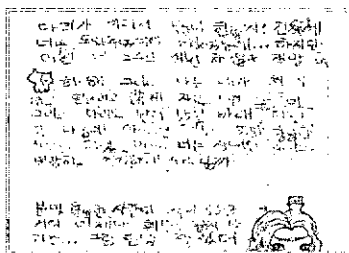
- 1)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발에 장애를 가진 우리 반 친구○○이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주 근로자에게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게 하였다.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더욱더 기억하며 가까이 지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 2) 또 우리 친구 ○○이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희망의 종이 비행기 날려 주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와 은혜의 꽃 만들기를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
- 3) 더욱더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기로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4) 작은 편지와 선물 속에서 아이들은 또 다른 인권에 대한 의식과 사랑의 나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 구체적 활동 내용

- 나란히 함께 걷는 길
 - 우리 반 친구 ○○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 우리 반 친구 ○○에게 희망의 종이 비행기 날려 보내기
-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
 -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은혜의 꽃 만들어 달아 드리기
-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 이주 근로자에게 희망의 편지 쓰기

□ 우리 반 친구 ○○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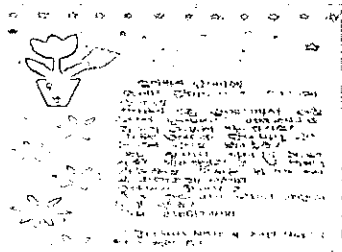
○○이에게
다리가 아파서 많이 힘들지? 전작에 너를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 스스로 생활하잖아. 정말 축하해. 그리고 나는 네가 씩씩하고 명랑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리도 빨리 낫길 바래.

□ 우리 반 친구 ○○에게 희망의 종이 비행기 날려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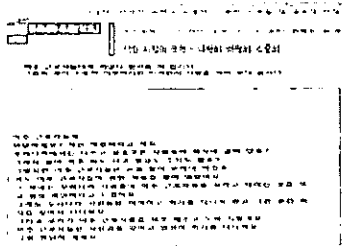
□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은혜의 꽃 만들어 달아 드리기

□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



할아버지, 할머니께
할아버지, 요즘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할아버지께서 돌보아주시고 또 회사에 다니셔서 피곤하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할아버지, 회사는 조금 쉬세요. 그리고 할머니 어제 몸 괜찮으시죠? 제가 저번 일요일날 못 보어서 죄송해요. 어제는 몸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것 아시죠?

□ 이주 근로자에게 희망의 편지 쓰기



이주 근로자에게
이주 근로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 근로자들을 옥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 정말 미안하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이주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와 드릴게요. 이주 근로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회사에 다니세요.

인권, 맘껏 펼치기 ②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작전

가. 프로그램의 이해

우리 주위에는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고쳐져야 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것이 바르게 고쳐질 때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그들은 더욱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장애우 친구들이 다니기에 힘든 거리와 건물이 많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쉴 곳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주 근로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나쁘게 변해가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작전은 이러한 사회의 환경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을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고쳐나가자는 활동이다.

우리의 힘은 아직 너무나 미약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아이들이 조금의 힘이 생기는 그날에 아름답게 생각을 맘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주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참

멋진 일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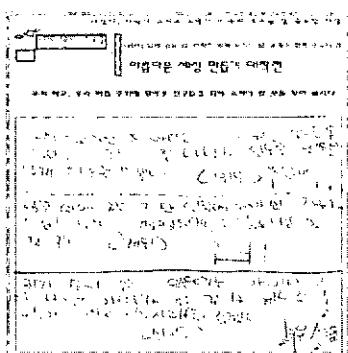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 1) 방과 후 과제로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주위를 살펴보고 장애우 친구들을 위해 고쳐야 할 곳을 찾아 보도록 하였다.
- 2) 미술 10. 놀이터와 공원 시간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쉬실수 있는 실버 타운을 도화지에 그려 보도록 하였다.
- 3) 국어 시간을 활용하여 이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좋은 점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4)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작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였다.

■ 구체적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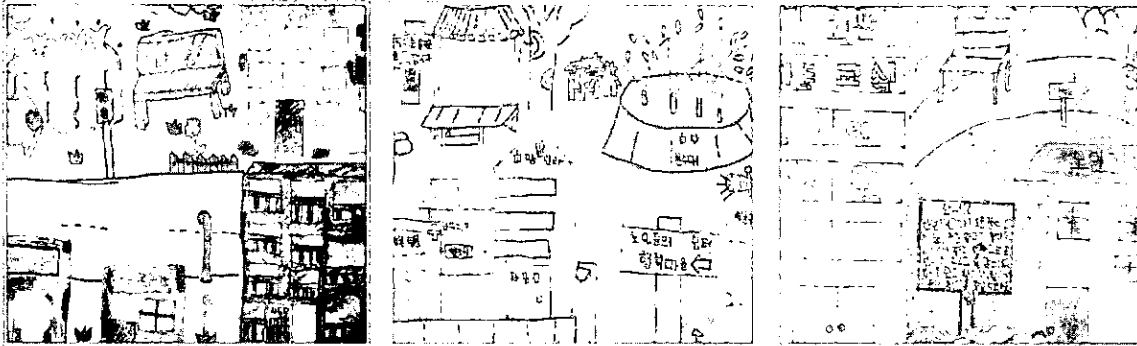
-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주위에 장애우 친구들을 위해 고쳐야 할 곳 찾아보기
-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실버타운 계획하기
- 이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좋은 점 소개하는 글 작성하기

□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주위에 장애우 친구들을 위해 고쳐야 할 곳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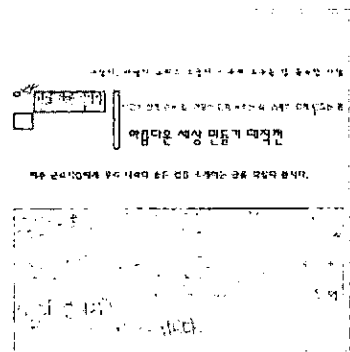


- 우리 학교에는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따로 올라가는 길이 없다.
- 우리 마을 인도가 턱을 되어 있어 장애우 친구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 우리 학교 화장실에는 장애인들이 일어 설 수 있게 접는 것이 없다.
- 우리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인도들을 장애인 친구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낮게 해 주면 좋겠다.
- 학교 안에 있는 계단 왼쪽에 장애인 친구가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
- 귀가 많이 잘 안 들리는 아이나 눈이 나쁜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신호등에 소리를 설치하면 좋겠다.
- 우리 마을 놀이터는 장애우 친구들이 이용할 수 없게만 되어 있다. 키 높이도 맞지 않고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걸기도 힘들다.

□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실버타운 계획하기



□ 이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좋은 점 소개하는 글 작성하기



우리 나라에는 이주 근로자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쯤은 친절하고 이주 근로자를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친절한 사람을 한번쯤은 봤을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오래 살다보면 우리 나라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주 근로자를 위한 시설도 몇 군데 있어서 더 편해지겠죠.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인권, 맘껏 펼치기 ③ 내일은 활짝 웃어요

가. 프로그램의 이해

이 활동은 이제 나만의 인권 보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를 미처 예전의 우리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며 인권 보호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약속의 시간도 가졌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

나. 활동 방법 및 내용

- 1)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모두가 인권 보호에 동참할 것을 알리는 포스터와 주장

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 2)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인권 보호 서약서를 쓰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며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들을 생활 속에서 도우며 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나란히 함께 걷는 길,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을 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구체적 활동 내용

- 인권 보호 포스터 그리기
- 인권 보호 주장하는 글 쓰기
- 인권 보호 아름다운 동시 쓰기
- 인권 보호 서약서 쓰기

□ 인권 보호 포스터



□ 인권 보호 주장하는 글 쓰기

인권을 보호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여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혜택 받는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인권 보호이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인권보호에서 찾아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되는 것도 인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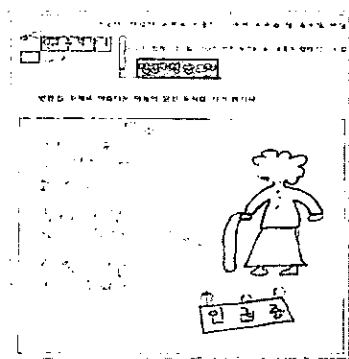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서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여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혜택 받는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인권 보호이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인권보호에서 찾아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되는 것도 인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서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야 한다.

□ 인권 보호 아름다운 동시 쓰기



인 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있는
소중한 인권

약한 사람들의
강한 무기인 인권을

존중해주고
지켜줍니다.

우리의 권리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평등히 살아갈 거예요.

언제나 사랑을 주어요.
행복히 사랑을 받아요.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이
모두 가지는
소중한
우리의 권리가니까요?

□ 인권 보호 서약서 쓰기

나의 인권 보호 서약서

인간 권은 신성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는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한다.

2.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3. 인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받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5.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나의 인권 보호 서약서

인간 권은 신성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는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한다.

2.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3. 인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받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5.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나의 인권 보호 서약서

인간 권은 신성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는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한다.

2.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3. 인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받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5.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4.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 하나 조금씩 달라져 가는 아이들의 말과 모습 속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2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있어 인권을 바로 알아 가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인권, 즐겨 찾기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인권, 즐겨 찾기 프로그램 속에서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인권이라는 말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인권은 바로

우리의 것,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직접 생활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올바른 인권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늘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씩 생각해 봄으로써 그 노래 가사를 답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인권, 힘껏 배우기

인권을 ‘위한(for)’ 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인권, 힘껏 배우기 프로그램은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 세 분야의 세분화된 인권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교육 과정 속에서 작은 관심과 변화로 재구성하여 아이들에게 장애인, 노인, 이주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의식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으며 아이들 또한 세분화된 인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업 가운데 다짐의 시간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인권 동화를 모두 함께 읽어보고 책을 읽은 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동화가 줄 수 있는 큰 힘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동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이들을 충분히 인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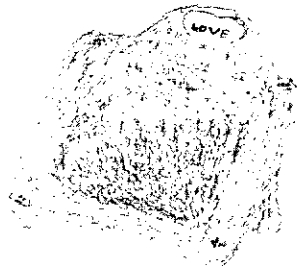
서로 돌려 가며 인권 동화를 읽은 모습에서 함께 움직이는 아이들만의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의 표현 속에서 나 자신도 인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

인권, 맘껏 펼치기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을 통해 실시하였던 인권, 맘껏 펼치기 프로그램.

맘껏 펼쳐보는 인권 교육 속에서 인권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은 알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의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여러 활동 속에서 의미 부여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었다.

5. 나란히 함께 걷는 길,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우리 반 아이가 생각한 꾸마라 아저씨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 이유는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보고 싶을 때마다 액자를 보면서 기운을 얻으라고 액자를 꼭 선물해 주고 싶단다.

이 작은 그림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 모습을 이 액자 속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이들이 작은 힘을 낼 수 있는 그 때에는 아마 이 액자 속에 풍경은 아름다울 것이라
확신한다. 모두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인권 이야기를 처음 풀던 날.

나 자신도 인권이 뭔지 몰라,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인터넷 검색 창에 '인권'이
라는 말을 쳤을 때가 기억난다.

무엇보다도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한 짧은 인권 교육의 시간.

이 시간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있어 의미 있는 인권 교육의 첫 시작으로 남았으면 한다.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나란히..

마땅히..

소중히..

우리 모두는 참 특★한 사람들이다.

나란히 함께 걷는 길, 마땅히 함께 누리는 삶, 소중히 함께 만드는 꿈

얼마 후 이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액자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들 세상(학교교육)과 함께 가는 인권교육

전라북도 남원 아영초등학교 교사 강지숙

1. 힘찬 발걸음으로.... 〈학급 운영 프로그램〉

3월 ⇒ 미술 작품을 통한 “나는 ○○○ 입니다.”

새로운 학년과 교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날. 선생님도 떨리고 초롱초롱한 아이들 가슴도 설레입니다. 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그 날. 자그마한 준비물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 이 긴장감을 줄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시> ‘나를 표현하기’ (잡지 풀라주)

◎ 준 비 물 : 잡지, 가위, 풀, 색연필, 사절지

◎ 활동내용 : “나”와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잡지 속의 광고문, 글, 문구, 사진, 그림 등을 찾아 붙여 표현해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주 의 점 : 선생님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발표해 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3월 ⇒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정한다.”

3월은 어느 학교나 어느 학급이나 새로운 출발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 학급 경영 방침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발령을 받아 교사의 길에 첫발을 디딘 신규 교사로 혼자 일방적으로 학급을 이끌고 나가고 싶지 않았다. 같이 나아가야 할 길 이기에 교사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했으면 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홀씨반 약속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하고, 그 학급 약속을 한 학기 동안 아니 일 년의 시간 동안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예시> 민들레 홀씨반 약속 정하기

⇒ 학급 약속, 학급 노래, 학급 이름, 짝 정하기, 학급 반장 정하기, 1인 1역할 정하기, 청소 구역 정하기, 숙제 내주기, 일기 쓰기, 독후감에 관한 약속 정하기, 시간표 다시 생각하기, 체육 시간에 관한 이야기 생각하기,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기, 선생님께 바라는 점 적어보기, 선생님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기...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 혹은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함께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행해 왔다.

4월 ⇒ “선생님 마음” 속 살펴보기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4월이 되고 보니, 자꾸만 우리 민들레 홀씨들의 불만이 일기장에 토로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만 이뻐하고, ○○만 관심주고, ○○만 매일 국어 시간에 읽게 하고, 발표는 ○○만 시켜요.” 등의 불만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홀씨반 아이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선생님 마음 속 살펴보기’라는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책상을 뒤로 모두 밀치고, 빙 둘러 앉았다. 그리고 시작했다.

예시> 토의주제 ⇒ ‘선생님 마음 속 살펴보기’

교사 : “선생님이 우리 민들레 홀씨반에서 누구를 제일 예뻐 할까?”

홀씨 : “민영이요”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하지?”

홀씨 : “민영이는 공부도 잘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우리 반에서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교사 : “그렇구나. 그럼 우리 민영이한테 물어볼까? 넌 선생님이 널 제일 예뻐하고 특혜를 주는 거 같니?”

홀씨 : “아니요. 그럼 일기장에 왜 차별한다고 했겠어요.”

교사 : “그럼, 아닌가 보네. 너희들은 또 누구라고 생각하니?”

홀씨 : “성은이요. 재영이요. 은비요.”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하지?”

홀씨 : “국어 시간마다 책을 읽게 하는 건 재영이고, 항상 발표시킬 때마다 은비를 부르잖아요.”

교사 : “그런가? 그럼 우리 민들레 홀씨반에서 우리 모두가 보살펴 주어야 하는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하지?”

홀씨 : “성은이요.”

교사 : “왜지?”

홀씨 : “제일 약하잖아요.”

교사 : “그렇지! 그럼 우리 반에서 수업 시간에 가장 힘들어 하는 친구는 누구지?”

홀씨 : “성은이요.”

교사 : “그렇지, 그럼 선생님마저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성은이를 수업 시간 동안에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

홀씨 : “그럼, 성은이는 더 슬프고 성적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교사 : “그럼 선생님이 성은이에게 관심을 주는 건 차별인가? 특혜인가? 아님 당연한 건가? 생각해 볼래?”

홀씨 : “그건, 당연한 거 같아요.”

교사 : “그치! 이젠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민들레 홀씨반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하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와 한 덩어리가 되던 3월 2일부터 너희 모두들 사랑한단다. 한길이는 똥똥하지만 그 만큼 넉넉한 배려로 선생님과 우리반을 감싸주니 너무도 사랑스럽고, 상현이는 작지만 맘씨가 고운지. 항상 모두가 싫어하는 것도 술선 수범하는 자세. 정말 이쁘지.....마지막으로 지은이는 얼마나 밝은 성격으로 선생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희 모두들 하늘만큼 땅 만큼 사랑한단다. 마그마만큼 뜨거운 정열로....”

이 날 우리 아이들이 '배려'라는 미덕을 가슴 한켠에 채웠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무시해야 하는지, 감싸 안아야 하는지도 구분 지을 줄 아는 우리 민들레 홀씨반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단 이 이야기 시간을 가지려거든 모두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어 주면서 모두의 장점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중⇒'서로의 마음 이해하기' - 오늘 기분은 어때?

자신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모두다 표출 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악이 없어진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악은 인간 내면의 분노 욕구, 미움, 사랑과 애정 요구에서 나오는 심리적 불안감 등에서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민들레 홀씨들이 좀 더 웃고 좀 더 종알대도록 몇 번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시> 오늘 기분은 어때?

다양한 얼굴 표정이 나타난 한 장의 종이에 오늘 너의 기분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해당되는 얼굴 표정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연중 ⇒ '몸으로 표현하기' - "나는 지금 ○○해."

일년 365일을 매일 매주 매달 항상 같은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하다보면 지루하고 짜증나기 마련... 아이들의 눈빛 이 흐려지는 그 순간, 온 몸을 이용해 휴식도 취하고 기분도 업 시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것도 좋은 듯 싶습니다.

예시> '몸으로 표현하기' - "나는 지금 ○○해."

교사 : 지금 기분 어때요?

홀씨 : ○○해요.....

교사 : 그럼 너희들의 기분을 온 몸을 사용해 표현해보자. 그리고 똑같이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릴레이야. 한길이부터 지은이까지... 모두가 다 민들레반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생각은 다 다르잖아. 그치! 선생님부터 시작한다.

(두 팔을 올려 기지개를 펴며) 아 - 지루해. 쉬고 싶다.

⇒ 우리 반 모두가 커다란 목소리와 행동으로 (두 팔을 올려 기지개를 펴며) 아 - 지루해. 쉬고 싶다.

이 활동을 통해 선생님은 학생들의 사고를 학생들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교육이 되었다고 하겠다.

연중 ⇒ 서로서로 챙기기 - '수호천사' 되어주기

인권교육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한 마니또... 우리 민들레 홀씨들은 수호천사라고 지칭하면서 2주에 한 번 마니또를 정해 그 친구를 위해서 천사가 되고 있다. 물질 만능 시대에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요즘 생각하는 것 등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배려라는 미덕을 터득하고 있는 듯 하다.

2. 우리는 하나! 함께 걸어가자!

〈학교 행사와 함께 가는 프로그램〉

5월 ⇒ '홍부골 가족 한마당'에서 배운 미덕

홍부의 발복지인 남원 아영에서 색다르고 특별한 잔치가 벌어졌다.

홍부골에 자리한 아영초등학교에서 「홍부골 가족 한마당」이 2004년 5월 28일(금) 열렸다. 이 특별한 잔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가정의 사랑과 우애 교육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 내용도 가족 사진 액자 만들기, 지점토로 가족 얼굴 모양 만들기, 가족 요리 경연 대회 등의 가족 단위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졌다. 학교 차원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팀을 가족단위로 구성하되, 학부모의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참작하도록 운영하라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가족 단위의 행사였기에 조부모, 편모, 편부와 같은 결손 가족이 많은 우리 민들레 홀씨반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들레 홀씨반에서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이루어졌다.

교사 : “우리 학교에서 28일 가족 한마당 행사가 있지? 그 행사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사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리 경연대회랑 여러 가지 행사를 부모님과 함께해야 하거든. 그런데 부모님께서 오시지 못 할 수도 있잖아? 혹시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 손을 들어보자.”

5세대수가 손을 들었다.

교사 : “어떻게 할까?”

홀씨 : (너무도 쉽게) “선생님,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성은이는 우리 가족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두 누구누구.....”

해결되지 않을 어려운 문제가 너무도 쉽게 끝나버렸다.

물론 흥부골 가족 한마당 행사 때 자신의 가족과 함께 4세대를 책임져야 할 소영이 엄마는
일손이 딸리고 많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앓된 아이들의 해맑고 환한 웃
음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가족의 의미가 날로 퇴색되어 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날, 착하디 착한 흥부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인
지 우리 민들레반 홀씨들이 보여준 그리고 힘이 되어주신 학부모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 후론 현장학습, 테마학습이 있을 때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홀씨 들이 먼저 챙기는
모습. 배려의 마음은 전염성이 있나보다.

10月 ⇒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북한과 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 탈북자 초청 강연회 (2004.10.01)

지금까지 해오던 교과 위주의 마구 자비의 북한 체제와 안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막연히 북한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 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벗어
나 실제적이고 직접적 인 체험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널
리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본교에서도 통일교육 연구학교인 이웃 아영 중학교와 연계하
여 직접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북한을 알고 그 속에
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해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아영 중학교와 연계해서 고학년(3~6학년)을 대상으로 탈북 주민(북한
에서 10년간 교사를 하다 중국 두만강을 통해 탈북하여 우리나라로 귀순)을 아영중학교 강당에
초빙하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실생활과 북한의 학제, 북한 주민의 생활 등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이야
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이해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항상 무서운 적군이고 빨간 빨이 달린 도깨비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의
환상이 깨지고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동포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듯 하다.

요즘 세계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안보에 의한 북한교육에서 벗어나 북한 이해교육이나 평화 교육, 동포 교육 등 실제적인 북한에 관한 교육이 확대, 실시함으로써 실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정 및 실질적인 북한 체제를 이해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후의 통일국가를 이끌어 갈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3. 모양은 달라도 똑같은 우리.. 함께 달리자! 〈교수 학습 프로그램〉

4月 ⇒ 읽고, 쓰고, 말해서 머리로 느껴보는 장애인 이해 교육

- 도덕 교과서를 활용한 장애인 이해 교육

- 도덕 교과서와 관련 참고 도서를 활용한 장애교육

⇒ 도덕 교과서를 활용한 장애교육

아영초등학교 민들레 홀씨반(4-1) 2004년 4월 19일 3교시

단원 2. 내 힘으로

차시 2차시 꿈을 이룬 순이(교과서 p28, 생활의 길잡이 p30)

본시 학습 목표 : 자주적인 생활의 모범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 보자

동기유발 :

내일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화요일요, 몰라요,

그럼 달력을 한번 볼래요? 제일 먼저 달력을 찾아본 친구가 내일 날짜에 적혀있는 단어를 읽어보세요.

곡우, 장애인의 날

곡우는 어떤 날인가요?

곡우는 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여름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절기라 할 수 있지요.

이 때는 황사가 많은 계절로, 일년중 날씨가 가장 변덕스러운 때로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시기를 말해요. 그럼 장애인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몰라요.../ 장애인들이 잔치하는 날... 깔깔깔

공부할 문제 제시 :

그래요, 그럼 오늘은 꿈을 이룬 순이를 읽어 보면서 자주적인 생활의 모범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 봅시다. 또 장애인의 날이 어떤 날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활동 1

- ‘꿈을 이룬 순이’를 읽고 자주 정신 알기
 - 순이처럼 두 팔이 없는 친구를 무엇이라 하지요?
 - 장애인/애자/장애인요...
 - 장애인이라고 하지요. 애자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요.
 - 그럼 꿈을 이룬 순이에서 자주 정신이 잘 나타난 곳을 찾아보면?
 - 장애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점.
- ‘오토다케’를 읽고 자주 정신 알기
 - 생활의 길잡이 ‘잊을 수 없는 주먹밥’을 읽고 그 예화에서 오토다케의 자주 정신이 잘 나타난 곳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 발표해 볼 친구?
 - 오토다케는 소풍의 목적지가 오토다케가 오르기에 힘든 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끈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다.
- 오토다케처럼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알기
 - 헬렌켈러, 베토벤,
- 장애인의 날 의미 알기
 - 우리가 오늘 자주 정신을 배우면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겠지. 장애인의 날이 무슨 날이겠니?
 - 장애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날인 것 같아요.
 - 맞아,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란단. 그저 잔치나 파티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지...

과제 제시

- 오토다케 도서 돌려읽기
 - 오토다케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도서를 읽고 독후감에 써보기

4월 ⇒ 읽고, 쓰고, 말해서 머리로 느껴보는 장애교육

- 참고 도서를 활용한 장애인 이해 교육

⇒ 독서 릴레이..... 교과와 관련된 참고 도서 <오체 불만족>을 이어 읽기 함으로써 그 느낌을 독후감으로 써 보도록 하여 한번쯤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내 마음의 선물 <오체 불만족을 읽고>

오토다케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장애인이다. 불편할 것이 많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혼자서 다 해내려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웠다. 팔 하나 아니 다리 하나가 없어도 불편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책으로도 읽었지만 도덕 시간에도 배웠다. 그래서 자세히 본 것 같다. 오토다케는 다리와 팔이 모두 없다. 방금도 말했듯이 말이다. 이것을 아마 사지라고 하나? 하여간 그 두개가 있어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오토다케는 그 두 개가 모두 없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다.

이 책을 읽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알게 되었다. 어느 곳이 불편한지... 나에겐 팔과 다리가 있어도 이처럼 부족한 사람인데 오토다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일이라도 해결하려는 그 모습...

난 이 책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해보려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이 꼭 부족하고 꿈을 이루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토다케처럼 노력만 한다면 손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발이 없는 사람은 손이나 입을 사용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라서 그런지 장애인들의 아픔과 그 정열이 느껴지는 하루이다.

- 2004년 4월 20일 화요일 민들레 홀씨(서민영) 독서록에서 발췌 -

10月 ⇒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가슴으로 느껴보는 장애체험

- 인권의 달, 장애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이해 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입문 -다르게 함께사는 세상- 중에서 적용

시각장애 모의체험	
활동	<필수 1> 두 눈을 안대로 가린 후에 학생 1명(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종이 위의 활동을 수행하고 온다. 예시) 두 눈을 안대로 가린 후에 5학년 교실에 가서 연필과 지우개를 빌려오세요. 예시) 강당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오세요. 예시) 선생님 관사에 가서 열쇠로 문을 열은 후 냉장고에서 사탕 하나를 빼 오세요. <필수 2> 두 눈을 뜨고 똑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온다.
질문	①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만일 당신이 도와주는 안내자였다면 어떤 어려움을 관찰하였나요? ② 볼 수 없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학교나 집에서 바꾸면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시각장애 모의체험	
응답	질문①의 응답 ⇒ 활동을 수행할 때 벽에 부딪쳐서 아팠고, 또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가진- ⇒ 현종이가 우회전 좌회전하고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수돗가에서 벽에 부딪쳤다. 5학년 교실에 가서 연필과 지우개를 빌려오는데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힘들었고 다행하게도 언니들이 연필을 줘서 고마웠다. 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빌려 주었지만 진짜 앞이 안보이는 아내는 안보인다고 놀리며 놀아주는 친구가 없어 진짜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민영- ⇒ 정말 답답하고 지루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눈이 안보이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지루할 것 같다. -재영- ⇒ 다칠까봐 걱정이 되면서 활동을 수행할 때 불안했다. 다행이도 옆에 재영이가 있어서 안정이 되었었다. -현지- 질문②의 응답 ⇒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낮은 곳으로 옮겨놓거나 생활에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앤다. -가진- ⇒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학교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있으면 좋겠다. -민영- ⇒ 길을 쉽고 넓게 만들고 복잡한 것들을 치우면 좋겠다. -한길-

지체장애 모의체험	
활동	<선택 1> 한 팔만을 사용하여 구슬을 실에 꿰어서 목걸이를 만든다. <선택 2> 두 팔을 등 뒤로 해서 묶은 후 도화지에 사인펜으로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
질문	① 당신은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나요? 활동을 할 때의 느낀 점은? ② 손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응답	질문①에 대한 응답 ⇒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했어요. 한 손으로만 사용하니까 팔이 너무 아팠어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한지(불편한지) 깨달았어요. -재영(현지)- ⇒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다. 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났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림- ⇒ 그리 성공적은 아니었다. 몸의 신체 부위중 하나의 부위와 섬세한 손가락 발가락 등은 그릴 수 없었다. 정말 힘들었다. -인자 - 질문②에 대한 응답 ⇒ 나의 한 손, 오른손을 사용했고, 가끔씩 입으로 두 다리를 활동 수행하는데 사용했다. 답답하면서도 재미있었지만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소영-

청각장애 모의체험	
활동	<필수 1> 볼륨을 0으로 한 후 개그콘서트를 시청한다. <필수 2>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절한 크기로 시청한다.
질문	①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재미는 있었나요? 내용을 알기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나요? ② <필수 1>과 <필수 2>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점이 다르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③ 만약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응답	질문①에 대한 응답 ⇒ <필수 1>은 너무 답답하고 소리가 안들리니까 그림만 보고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필수 2>는 소리가 나니까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웃기면 나도 웃기면서 재미있었다. -민영- ⇒ <필수 1>을 볼 때는 약간 답답하고 좀 지루했다. 이런 일을 항상 겪고 있는 친구들이 참 안되었다고 생각했다. -예림- ⇒ <필수 1>을 볼 때는 정말 답답해서 한숨까지 쉴 정도 였다. 그러나 <필수 2>를 볼 때는 소리가 들려 답답한 것도 확 풀리고 재미있었다. -가진- 질문②에 대한 응답 ⇒ 프로그램에 나오는 말이나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민영- ⇒ 프로그램에 나오는 글이나 분위기 -예림- 질문③에 대한 응답 ⇒ 항상 붙어 다니면서 도울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도 노트에 써서 읽게 해 줄거고, 만약 시장에 가서 뒤에서 비키라고 하면 옆으로 끌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치기 때문이다. -민영- ⇒ 그 친구가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글로 쓰거나 몸짓으로 재미있었던 것을 이야기 해 줄 것이다. -가진-

학습장애 모의체험	
활동	책상에 놓인 종이를 정면에 있는 거울에 비춰 보세요. <필수 1> 거울에 비친 글을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예시> '장애인 올림픽' 동시 -이호진- 예시> 수학문제 6×8= <필수 2> 거울에 비추지 않고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질문	① 거울을 보며 읽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였나요? ②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보여진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울까요? 그 느낌이 어떤지 써 보세요.

학습장애 모의체험	
응답	질문①에 대한 응답 ⇒ 발음하기 힘들고 불편했다. -주현- ⇒ 복잡해서 잘 못 읽었다. -한길- ⇒ 거꾸로 읽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예림- 질문②에 대한 응답 ⇒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힘들 것이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많이 불편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주현- ⇒ 과학 실험을 할 때 화학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상한 악품을 선택해서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길- ⇒ 국어 시간에 발표나 글을 읽을 때 기분이 이상할 것 같다. -예림-

언어장애 모의체험	
활동	<필수 1> 두명씩 짝을 짓는다. 한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몸짓만을 사용하거나 입술 모양으로 종이에 씌여진 문장을 맞추도록 한다. 예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직업은 김치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질문	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고 파트너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나요? ② 만일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니까?
응답	질문①에 대한 응답 ⇒ 입모양, 수화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들었다. 언어 장애가 얼마나 답답, 짜증나는 일인지 깨달았다. -재영- ⇒ 여진이와 문제를 해결할 때 여진이가 너무 답답했다. 그 이유는 같은 행동과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은비- 질문②에 대한 응답 ⇒ 손모양이나 글씨를 써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았다. -현지-

장애 체험을 마친 후.....

교사 : 우리가 장애 체험을 하고 교실에서 이야기 해 보았던 모습이 생각나니? 깔깔대며 장난 섞인 이야기를 주고 받던 너희 모습이 선하다. 시각 장애 체험이 너무 재미있다면 한번만 다시 해 보고 싶다면 너희들. 억지로 꾸중하지 않고, 애써 무거운 분위기를 잡지 않은 건 너희들에게 10번 아니 100번 설명하기 보다는 훨씬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길 바래서였어. 너희 몸을 통해 직접 장애인의 아픔을 느껴보라고 일부러 말을 아꼈 거란다.

홀씨 :

교사 : 그럼 장애 체험을 직접한 후 느낀 점을 한마디씩 써(말해)볼까?

홀씨 :

- ① 진경 : 답답은 했지만 재미있었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지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 ② 혜란 :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 커서 장애인을 고쳐주어야겠다.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벽에 많이 박기도 해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하루였다.
- ③ 현지 : 재미있었고, 장애인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커서 봉사 활동을 하는 되겠다고 결심했다.
- ④ 소영 : 시각 장애를 체험할 때 너무 불편했고, 어딘가 어딘지 알지 못했다. 지체 장애를 체험할 때는 한 손만 사용해서 불편했다. 장애 체험을 하고 나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았다.
- ⑤ 인자 :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힘이 들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체험을 하고 보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⑥ 가진 : 장애인이 되어보니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지 알 수 있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 ⑦ 민영 : 재미는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심했다. 앞을 안보고 가니까 넘어지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냄새나는 발이나 입을 사용해 작업을 수행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체험이지만 너무 힘들고 유익했던 것 같다. 유후~

⇒ 장애 체험을 한 그날 흠씨들의 일기中에서

<장애 체험>

난생 처음으로 장애 체험을 한 번 해 보았는데

그 느낌은? 바로 재미있었지만 힘들고 장애인들에 슬픈 마음들을 조금이나 알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오늘 나는 기분이 무지 좋지 않았다.

턱?부분을 다치고 그것도 2학년 애들한테 욕 먹히고, 발 밟히고, 부딪치고, 장애체험이라서 좋긴 했지만 이런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장애인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제 아파서 울 때 흘린 눈물 한방울 정도는 장애인을 생각하는 눈물이 포함된 것 같았다.

장애들을 다 짚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지체장애, 학습장애.... 장애인들의 슬픔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내 생각으로는 끝 없이 서려울 것 같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장애 체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다.

만약 할 수 있다면 5학년 때도 장애 체험을 또 해보고 싶다.

-2004년 10월 16일 토요일 류주현 일기장 일부-

<장애 체험>

오늘 학교에서 장애 체험을 했다.

처음에 난 지체 장애 체험을 했고, 두 번째는 시각 장애를 체험 했다.

시각 장애 체험을 할 때 눈이 안 보여서 답답했다. 눈이 안보여서 작업을 수행할 때 벽에 많이 부딪쳤다. 정말로 아팠다. 이 아픔을 느끼며 정말로 시각 장애인이 얼마나 답답해 할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시각 장애인을 도와주는 안내견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박은지 일기장-

<장애 체험>

학교에서 장애 체험을 실시했다. 나는 학습 장애와 시각장애, 지체 장애를 체험했다. 3가지 장애를 겪었는데 정말 힘이 들었지만 재미도 있었다.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두 팔을 걷어서 힘닿는데 까지 도와주어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번 장애 체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다. 시각 장애인처럼 눈이 안 보인다면 자신이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 할 것이고, 지체 장애인처럼 사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주 열심히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예림 일기장-

탈북자 초청 강연회를 통한 북한 이해(인권)교육

□ 일 시 : 2004년 10월 1일

□ 장 소 : 아영중학교 다목적실



장 애 모 의 체 험

□ 일 시 : 2004년 10월 16일 토요일

□ 장 소 : 아영초등학교 민들레 홀씨반(4-1)



시각장애 모의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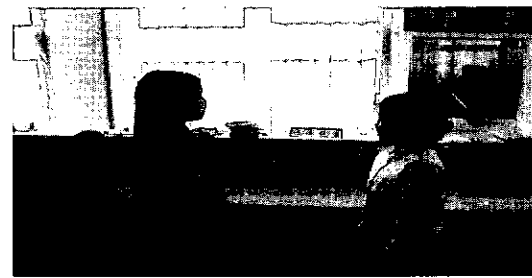
학습장애 모의체험



지체장애 모의체험



지체장애 모의체험



언어장애 모의체험



장애체험을 하고.....민들레 홀씨반

인권 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상인천초등학교 교사 박정숙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일상생활과 정치의 관계, 입법, 사법, 행정부의 기본 개념, 국민의 기본권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 가운데 민주 정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발견 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과거의 정치 참여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여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또,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기능을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도록 하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녀야 할 의무를 알도록 한다.

첫째 주제인 ‘(1) 우리 생활과 정치’에서는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을 조사하도록 한다.

둘째 주제인 ‘(2) 나랏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에서는 국회에서 하는 일, 행정부가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 등을 알고, 이들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셋째 주제인 ‘(3)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왜 있는지 알아보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까닭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이해>

- 민주 정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말 할 수 있다.
- 행정부의 구성과 하는 일을 말 할 수 있다.
- 법원의 필요성과 조직 및 하는 일을 말 할 수 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사례를 들어 제시 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지어 이해 할 수 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사례를 들어 제시 할 수 있다.
-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을 설명 할 수 있다.

<기 능>

- 생활 속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오늘날의 정치 참여 방법을 과거와 비교하여 설명 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선출 과정과 의원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이 하는 일을 조사하여 발표 할 수 있다.
- 사건의 성격에 맞게 재판을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 신문 등의 자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가치태도>

-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대표 선출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기준에 의해 대표를 뽑으려는 자세를 가진다.
-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3. 단원의 지도 계획

2.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필요성 • 국민의 의무의 종류와 필요성	사)46~53 탐)49~59	2차시 (14~15/19)
		② 보호해야 할 인권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사)54~61 탐)60~67	2차시 (16~17/19)
		*선택 학습	• 의무를 잘 지켜야 하는 까닭 • 인권을 보호되어야 하는 사례 • 기본권 간의 갈등 문제 해결하기	사)62	1차시 (18/19)

4. 지도 계획

(1) 평가의 방향

민주 정치의 기본원리를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파악하도록 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찾도록 한다.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의 국무회의, 모의재판 활동에서 주어진 역할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2) 평가 방법

-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나타낼 수 있다.	- 설문지 사전 조사 - 문답 평가 - 역할극 관찰, 관찰 기록법 - 지필 평가
--	--

5. 지도상의 유의점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인 인권을 말한다.

인권의 내용은 앞 제재에서 다룬 국민의 기본권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이 제재에서는 인권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인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조사해보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이 제재의 평가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는가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6. 적용한 이론의 요약 (자신의 수업에 맞게 적용함)

* STAD(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

STAD는 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정문성, 1996; Priest, 1994; Slavin, 1990).

(1) 교사의 수업 안내(class presentation of the lesson)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는 우선 단원의 전체 개요를 직접 교수한다. 이는 구체적 학습을 하기 이전에 전체 학습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학습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려는 것이다. 교사가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비디오나 OHP 등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초청강사나 자원봉사 학부모를 동원할 수도 있다. 협동학습의 기본 정신 중의 하나는 과거에 교사라는 유일한 학습 자료원에서 여타의 다양한 학습 자료원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용 자원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도입(opening), 전개(development), 연습(guided-practice)의 순으로 이번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이는 교사에 의한 직접 교수(direct instruction)나 강의 및 토의(lecture-discussion by teacher)식으로 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기존의 전통적 수업과 다른 점은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해야 할 소집단활동의 방향과 소집단 활동이 끝난 뒤 치를 퀴즈 시험의 중요한 힌트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설명보다는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요령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도입

- ▷ 이번 수업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 한다.
- ▷ 이번 수업에 필요한 사전 정보와 기능을 설명 한다.

■ 전개

- ▷ 평가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 한다.
- ▷ 단순한 파지능력보다 의미의 이해를 강조 한다.
- ▷ 다양한 시청각기재를 동원 한다.
- ▷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는지 확인 한다.
- ▷ 학생의 대답이 맞고 틀렸을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 한다.

- ▷ 학생의 이해가 확인되면 빨리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 ▷ 빠르고 정확하며 방해물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수업의 추진력을 확보 한다.

■ 연습

- ▷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과제 수행 연습을 체험 하게 한다.
- ▷ 임의로 학생을 지적하여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 ▷ 이 단계에서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2) 소집단 학습(team study)

STAD에서 소집단 구성원 수는 보통 4-6명으로 구성한다. 이 때 소집단 구성원은 성(sex), 성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질적으로 구성한다. 소집단이 구성되면 소집단 구성원 각자의 역할분담을 정하도록 한다. 각자의 역할은 수업내용에 따라,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소집단 리더는 선출해서 소집단 활동의 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기록담당, 자료담당 등의 역할들을 협의해서 분담한다. 소집단이 구성되었으면 소집단 활동의 규칙을 교사가 게시판이나 흑판에 게시한다. STAD의 소집단 활동의 최소한의 규칙은 다음과 같지만 교사가 소집단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칙을 더 제시할 수도 있다.

- 각자는 자기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구성원이 과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소집단 활동을 끝내어서는 안된다.
- 과제가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집단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교사에게 질문한다. 이때에는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손을 들어 표시한다.
- 소집단 활동은 다른 소집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0인치 목소리, 즉 낮은 목소리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소집단 활동을 하기 전, 교사는 각 소집단에게 2장의 학습 과제지와 2장의 정답지를 나누어 준다. 학습 과제지를 4장을 주지 않고 2장만 주는 이유는 4장을 줄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학습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장을 주게 되면 대개 짝을 지어서 학습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학습 과제지를 1장만 주고, 한 학습자가 과제를 읽고 모두 그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답을 얻었는지 확인한 다음, 답을 기록한다. 만약 얻은 답이 다르다면 토론을 통해 모두 통일된 답을 얻어야 한다. 그런 후 다음 과제를 또 다른 학습자가 읽고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모두 해결한 후에 교사로부터 정답지를 얻어 결과를 확인하고, 왜 정답이 맞았는지 또는 틀렸는지를 서로 토론하여 과제를 익힌다.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각 소집단 구성원에게 이번 소집단 활동을 반성하고 다음 활동에서 우리 소집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가 소집단의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적게 하여 소집단 활동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3) 평가(test)

단원수업이 끝나고 적절한 준비시간을 준 뒤에 개인별로 퀴즈를 치르게 된다. 평가 시간은 충분히 할애해 주는 것이 좋다. 퀴즈는 소집단 구성원끼리 서로 도와줄 수 없다. 퀴즈를 치른 후에는 짝과 답안지를 서로 교환하여 채점을 한 다음, 다시 교사가 회수한다. STAD모형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점수 계산에 있다. 일단 퀴즈를 치른 것으로 수업은 끝나지만 교사는 그 퀴즈 점수를 수합해서 소집단점수를 계산한다. 소집단점수는 그 구성원의 향상점수의 산술평균이 된다. 즉 각 구성원은 이전에 치른 퀴즈점수의 평균인 기본점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점수는 이전에 치른 여러번의 퀴즈점수의 평균을 말한다. 만약 STAD를 처음 하는 경우에도 각 학생의 과거 성적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점수를 설정하면 된다. 이 기본점수에 대해서 이번 수업의 퀴즈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각 개인의 향상점수이다. 그리고 소집단점수는 바로 개인의 향상점수의 총합에 소집단 구성원수를 나눈 것이다.

소집단점수가 향상점수에 의해 계산되고, 향상점수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향상점수의 기준은 교사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대부분 학습자가 향상점수는 얻을 수 있도록 후하게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학습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퀴즈점수를 곧 기본점수와 합한 평균을 내어 다음의 기본점수로 활용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퀴즈점수를 그대로 다음의 기본점수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너무 기복이 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누적된 기본점수와 퀴즈점수를 합한 것의 평균이 그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히 나타낼 뿐만 아니라 향상점수를 한꺼번에 많이 얻기 위해 허위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수체제는 과거의 최저점수에서 그 점수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유도하게 한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보상의 기회를 동일하게 갖게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게 하는 체제이다 (Slavin, 1988).

(4) 소집단 점수의 게시와 보상(team recognition)

한 단원의 수업이 끝났을 때 최대한 빨리 점수를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사는 두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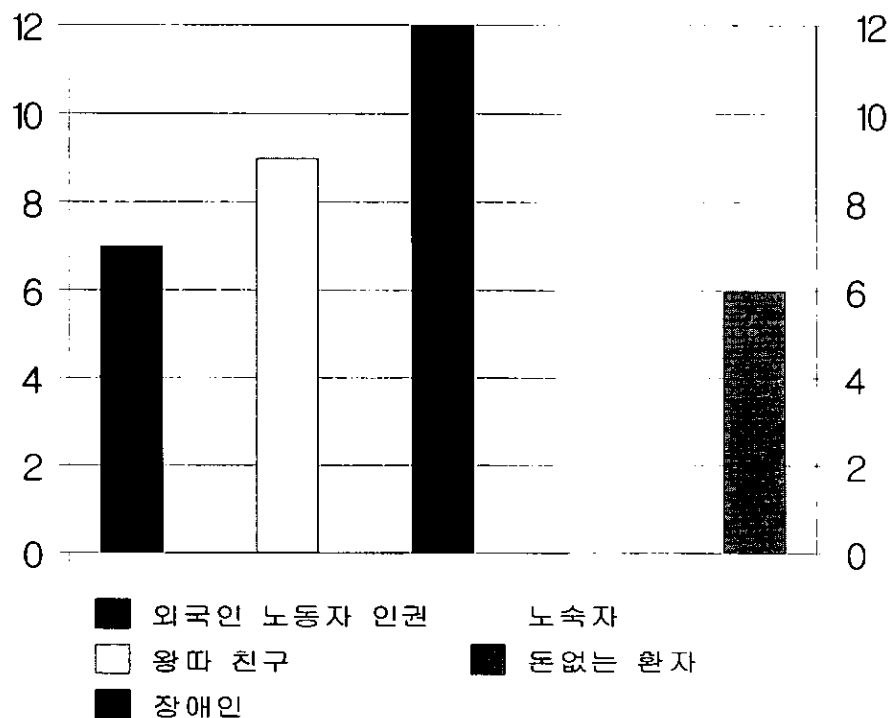
방식으로 보상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소집단에 대한 보상이고, 또 하나는 소집단 점수를 게시판에 공고하는 일이다. 소집단에 대한 시상은 보통 일정 기준을 넘은 소집단에게는 칭호를 주거나, 칭찬을 해 주거나, 스티카를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가능한 많은 소집단을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소집단 점수가 25점이상이면 '으뜸조', 20점이상이면 '버금조', 15점이상이면 '장려조' 등의 칭호를 줄 수 있다. 소집단 칭호는 그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교사가 정해 줄 수 있으며, 점수기준도 교사가 적당히 정해서 소집단간의 경쟁을 유도하되,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상과 칭찬외에도 게시판이나 학급신문 등을 이용해서 대개 일주일 단위로 게시판에 퀴즈 결과와 우수한 소집단에 대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고문에는 각 소집단의 활약상과 수업에 대한 반성과 여러 가지 조언이나 칭찬을 곁 드릴 수도 있다.

출처: 정문성 김동일(1998). 열린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7. 학습자 사전 조사

* 수업 전 우리 반은 인권의 어느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가?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8.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1-2 보호해야 할 인권	차 시	16/19
본시주제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까닭	교과서	사) 54 ~ 61 사 탐) 60 ~ 67
학습목표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경험 해 보고, 인권의 소중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교수학습 자료	실물 화상기, 학습지, 그림자료, PPT자료, 웹자료, 보드판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문제 파악	동기 유발	◎ 주제 설정 △ 동기 유발하기 ·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만든 공익광고를 보여 주고 준 후 느낀 점을 말하도록 한다. ·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살색 크레파스로 얼굴을 그리다가 검은 색을 칠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 연주황색을 살색 크레파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공익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목표를 도출시킨다.	· 공익광고를 본 후 느낀 점을 말한다. (예상 -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 살색 크레파스로 그렸다가 지웠어요. - 살색 크레파스는 없는 것 같아요. 연주황이라고 해야해요. 인종마다 피부색깔이 다르니깐요. - 외국인 노동자도 가족이 있고, 서로를 아끼는 것은 우리와 같아요. · 학습 목표를 말한다. (예상 -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것 같아요. - 인권은 침해당해서도 안되고 침해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등...)	5'	공익 광고로 문제 상황 제시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사전에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인권 분야가 있는 마을에 가서 문제를 해결 해 보고 느낀 점을 학습지에 정리 해 본다. 각 마을의 이장의 안내를 받아 문제 상황을 경험해 보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느껴 본다.
	공부할 문제 확인	△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3'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경험 해 보고, 인권의 소중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선택한 활동 하기	△ 학습 안내 △ 미리 조사한 관심 있어 하는 인권 분야를 마을로 만들고 그 마을에 대한 소개와 경험하고 생각할 문제에 대해 소개 시켜 준다. △ 마을 소개 * 마을에는 각각 이장이 있어 그 이장의 도움으로 활동이 전개된다. < 학생 활동 > ☆ 활동 1 (외로워 마을) ① 이장은 한 아이가 왕따 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인지 묻는다. ② 왕따를 시킨 경우나 당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보고, 그 때의 상황과 느낌도 함께 이야기 한다.	- 각자가 원하는 인권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마을에 가서 문제를 생각해 보고, 경험 한 후 학습지를 해결하고 발표 해 본다. (예상 - 나는 외로워 마을에 가기로 했어. 왜냐면 내가 왕따를 경험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인권이 침해당한 적이 있어... 그 때 기분은 정말 안 좋았어, 두 번 다시 이런 경험을 갖고 싶지 않고 친구들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 이장의 안내에 맞게 활동을 전개 해 나간다.	15'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아동		
적용 발전	선택한 활동 하기	③ 그 내용을 정리하고 적는다. ④ 어떻게 도와 줘야하는지 생각해 본다. < 학생 활동 > ☆ 활동 2 (궁금해 마을) ① O, X 퀴즈로 진행한다. ② 아이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는 옆에서 도움을 준다. 올바른 답은 이장이 가르쳐 준다. ③ 그 중에 가장 선입견이 컸던 문제 5개를 추려 내어 다른 마을 친구들에게 발표 할 준비를 한다.	- 이장의 안내에 맞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며 문제를 풀어 본다. (예상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할 것 같아요.)	20'	*활동에서 소외 되는 학생들이 없나 살펴보고,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마을은 가서 조언을 해준다.
		< 학생 활동 > ☆ 활동 3 (똑같아요 마을) ①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나 신문 기사를 보고 가상 인터뷰를 해본다. ②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서 인권의 소중함을 느껴 본다.	- 이장의 안내에 맞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읽고,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하며 인권을 침해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 (예상 - 일부 공장 사장님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외국인 노동자도 사람인데 동물처럼 학대하고 괴롭히고....우리도 그렇게 외국에 나가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드판 실물화상기 삽화 자료
		< 학생 활동 > ☆ 활동 4 (아파요 마을) ① 모듬 아이들이 함께 민영이의 사례를 읽어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간다. ② 민영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 해 본다.	- 이장의 안내에 맞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 민영이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인권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예상- 민영이를 위해 국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아요. - 의료 보험 혜택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학습지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아동		
정리		△ 활동 발표 · 활동 모습을 직접 보여주거나 활동 했을 때 느낌을 발표해 본다. · 다른 모둠에서는 발표를 잘 경청하도록 주의를 준다. △ 활동 정리 · 교사는 발표에 따라 적절한 코멘트를 한다.	· 자신이 선택한 마을이 활동 했던 내용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다른 모둠이 발표 할 때는 조용히 경청한다. · 자신이 생각했던 분야의 내용과 다른 마을에서 활동 했던 모둠과 교사가 말해 주는 내용을 비교하며, 듣고, 발표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10'	PPT자료 학습지 (실제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과제 제시 및 차시에고	△ 적용 및 발전 · 위의 활동들을 종합하여 우리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자를 가슴에 새기도록 한다. △ 학습 정리 · 인권의 소중함을 느껴보도록 한다. · 학습지를 잘 적은 학생 개인에게 점수를 준다. △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 단체, 국가의 노력에 대해 알아 오도록 안내 한다.	(예상 - 인권은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권리이고 너무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침해당해서는 안돼요. 등...) ·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온다.	3'	

9. 활동 자료

활동 2) 궁금해 마요

※ 이장의 활동 안내

- ☆. ○,× 퀴즈와 주관식 문제로 진행한다.
- ○,× 퀴즈판과 학습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 ☆. 아이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 자료 : 퀴즈 내용

1. 장애인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이었다. ×
장애인의 80%이상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이후에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입니다.
2. 시각장애인은 안내하는 맹도견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 ×
맹도견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갈 때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맹도견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점이나 건물들이 많아서 더 어려움이 많답니다.
3. 청각장애인 중에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청각장애인에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차소리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도 낮다. ×
뇌성마비는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이 불편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생각하고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준다. ○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실례가 되는 행동입니다.

6. 시각장애인도 내용을 설명해 주면 함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
7.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면 나도 장애인이 된다. ×
8.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을 서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9. 장애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
10. 장애인은 취직이 되어도 일을 잘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처음부터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

* 주관식

1.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할 것 같은 점은?
: 예) 계단 / 화장실
2. 눈이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우리 교실에서 함께 공부를 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을 2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 예) 칠판 앞쪽에 앉게 한다. / 칠판의 글씨를 불러준다. / 화장실이나 운동장에 갈 땐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간다. / 물건의 위치, 생김새를 말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3.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놓은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유도블록, 리프트, 경사로, 지지대, 공중전화, 화장실
4.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우리 반 아이가 되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활동 3) 똑같아요 마을

※ 이장의 활동 안내

- ☆. 미얀마의 칸 이야기를 읽어 본다.
- ☆. 가상 인터뷰를 해본다.

1. 미얀마의 칸 이야기

대학을 휴학 중이던 나는 1994년에 한국의 회사에 연수생으로 가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뿔 뜻이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1994년 7월 7일에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김포에 있는 세우폴리마(가구공장)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3달 반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한달 급여는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15만원 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잔업시간이 늘어가고 생각했던 일에 대한 공부는 할 수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일과 중에 욕설을 하는 등 회사에서의 대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제부턴가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일요일날 나갈 때에는 회사직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했고, 만약에 회사에서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간섭은 심해지고 꼭 철장 안에 갇혀있는 동물처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1994년 10월에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연수지 탈출 이 후 친구의 소개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가구공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의 한달 급여는 60만원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일을 하였고 일은 힘이 들었지만 주위의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1994년 12월 20일에 부도가 나게 되었고 나와 친구는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는 법적으로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고 월급을 포기한 채 남동공단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월급은 53만원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잔업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공장안이 너무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저는 남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이 계속적으로 잔업을 하라고 하여서 일이 너무 힘이 들고 몸이 안 좋아 잔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하였습니다.

2.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와의 가상 인터뷰

1) 근무 시간 및 임금 어땀나요?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 했어요.

16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한달 평균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2만원은 본국

에 보내고 나머지 3만원을 가지고 한달을 생활해야 했어요.

2) 휴일, 외출 외박은 어떻게 하였나요?

나는 휴일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국경일에는 너희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 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이 모두 쉬고 있는 그 때도 이들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더욱이 외출 외박은 물론 이고 회사 내에서 한국인과 대화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나의 월급이 얼마인지 한국인에게 절대로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 사람의 월급이 얼마 인지 묻지도 말라고 했어요.

3) 식사는 어땠나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나에게 음식은 언제나 부족했어요. 한번은 외국인 노동자인 친구가 몸이 아파서 신음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와서 일하라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동료들이 화가 나서 병원에 데려 가야 한다고 항의 하자 겨우 병원에 데려 갔어요. 이때 의사가 하는 말이 영양 결핍이다. 라는 소리를 하였어요. 배가 고파서 한국에 왔지만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보다 더 배가 고파야 했어요.

4) 공장 사장님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나요?

사장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압적인 자세였어요. 한국의 인사말을 혹시 잊어버리면 매우 화를 냈으며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팔굽혀 펴기 실시, 계단 뛰어오르기 등의 기합을 받아야 했어요.

5) 한국에서 가장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 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어느 날 회사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없어 졌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매우 화를 내면서 저희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짐과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모두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만일 1년 내에 본국으로 되돌려지면 한국 돈으로 80만원 상당의 손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만일 관리자에게 대들었다가는 본국으로 다시 보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만 했지요.

관리자가 결국 비디오 테이프를 찾지 못하자 우리 14명 전원의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떼어 비디오 테이프의 값 2만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활동 4) 아파요 마을

※ 이장의 활동 안내

☆. 모둠 아이들이 함께 민영이 사례를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간다.

☆. 민영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해본다.

* 자료: 사례

민영이는 웃는 모습이 예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영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민영이가 자주 어지러움을 느껴서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백혈병이래요. 백혈병은 혈액 속에 걸리는 암이라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이에요. 부모님은 민영이를 꼭 치료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고, 가계부를 펼쳐보셨어요.

한달 수입	한달 지출	기타
엄마·아빠 월급/220만원	민영이 교육비 / 30만원 식비 / 40만원 각종 세금 / 15만원 문화생활비 등 / 2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 20만원 적금 / 30만원 은행 빚 갚기 / 50만원 총 지출 : 205만원	집 전세금/ 8천만원 은행 빚 / 3천만원 은행 적금 총액 / 6백만원

민영이네 가계부 그리고 민영이네 부모님은 걱정스럽게 계산해보셨어요.

(민영 아빠) : 우리 집 한 달 지출이 얼마지요?

(민영 엄마) : 205만원이요

엄 : 220만원 한 달간 생활하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아 : 15만원이요

아 : “정말, 큰일이네요. 치료비가 많이 들텐데요”

엄 : “여보,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민영이는 꼭 나올 수 있어요”

아 : “하지만 여보,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백혈병에 기적의 약이라 불리는 글리벵이라는 약이 개발됐대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완치율이 아주 높은 약이래요. 그런데 한 알 당 약값이 2만 3천원이나 해요”

엄 : “비싸더라도 그런 약이 있으면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데요?”

아 :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루에 6알씩은 먹어야 한 대”

엄 : “그러면, 한 알에 2만 3천원이니까 하루면 13,800원, 한 달이면 414,000원이나 하잖아요?”

아 : “어떻게 약값을 그리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 : “물론 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좋은 약 만들라고 정부에서 세금도 깎아 주고, 이런 저런 사회기관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었대요. 그렇다면 그 약이 꼭 그 회사만의 것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아 : “그렇게 약값이 비싸면 벌써 개발비는 다 벌어들였겠네요”

엄 “맞아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 약을 팔기 시작해서 개발비는 벌써 다 벌어들였대요. 그리고 현재 약을 만드는데 원가는 8백4십5원이래요”

아 : “아니 845원짜리 약을 2만3천원에 판다구요?”

엄 : “약을 먹지 못하면 우리 민영이는 아파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약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사먹을 수 없다니...”

1. 우리 이제 민영이와 민영이 부모님의 고통에 대해 말하여 봅시다.

2. 돈은 없는 민영이처럼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10. 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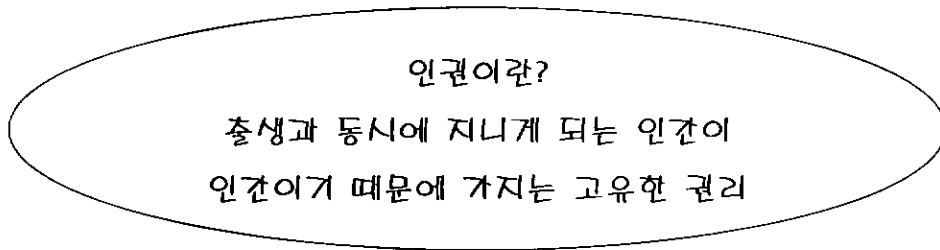
공통 학습지	보호해야 할 인권	제 6 학년 7 반
상인천 초등학교		이름

1.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2.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1. 외로워 마을 학습지	보호해야 할 인권	제 6 학년 7 반
상인천 초등학교		이름



1.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경우를 한 가지만 써 보세요.

2. 옆에 있는 친구에게 위에 적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달라고 해보세요.

활동2. 궁금해 마을 학습지	보호해야 할 인권	제 6 학년 7 반
상인천 초등학교		이름

1. 주관식 문제

2. 주관식 문제

3. 주관식 문제

4. 주관식 문제

활동3. 똑같아요 마을 학습지	보호해야 할 인권	제 6 학년 7 반
상인천 초등학교		이름

※ 이장의 활동 안내

- ☆. 미얀마의 칸 이야기를 읽어 본다.
- ☆. 가상 인터뷰를 해본다.

1. 미얀마의 칸 이야기

대학을 휴학 중이던 나는 1994년에 한국의 회사에 연수생으로 가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뿔 뜻이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1994년 7월 7일에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김포에 있는 세우폴리마(가구공장)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3달 반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한달 급여는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15만원 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잔업시간이 늘어나고 생각했던 일에 대한 공부는 할 수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일과 중에 욕설을 하는 등 회사에서의 대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제부턴가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일요일날 나갈 때에는 회사직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했고, 만약에 회사에서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간섭은 심해지고 꼭 철장 안에 갇혀있는 동물처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1994년 10월에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연수지 탈출 이 후 친구의 소개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가구공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의 한달 급여는 60만원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일을 하였고 일은 힘이 들었지만 주위의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1994년 12월 20일에 부도가 나게 되었고 나와 친구는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는 법적으로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고 월급을 포기한 채 남동공단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월급은 53만원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잔업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공장안이 너무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저는 남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이 계속적으로 잔업을 하라고 하여서 일이 너무 힘이 들고 몸이 안 좋아 잔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하였습니다.

2.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와의 가상 인터뷰

1) 근무 시간 및 임금 어땀나요?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 했어요.

16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한달 평균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2만원은 본국에 보내고 나머지 3만원을 가지고 한달을 생활해야 했어요.

2) 휴일, 외출 외박은 어떻게 하였나요?

나는 휴일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국경일에는 너희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 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이 모두 쉬고 있는 그 때도 이들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더욱이 외출 외박은 물론 이고 회사 내에서 한국인과 대화 나누는 것도 금지 되어 있으며, 나의 월급이 얼마인지 한국인에게 절대로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 사람의 월급이 얼마 인지 묻지도 말라고 했어요.

3) 식사는 어땀나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나에게 음식은 언제나 부족했어요. 한번은 외국인 노동자인 친구가 몸이 아파서 신음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와서 일하라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동료들이 화가 나서 병원에 데려 가야 한다고 항의 하자 겨우 병원에 데려 갔어요. 이때 의사가 하는 말이 영양 결핍이다. 라는 소리를 하였어요. 배가 고파서 한국에 왔지만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보다 더 배가 고파야 했어요.

4) 공장 사장님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나요?

사장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압적인 자세였어요. 한국의 인사말을 혹시 잊어버리면 매우 화를 냈으며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팔굽혀 펴기 실시, 계단 뛰어오르기 등의 기합을 받아야 했어요.

5) 한국에서 가장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 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어느 날 회사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없어 졌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매우 화를 내면서 저희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짐과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모두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만일 1년 내에 본국으로 되돌려지면 한국 돈으로 80만원 상당의 손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만일 관리자에게 대들었다가는 본국으로 다시 보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만 했지요.

관리자가 결국 비디오 테이프를 찾지 못하자 우리 14명 전원의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떼어 비디오 테이프의 값 2만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활동4. 아파요 마을 학습지	보호해야 할 인권	제 6 학년 7 반
상인천 초등학교		이름

※ 이장의 활동 안내

☆. 모둠 아이들이 함께 민영이 사례를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간다.

☆. 민영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해본다.

* 자료: 사례

민영이는 웃는 모습이 예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영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민영이가 자주 어지러움을 느껴서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백혈병이래요. 백혈병은 혈액 속에 걸리는 암이라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이에요. 부모님은 민영이를 꼭 치료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고, 가계부를 펼쳐보셨어요.

한달 수입	한달 지출	기타
엄마·아빠 월급/220만원	민영이 교육비 / 30만원 식비 / 40만원 각종 세금 / 15만원 문화생활비 등 / 2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 20만원 적금 / 30만원 은행 빚 갚기 / 50만원 총 지출 : 205만원	집 전세금/ 8천만원 은행 빚 / 3천만원 은행 적금 총액 / 6백만원

민영이네 가계부 그리고 민영이네 부모님은 걱정스럽게 계산해보셨어요.

(민영 아빠) : 우리 집 한 달 지출이 얼마지요?

(민영 엄마) : 205만원이요

엄 : 220만원 한 달간 생활하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아 : 15만원이요

아 : “정말, 큰일이네요. 치료비가 많이 들텐데요”

엄 : “여보,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민영이는 꼭 나올 수 있어요”

아 : “하지만 여보,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백혈병에 기적의 약이라 불리는 글리벡이라는 약이 개발됐대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완치율이 아주 높은 약이래요. 그런데 한 알당 약값이 2만 3천원이나 해요”

엄 : “비싸더라도 그런 약이 있으면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데요?”

아 :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루에 6알씩은 먹어야 한 대”

엄 : “그러면, 한 알에 2만 3천원이니까 하루면 13,800원, 한 달이면 414,000원이나 하잖아요?”

아 : “어떻게 약값을 그리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 : “물론 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좋은 약 만들라고 정부에서 세금도 깎아 주고, 이런 저런 사회기관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었대요. 그렇다면 그 약이 꼭 그 회사만의 것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아 : “그렇게 약값이 비싸면 벌써 개발비는 다 벌어들였겠네요”

엄 : “맞아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 약을 팔기 시작해서 개발비는 벌써 다 벌어들였대요. 그리고 현재 약을 만드는데 원가는 8백4십5원이래요”

아 : “아니 845원짜리 약을 2만3천원에 판다구요?”

엄 : “약을 먹지 못하면 우리 민영이는 아파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약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사먹을 수 없다니...”

1. 우리 이제 민영이와 민영이 부모님의 고통에 대해 말하여 봅시다.

2. 돈은 없는 민영이처럼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인권문예작품 수상작

◆ 산문 수상작 ◆

- ◆ 최우수상 **내동생** (김사라 / 대구 남산초 5-3)
- ◆ 우 수 상 **테츠유키와 친구들** (진승민 / 의령초 4-1)
 설령 팔, 다리가 없아해도 (박소은 / 인천송도 6-5)
 아주 특별한 우리형 (이현지 / 서울 대방초 6-9)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김영주 / 광주 치평초 1-1)
 장애인의 인권, 정상인의 인권 (김혜린 / 신도림초 6-3)
-

(10x20)

(10×20)

[illegible]

(15x11)

(10x20)

(10x20)

[illegible]

(10×20)

[illegible]

(10×20)

[illegible] (10×20)

(10×20)

(10x20)

No.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												

(10x20)

No.

A

[illegible] (10×20)

4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20)

[illegible]

(10×20)

[illegible]

(10×20)

[illegible]

10x20

10x2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10x20

10x20

No. 4

을	고			어	이	은	이	니	대	이		모	든		사	라	들	이
부	단	아	아			는	거	을	이	과		생	각	한	다		황	해
어	를			타	고		다	니	는	그	를	신	기	한		뒤		아
이	들	이			파	라		다	니	과		공	명	하	는	동	한	그
는		우	영	감			아	니		우	영	감	에		빠	지	도	한
다		경	관		그		는		이	센	티	이	티	밖	에	되	지	않
는		판	다	리	를			장	아	라	고	생	각	하	지		않	는
오	히	려			,	표	개	성	적	,	이	라	고		생	각	한	다
권		그	이			당	양	한		태	도	가			학	정	을	넘
서		강	탄	을			정	로		나	오	게			했	디	이	<

10×20

10×20

No. 5

체	불	만	죽	>	이	12	국		행	운		장	애	호	인	에		대	한	
다	.	그	들	이			양		는		가	하		가	만			부	하	고
게		바	당	감	을				하	자	는		기	10	12	고		양	20	10
20	음		50	기	포				하	자	국	기				하		들	10	20
12	고			양	간	한	간		고	다	고	양			사			하	기	
음		어	다	공	안				지	포	이	포			하	하	국		20	10
노	기			들	을				고	12	는		양	음	음			양	40	10
20	정	다		양	한	40	10	10	고			양			포	고			포	40
10	양	인	포	척	포				양	하	야		다		장	애	호		양	
20	이			은	은				양	하	하	야			장	애	호		양	
10	양			척	척	포			다						장	애	호		양	
20	양			포	포	인	10								장	애	호		양	
10	양			들	을				고	12	는				장	애	호		양	
20	정	다		양	한	40	10	10	고			양			장	애	호		양	
10	양			들	을				고	12	는				장	애	호		양	
20	정	다		들	을				고	12	는				장	애	호		양	
10	양			들	을				고	12	는				장	애	호		양	
20	정	다		들	을				고	12	는				장	애	호		양	

5

[illegible]

No. 71[illegible]

10x20

[illegible]

[illegible]

10x20

[illegible]

10x20

[illegible]

우리 사회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이사회는 바깥보다는
 이 세상에 지니고 있는
 국가에, 단체에, 혹은
 개인에, 인권은 지켜주
 는데, 이 책을 읽으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다. 나는 이 책을 읽

10×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10x20

| | | | | | | |
|---|---|---|---|---|---|---|
| 가 | 방 | 들 | 어 | 는 | 아 | 이 |
| 과 | 국 | 치 | 평 | 조 | 등 | 있 |
| | | 1 | 한 | 1 | 반 | 경 |
| | | | 년 | | | 영 |
| 선 | 우 | 예 | 게 | | | 주 |
| 선 | 우 | 가 | 가 | | | |
| 나 | 는 | 영 | 국 | 야 | 너 | 는 |
| | | | | | | 영 |
| 바 | 들 | 어 | 주 | 면 | 2 | 리 |
| | | | | | | 로 |
| 그 | 리 | 면 | 는 | 내 | 가 | 자 |
| | | | | | | 랑 |
| | | | | | | 는 |
| | | | | | | 다 |

너는 처음에 누
가게는 제복을
입어 나가자
하서면서 사탕을
옆에이 가방을
입고 안일을
꺼야 나니이
를느꼈다!
그, 아캬! 너는
반갑기?

7702

No. -

16.

10x20

10x20

[illegible]

No. -

②

③

No.

| | | | | | | | | | | | | | | | |
|---|---|---|----|---|----|----|-----|---|----|----|----|----|----|----|----|
| 인 | 권 | 이 | 보 | 장 | 디 | 어 | 야 | | 우 | 리 | 한 | 세 | 터 | 불 | 어 |
| 을 | | 쏘 | 아 | | 못 | 게 | | | | | | | | | |
| 무 | 음 | | 면 | 세 | | | | | 13 | 10 | 하 | | 해 | 도 | 느 |
| 기 | 서 | 그 | 아 | 이 | 10 | 10 | 대 | 한 | 상 | 의 | 15 | 15 | 15 | 15 | 15 |
| 보 | 의 | 면 | 마 | 는 | 2 | 10 | 마 | 는 | 10 | 10 | 이 | 10 | 이 | 10 | 10 |
| 고 | 자 | 기 | 15 | 작 | 을 | | 음 | 은 | 14 | 14 | 3 | 13 | 서 | 14 | 10 |
| 가 | 대 | 한 | | 정 | 은 | | 생 | 겨 | 만 | 다 | 하 | 12 | 만 | 10 | 10 |
| | 갈 | 수 | 를 | 지 | 쳐 | 간 | 다 | | 의 | 만 | 을 | | 12 | 15 | 15 |
| | 1 | 그 | 런 | | 상 | 황 | ... | 속 | 에 | 서 | | 10 | 이 | 15 | 15 |
| | 살 | 아 | 갈 | 수 | 있 | 는 | 테 | | 말 | 이 | 다 | | | 15 | |

10×20

10×20

| | | | | | | | | | | | | | | | | | | | |
|-------|----|----|---|----|----|----|----|----|----|-------|----|----|----|----|----|----|----|----|----|
| 10×20 | | | | | | | | | | 02×01 | | | | | | | | | |
| 2 | 4 | 10 | 죽 | | 은 | 금 | 바 | | 이 | 14 | 8 | 14 | | 4 | 16 | 3 | | 14 | 10 |
| 왕 | 공 | | 은 | 금 | 생 | | 12 | 은 | 10 | | 은 | 12 | 10 | 왕 | | 14 | 12 | | 2 |
| 4 | 14 | | 4 | 14 | 10 | 왕 | | 4 | 은 | 14 | | 2 | 2 | | 2 | 14 | 8 | 14 | |
| 4 | 10 | | 왕 | 생 | | 은 | 왕 | | 4 | 10 | 14 | | 2 | 14 | 8 | 14 | | | |
| | | | | | 12 | 10 | 4 | | 4 | | 2 | 14 | 10 | 10 | | 10 | 14 | 8 | |
| 14 | | 2 | 8 | 14 | | 4 | 10 | 2 | 4 | | 14 | 왕 | | 4 | 10 | | 2 | | |
| 이 | 왕 | 2 | | 2 | 14 | | 4 | 10 | 왕 | | 14 | 금 | 도 | | 2 | 4 | | 4 | 16 |
| 14 | 왕 | 10 | 왕 | 14 | | 12 | 14 | | 2 | 은 | 도 | | 10 | 14 | 14 | | | | |
| 14 | 왕 | 10 | 왕 | 14 | | 12 | 14 | | 2 | 은 | 도 | | 10 | 14 | 14 | | | | |
| 12 | 4 | | 은 | 왕 | 4 | | 12 | | 2 | 10 | 14 | | 4 | 12 | 3 | | | | |

16. 4

5

10

| | | | | | | | | | | | | | | | | | | |
|----|----|----|----|----|----|----|----|----|----|----|----|----|----|----|----|----|----|----|
| 10 | 25 | 84 | 한 | 가 | | 10 | 상 | 보 | 10 | 해 | 용 | 10 | | 2 | 가 | | 2 | |
| 12 | 한 | | 10 | 물 | | 2 | 물 | 1 | 14 | 8 | 14 | | 3 | 해 | | 12 | 물 | 물 |
| | 2 | 12 | | 2 | 해 | 은 | 12 | 물 | 14 | 19 | 10 | | 1 | 은 | 12 | 11 | | |
| | | | | | 1 | | 12 | 물 | 12 | 1 | 해 | 12 | | 12 | 물 | 14 | | 다 |
| 10 | 20 | | 2 | 14 | 10 | | 2 | 은 | 14 | | 1 | | 2 | 물 | | 2 | 14 | 14 |
| | 2 | 2 | 2 | 1 | | 12 | 물 | 10 | 2 | | 2 | 물 | | 12 | 14 | 1 | 14 | 2 |
| 2 | 은 | 2 | | 1 | 12 | 11 | 12 | 1 | | 12 | 물 | | 12 | 11 | 1 | | | 19 |
| 11 | 10 | 14 | | 1 | 해 | 물 | 14 | 14 | 1 | | 2 | 물 | 14 | | 12 | | 10 | 14 |
| 8 | 14 | | 2 | 10 | 10 | | 10 | 14 | 1 | 14 | | 10 | 14 | | 12 | 물 | 10 | 14 |
| | 2 | 12 | 14 | | 12 | 물 | 1 | | 2 | 14 | | 12 | 물 | 14 | | 12 | 14 | 14 |

10×20

02×01

[illegible]

No. 6

| | | | | | | | | | | | | | | | | |
|----|----|----|---|----|---|----|----|---|----|----|----|----|----|----|----|----|
| 11 | 2 | 갸 | | 어 | 2 | 만 | | 2 | 터 | 이 | 모 | 프 | | 군 | | 터 |
| 2 | 10 | 중 | 나 | | 다 | 2 | 물 | 터 | | 봉 | 봉 | | 운 | 마 | 나 | 고 |
| 나 | | 10 | 감 | 이 | | 2 | 옥 | | 서 | 가 | 10 | 2 | 인 | 2 | 갸 | 2 |
| 다 | 2 | 갸 | | 만 | | 2 | 부 | | 2 | 갸 | | 수 | 2 | 갸 | 10 | 2 |
| | 2 | 이 | | 10 | 2 | 은 | 모 | | 모 | 가 | 1 | 2 | 2 | 갸 | | 2 |
| 10 | 2 | 10 | 2 | 영 | | 10 | 2 | 인 | 10 | 2 | 갸 | | 10 | 2 | 갸 | 10 |
| | 10 | | 2 | 갸 | 1 | 2 | 10 | | 2 | 2 | 갸 | 2 | 인 | 10 | 2 | 갸 |
| | 다 | 10 | 2 | 갸 | | 2 | 물 | | 수 | 갸 | 10 | 2 | 갸 | | 2 | 갸 |
| | | 고 | 1 | 갸 | | 2 | 프 | 2 | | 10 | 2 | 10 | 2 | 갸 | 1 | 갸 |
| 10 | 2 | 갸 | | 2 | 갸 | 2 | 방 | 2 | 1 | 2 | 갸 | 12 | 2 | 갸 | 2 | 갸 |

10x20

10x20

6

[illegible]

8

60

◆ 편지 수상작 ◆

- ◆ 최우수상 **마음속의 대화** (이서윤 / 의령초 3-1)
- ◆ 우 수 상 **케이꼬 어머니께** (박지호 / 옥포초 4-4)
 우리들 친구에게 (방은빈 / 서울 성일초 4-4)
 오토다케 히라타다씨께 (송정호 / 경산 정평초 6-2)
 대단하고 멋진 희아 언니 (우도희 / 광주 치평초 5-4)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이종상 / 광주 치평초 1-1)
-

①

케이코 어머니께

옥포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름 (박 지호)

안녕하세요, 케이코 어머니? 전 한국에 살고 있고 옥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박 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케이코 어머니와 케이코가 나왔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감명 깊었습니다. 케이코 어머니, 전 만약 케이코 같은 미치고 어리광부리고, 집 밖을 나가는 그런 4살배기 어린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그 아이를 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머니(편하게 아주머니로 부르세요 ㄱ)께서는 그런 케이코를 갖다 버릴생각을 하였던지만 아저씨와 같이 케이코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가셨어요. 그 만큼 케이코에 대한 사랑, 희망이 많은 거겠죠. 아주머니, 케이코가 장애유치원에 들어간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케이코가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 다른 아줌마들, 아저씨 등 모든 사람들이 곁에 있고 희망을 주고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서 케이코가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주위에 이웃과 여러사람들이 도우며 사는 거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키우시는 마음으로 모치고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조금만 더 믿고, 대화 할 수 있으면 좋을

②

텐데... 하지만 힘을 내요? 서로가 있기엔 나쁜
이 있잖아요. 키오시도 대단해요. 스스로 강한 의
지를 갖고 행동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아중
마가 열심히 맡은 하고 대환 하려고 해도 케이코
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케이코도, 아중마도, 이찌씨도, 여러 사람들도 서로를 사
랑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요, 키오시
도 많은 문제는 없어요. 귀(청각)가 나쁜 뿐이지 다
른 문제 없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또 키오시에 생각을
바로 잡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동정심을 가지게 하사
나. 님이예요. 키오시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못지 않는 키오시를 반대로, 못지 않게 단들
있잖아요. 이처럼, 희망은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 같
아요. 안 그래요? 케이코는 정말 불쌍해요. 키오시
도요. 어찌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신들이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실까요? 믿음이 없어서 탈락하기 때문일 거
예요. 키오시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중마, 사람들은 왜 서로 돕지 않고 큰
기도 안들까요? 옳고 해요. 조금 착모가 있다면 싸우잖아
요. 키오시는 스스로 자기의 건강한 삶을 찾았어요.
그렇기에 키오시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허
를 벗는 나비처럼요. 그런 케이코가, 나이는 어떡

②

옥포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름 (박 지 호)

지만, 존경스러워요. 아줌마도요. 처음에는 힌드스킨 재킷
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케이코가 아줌마 삶에 전부
고 아줌마는 케이코 없인 못살잖아요. 그래요, 미운 짓
만 안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수가 없어요.
케이코도 세상에 한 존재잖아요.
암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4년 10월 2일 토요일
지호 올림

우리 친구들에게

서울 성일초등학교

4학년 4반 55번

방 은빈

음...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안녕? 나는 성일초등학교에 다니는 방 은빈이라고해.

가을이 되어서 인지 아니면 내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나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단다.

아마도 어떤 책을 읽은 후 부터였던 것 같아.

그 책 궁금하지 않니? 바로 '휠체어 타는 친구' 라는 책인데 혹시 읽어봤을까?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에겐 참 감동적이었던 같아.

내가 관심이 별로 없던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도 저절로 호기심이 가는 거 있지?

자, 네가 못 읽었다 생각하고 그 책 이야기를 소개할게. 잘 들어봐.

휠체어 타는 친구에 나오는 벨레의 친구 키르스텐이라는 아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야.

친구들은 위로와 따뜻한 말은커녕 그 아이를 몸이 불편한 친구라면서 왕따시켰지.

그래서 그 아이는 언제나 혼자였어.

우리도 그리고 나도 학교에서 자주 겪었던 일들을 글로 읽으니 많이 창피하더라.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싫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텐데... 그동안 우리는 왜 그랬을까?

키르스텐처럼 여러 가지 까닭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아.

전쟁터에서 다친사람, 교통사고를 당한사람,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갖

고 태어난 사람 등...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으면 모른 채하고 지나가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졌어.

나도 언젠가는 예비 장애인인데, 키르스텐인데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책에서 알게 되었단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몇 배나 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야.

아~! 몸이 불편한 친구 그러니까 또 한명의 친구가 생각나.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소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도 다리를 덜덜 떨고 공부도 잘 못하여서 친구들이 때리고 싫어하고 가까이 오면 가라고 했던 것.

나도 그때 소연이를 조금 괴롭혔는데 소연이에게 미안하고 그 때 때린 것이 무척 후회스러워.

만약에 한번 만나면 꼭 미안하다는 말 말하고 싶어.

내가 생각 한건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의 처지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은 전혀 외롭지 않고 조금이라도 행복해 질거라고 굳게 믿는다.

또 언젠가는 내 다리가 부러져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먹는 것도 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서 그만 울어버렸다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또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되면 이것 말고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백화점이나 문방구, 마트 등을 갈 때,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거나 얼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때에는 진짜 창피할거야. 또 앞이 안보여서 사물과 부딪힐 때, 귀가 안 들려서 의사소통이 안돼 답답할 때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겠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두배나 어렵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니?

난 지금 이렇게 날 건강하게 태어나 주시게 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어.

아울러서 이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도 건강을 나누어 주고 싶단다.

시장을 갔을 때 우리는 가끔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

우리는 그냥 지나 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그 사람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는지도 몰라.

또 한가지 있어.

우리는 보통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장애인’ 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만 신체가 조금 우리와 다를 뿐이지,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우리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야.

그리고 세상에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마음 장애인이 더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장애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기도 해.

예를 들면 베토벤은 청각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악 등을 많이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 했잖아.

나도 이제부터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창피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이야.

많은 어린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마음을 키우면서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들 모두가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서울에서 방은빈이가 쓴다.

<인권동화를 읽고>

오토다케 히로타다씨께

경산시 정평초등학교 6학년 2반

송 정 호

오토다케 히로타다씨께

안녕하세요 오토다케 히로타다씨? 저는 한국의 송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서전 '오체불만족'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나니 당신에게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물론 주변의 따뜻함도 있었지만 신체적인 불편이 크신데도 무엇이든 부딪쳐 나가는 강인한 투지정신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리를 빼거나 혹은 손에 큰 상처를 입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 버릴 일을 당신은 묵묵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당신은 체육 활동은 물론 많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이 활발하게 생활하고 장애인인 우리들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번 아람단 활동으로 대동시온재활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계신 분들은 정신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셨지만 모두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저희들을 맞이 해주셨고 웃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때껏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장애인은 우리와 많은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또 한번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장애인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는데 당신에 의해 그 편견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요!

오토다케 히로타다씨, 당신은 팔과 다리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상인에서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항상 세상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투지와 끈기는 모든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부풀어 주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2004년 10월 17일 일요일

당신을 존경하는 한국의 송정호 올림

20x10

[illegible]

[illegible]

20x10

[illegible] 20×10

No. 3

No. 4

20×10

| | | | | | | | | | | | | | |
|---|---|---|---|---|---|---|---|---|---|---|---|---|---|
| 어 | 는 | 테 | 그 | 애 | 도 | , | 전 | 구 | 들 | 이 | 꿈 | 하 | 를 |
| 주 | 고 | | 능 | 아 | 고 | | 하 | 니 | | 자 | 기 | 대 | 사 |
| 들 | 때 | 지 | 는 | 영 | 은 | | 가 | 봐 | 요 | | | | |
| | 나 | 도 | 이 | 제 | 부 | 터 | 는 | | 언 | 니 | 를 | 고 | 하 |
| 들 | 어 | | 해 | 자 | 이 | 고 | | 북 | | | 모 | 어 | 다 |
| 지 | 다 | | 한 | 어 | 도 | | 미 | 트 | 지 | | 할 | 하 | 는 |
| 조 | 사 | 하 | | 만 | 아 | | 라 | 는 | | 것 | 을 | 계 | 하 |
| 하 | | | | | | | | | | | | | |
| | 하 | 니 | 이 | 하 | 하 | | | | 하 | 리 | 다 | 하 | 는 |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20×10

| | | | | | | | | | | | | | | | | | |
|---|---|---|---|---|---|---|---|---|---|---|---|---|---|---|---|---|---|
| 만 | | 최 | 선 | 을 | | 다 | 평 | 군 | 기 | 있 | 지 | | 노 | 평 | 이 | 하 | 부 |
| 정 | 기 | 이 | | 좌 | 아 | 평 | 이 | 부 | | 하 | 부 | 을 | | 사 | 영 | 이 | 요 |
| | 사 | 랑 | 이 | | 마 | 영 | 영 | 하 | 다 | | 못 | 하 | 고 | 부 | | 사 | |
| 있 | 다 | 는 | | 마 | 음 | 자 | 세 | 를 | 가 | 지 | 고 | | 노 | 평 | 하 | | 한 |
| 다 | 면 | | 해 | 벌 | 수 | 했 | 다 | 부 | | 말 | 이 | | 내 | 가 | 하 | 하 | |
| 남 | 했 | 고 | 어 | | | | | | | | | | | | | | |
| | 영 | 기 | 와 | | 왔 | 영 | 영 | 영 | 지 | 영 | 다 | 강 | 하 | 하 | 하 | 하 | 하 |
| 세 | 어 | | 파 | 이 | 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5

한글서체 10x20

1. 기쁘게
 2. 개학식
 3. 열매
 4. 열매
 5. 열매
 6. 열매
 7. 열매
 8. 열매
 9. 열매
 10. 열매
 11. 열매
 12. 열매
 13. 열매
 14. 열매
 15. 열매
 16. 열매
 17. 열매
 18. 열매
 19. 열매
 20. 열매
 21. 열매
 22. 열매
 23. 열매
 24. 열매
 25. 열매
 26. 열매
 27. 열매
 28. 열매
 29. 열매
 30. 열매
 31. 열매
 32. 열매
 33. 열매
 34. 열매
 35. 열매
 36. 열매
 37. 열매
 38. 열매
 39. 열매
 40. 열매
 41. 열매
 42. 열매
 43. 열매
 44. 열매
 45. 열매
 46. 열매
 47. 열매
 48. 열매
 49. 열매
 50. 열매
 51. 열매
 52. 열매
 53. 열매
 54. 열매
 55. 열매
 56. 열매
 57. 열매
 58. 열매
 59. 열매
 60. 열매
 61. 열매
 62. 열매
 63. 열매
 64. 열매
 65. 열매
 66. 열매
 67. 열매
 68. 열매
 69. 열매
 70. 열매
 71. 열매
 72. 열매
 73. 열매
 74. 열매
 75. 열매
 76. 열매
 77. 열매
 78. 열매
 79. 열매
 80. 열매
 81. 열매
 82. 열매
 83. 열매
 84. 열매
 85. 열매
 86. 열매
 87. 열매
 88. 열매
 89. 열매
 90. 열매
 91. 열매
 92. 열매
 93. 열매
 94. 열매
 95. 열매
 96. 열매
 97. 열매
 98. 열매
 99. 열매
 100. 열매

10x20

10x20

10X20

[illegible][illegible]

5
2
3
7
6
H
D
M
E
L
N
C

| | |
|--|-----|
| | 𠂇 | 𠂈 | 𠂉 | 𠂊 | 𠂋 | 𠂌 | 𠂍 | 𠂎 | 𠂏 | 𠂐 | 𠂑 | 𠂒 | 𠂓 | 𠂔 | 𠂕 | 𠂖 | 𠂗 | 𠂘 | 𠂙 | 𠂚 | 𠂛 | 𠂜 | 𠂝 | 𠂞 | 𠂟 | 𠂠 | 𠂡 | 𠂢 | 𠂣 | 𠂤 | 𠂥 | 𠂦 | 𠂧 | 𠂨 | 𠂩 | 𠂪 | 𠂫 | 𠂬 | 𠂭 | 𠂮 | 𠂯 | 𠂰 | 𠂱 | 𠂲 | 𠂳 | 𠂴 | 𠂵 | 𠂶 | 𠂷 | 𠂸 | 𠂹 | 𠂺 | 𠂻 | 𠂼 | 𠂽 | 𠂾 | 𠂿 | 𠃀 | 𠃁 | 𠃂 | 𠃃 | 𠃄 | 𠃅 | 𠃆 | 𠃇 | 𠃈 | 𠃉 | 𠃊 | 𠃋 | 𠃌 | 𠃍 | 𠃎 | 𠃏 | 𠃐 | 𠃑 | 𠃒 | 𠃓 | 𠃔 | 𠃕 | 𠃖 | 𠃗 | 𠃘 | 𠃙 | 𠃚 | 𠃛 | 𠃜 | 𠃝 | 𠃞 | 𠃟 | 𠃠 | 𠃡 | 𠃢 | 𠃣 | 𠃤 | 𠃥 | 𠃦 | 𠃧 | 𠃨 | 𠃩 | 𠃪 | 𠃫 | 𠃬 | 𠃭 | 𠃮 | 𠃯 | 𠃰 | 𠃱 | 𠃲 | 𠃳 | 𠃴 | 𠃵 | 𠃶 | 𠃷 | 𠃸 | 𠃹 | 𠃺 | 𠃻 | 𠃼 | 𠃽 | 𠃾 | 𠃿 | 𠄀 | 𠄁 | 𠄂 | 𠄃 | 𠄄 | 𠄅 | 𠄆 | 𠄇 | 𠄈 | 𠄉 | 𠄊 | 𠄋 | 𠄌 | 𠄍 | 𠄎 | 𠄏 | 𠄐 | 𠄑 | 𠄒 | 𠄓 | 𠄔 | 𠄕 | 𠄖 | 𠄗 | 𠄘 | 𠄙 | 𠄚 | 𠄛 | 𠄜 | 𠄝 | 𠄞 | 𠄟 | 𠄠 | 𠄡 | 𠄢 | 𠄣 | 𠄤 | 𠄥 | 𠄦 | 𠄧 | 𠄨 | 𠄩 | 𠄪 | 𠄫 | 𠄬 | 𠄭 | 𠄮 | 𠄯 | 𠄰 | 𠄱 | 𠄲 | 𠄳 | 𠄴 | 𠄵 | 𠄶 | 𠄷 | 𠄸 | 𠄹 | 𠄺 | 𠄻 | 𠄼 | 𠄽 | 𠄾 | 𠄿 | 𠅀 | 𠅁 | 𠅂 | 𠅃 | 𠅄 | 𠅅 | 𠅆 | 𠅇 | 𠅈 | 𠅉 | 𠅊 | 𠅋 | 𠅌 | 𠅍 | 𠅎 | 𠅏 | 𠅐 | 𠅑 | 𠅒 | 𠅓 | 𠅔 | 𠅕 | 𠅖 | 𠅗 | 𠅘 | 𠅙 | 𠅚 | 𠅛 | 𠅜 | 𠅝 | 𠅞 | 𠅟 | 𠅠 | 𠅡 | 𠅢 | 𠅣 | 𠅤 | 𠅥 | 𠅦 | 𠅧 | 𠅨 | 𠅩 | 𠅪 | 𠅫 | 𠅬 | 𠅭 | 𠅮 | 𠅯 | 𠅰 | 𠅱 | 𠅲 | 𠅳 | 𠅴 | 𠅵 | 𠅶 | 𠅷 | 𠅸 | 𠅹 | 𠅺 | 𠅻 | 𠅼 | 𠅽 | 𠅾 | 𠅿 | 𠆀 | 𠆁 | 𠆂 | 𠆃 | 𠆄 | 𠆅 | 𠆆 | 𠆇 | 𠆈 | 𠆉 | 𠆊 | 𠆋 | 𠆌 | 𠆍 | 𠆎 | 𠆏 | 𠆐 | 𠆑 | 𠆒 | 𠆓 | 𠆔 | 𠆕 | 𠆖 | 𠆗 | 𠆘 | 𠆙 | 𠆚 | 𠆛 | 𠆜 | 𠆝 | 𠆞 | 𠆟 | 𠆠 | 𠆡 | 𠆢 | 𠆣 | 𠆤 | 𠆥 | 𠆦 | 𠆧 | 𠆨 | 𠆩 | 𠆪 | 𠆫 | 𠆬 | 𠆭 | 𠆮 | 𠆯 | 𠆰 | 𠆱 | 𠆲 | 𠆳 | 𠆴 | 𠆵 | 𠆶 | 𠆷 | 𠆸 | 𠆹 | 𠆺 | 𠆻 | 𠆼 | 𠆽 | 𠆾 | 𠆿 | 𠇀 | 𠇁 | 𠇂 | 𠇃 | 𠇄 | 𠇅 | 𠇆 | 𠇇 | 𠇈 | 𠇉 | 𠇊 | 𠇋 | 𠇌 | 𠇍 | 𠇎 | 𠇏 | 𠇐 | 𠇑 | 𠇒 | 𠇓 | 𠇔 | 𠇕 | 𠇖 | 𠇗 | 𠇘 | 𠇙 | 𠇚 | 𠇛 | 𠇜 | 𠇝 | 𠇞 | 𠇟 | 𠇠 | 𠇡 | 𠇢 | 𠇣 | 𠇤 | 𠇥 | 𠇦 | 𠇧 | 𠇨 | 𠇩 | 𠇪 | 𠇫 | 𠇬 | 𠇭 | 𠇮 | 𠇯 | 𠇰 | 𠇱 | 𠇲 | 𠇳 | 𠇴 | 𠇵 | 𠇶 | 𠇷 | 𠇸 | 𠇹 | 𠇺 | 𠇻 | 𠇼 | 𠇽 | 𠇾 | 𠇿 | 𠈀 | 𠈁 | 𠈂 | 𠈃 | 𠈄 | 𠈅 | 𠈆 | 𠈇 | 𠈈 | 𠈉 | 𠈊 | 𠈋 | 𠈌 | 𠈍 | 𠈎 | 𠈏 | 𠈐 | 𠈑 | 𠈒 | 𠈓 | 𠈔 | 𠈕 | 𠈖 | 𠈗 | 𠈘 | 𠈙 | 𠈚 | 𠈛 | 𠈜 | 𠈝 | 𠈞 | 𠈟 | 𠈠 | 𠈡 | 𠈢 | 𠈣 | 𠈤 | 𠈥 | 𠈦 | 𠈧 | 𠈨 | 𠈩 | 𠈪 | 𠈫 | 𠈬 | 𠈭 | 𠈮 | 𠈯 | 𠈰 | 𠈱 | 𠈲 | 𠈳 | 𠈴 | 𠈵 | 𠈶 | 𠈷 | 𠈸 | 𠈹 | 𠈺 | 𠈻 | 𠈼 | 𠈽 | 𠈾 | 𠈿 | 𠉀 | 𠉁 | 𠉂 | 𠉃 | 𠉄 | 𠉅 | 𠉆 | 𠉇 | 𠉈 | 𠉉 | 𠉊 | 𠉋 | 𠉌</ |
|--|-----|

[illegible]

| |
|-----|
| * |
| < |
| < |
| * |
| o |
| H |
| F |
| H |
| L |
| T |
| |
| U |
| F |
| - |
| O |
| N |
| + o |

◆ 시 수상작 ◆

◆ 최우수상 **나와 똑 같아요** (황정민 / 포리초 4-1)

◆ 우 수 상 **함께하는 친구** (강유진 / 파주 천연초 6-1)

마음의 날개와 문 (한승훈 / 오리초 4-2)

나와 똑같아요.

포리초등학교 4-1 황정민

한 알 두 알
상에 밥알을 흘리는
팔이 불편한 내 친구지만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맛있다고 남남
김치 한 젓가락 집어가니
따라 먹고 나서
매웁다고 호호
내 친구 밥 먹을 때
입맛이 나와 똑 같아요.



속상해도 히히히
좋아도 히히히
언제나 웃는 내 친구지만
나와 게임에서 지면
더하자고 씩씩대고
공놀이하다 넘어져
무릎이 빠지면
빠알간 피 보고 울먹울먹
내 친구 놀 때
마음이 나와 똑 같아요.

조금 불편한 몸 때문에
느리고 답답하지만
환한 웃음으로
사랑 넘치는 몸짓으로
나에게 달려오는
느끼는 것이 나와 똑같은
내 친구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함께하는 친구

파주천현초등학교 6학년 1반 강유진

왠지
쑥쑥해 보이는
너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지만
선풂
쉽게 건네지지 않는 말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나이
분명
우리는 친구인데

겉모습 조금 다르다고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나
마음의 장애가
더 큰 슬픔인데

친구들 시선
가을 숲에
묻어버리고
용기 내 다가가

책가방에 넣어 온
초콜렛 하나
친구 손안에 쥐어주며
함께하고 싶다.



마음의 날개와 문

오리초등학교 4학년 2반 한승훈

너희는 하얀 날개를
펴 보았니?
날개를 펼치면
희망이 보인대

하나하나씩 펼치면
고비를 하나씩
넘길 수 있어

눈이 안 보인다고
다 안보이나?
마음을 열면
하나씩 볼 수 있지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다 안들려나?
연습을 하면
부모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팔이 없다고
꼭 힘이 들까?
친구가 옆에 있으면
힘이 들지 않지



말을 할 수 없다고
불편할까?
네 마음으로도
말을 할 수 있지

머리를 다쳐서
네가 이상할까?
겉으로는
이상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하지
왜냐하면
우린 친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의 날개와
마음의 문을 연 거야
힘들 장애는
별 것 아냐
그러니 새로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야

◆ 표어 수상작 ◆

◆ 최우수상 **아픈곳을 나눠갖는 우리는 다정한 친구**
(정혜수 / 서울 삼성초 5-3)

◆ 우 수 상 **손과 발은 묶어보고 내마음은 열어보자**
(최송아 / 신화초 5-4)

장애인과 더불어 출발부터 결승까지
(황선미 / 대평초 6-2)

아픈곳을 나눠갖는 우리는 다정한 친구

정혜수 / 서울 삼성초 5-3

손과 발은 묶어보고 내마음은 열어보자

최송아 / 신화초 5-4

장애인과 더불어 출발부터 결승까지

황선미 / 대평초 6-2

인권문예작품(산문) 수상자

| 시상부문 | 제 목 | 수 상 자 |
|-------|-------------------|------------------|
| 최우수상 | 내동생 | 김사라 (대구 남산초 5-3) |
| 우 수 상 | 테츠유키와 친구들 | 진승민 (의령초 4-1) |
| | 설령 팔, 다리가 없다해도 | 박소은 (인천송도 6-5) |
| | 아주 특별한 우리형 | 이현지 (서울 대방초 6-9) |
| |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 김영주 (광주 치평초 1-1) |
| | 장애인의 인권, 정상인의 인권 | 김혜린 (신도림초 6-3) |
| 장 려 상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 양서정 (천안쌍용 4-8) |
| |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 황정윤 (포리초 6-2) |
| | 멋진 젊은이 | 박지원 (서울 삼성초 5-1) |
| | 피아노 치는 장애인 | 이현정 (연암초 2-1) |
| |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 김다현 (신화초 3-3) |
| | 나와 다른 친구 | 이예빈 (연암초 4-7) |
| | 나도 동생이고 싶어요 | 고은영 (의령초 3-3) |
| | 팔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 류종석 (농서초 6-1) |
|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 허지영 (의령초 4-3) |
| | 똑 같아요 | 이현우 (봉명초 2-5) |

인권문예작품(편지) 수상자

| 시상부문 | 제 목 | 수 상 자 |
|-------|-----------------|------------------|
| 최우수상 | 마음속의 대화 | 이서윤 (의령초 3-1) |
| 우 수 상 | 케이꼬 어머니께 | 박지호 (옥포초 4-4) |
| | 우리들 친구에게 | 방은빈 (서울성일초 4-4) |
| | 오토다케 히라타다씨께 | 송정호 (경산 정평초 6-2) |
| | 대단하고 멋진 희아 언니 | 우도희 (광주 치평초 5-4) |
| |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 이종상 (광주 치평초 1-1) |
| 장 려 상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 조수현 (천안쌍용초 4-8) |
| | 오토다케 오빠에게 | 강주신 (대평초 4-2) |
| |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 이유경 (원주 단계초 6) |
| | 탁구선수 최재석 아저씨께 | 원화경 (김해 봉명초 2-3) |
| | 종민이에게 | 김윤석 (천안쌍용초 6-7) |
| | 케이꼬 어미니께 | 금은별 (옥포초 4-1) |
| | 석우에게 | 김현희 (치평초 1-1) |
| | 오체불만족의 오토에게 | 김민정 (대구내당초 6-4) |
| | 희완이에게 | 송한비 (천안쌍용초 4-9) |
| | 안내견 탄실이 | 이수정 (천안쌍용초 6-7) |

인권문예작품(시) 수상자

| 시상부문 | 제 목 | 수 상 자 |
|-------|-----------|------------------|
| 최우수상 | 나와 똑 같아요 | 황정민 (포리초 4-1) |
| 우 수 상 | 함께하는 친구 | 강유진 (파주 천현초 6-1) |
| | 마음의 날개와 문 | 한승훈 (오리초 4-2) |
| 장 려 상 | 하찮지 않아요 | 김은영 (내구 내당초 6-2) |
| | 우리형 | 김영준 (천안쌍용초 6-1) |
| | 우리와 친구하자 | 박주영 (오리초 5-3) |

인권문예작품(표어) 수상자

| 시상부문 | 제 목 | 수 상 자 |
|-------|-------------------------|-----------------|
| 최우수상 | 아픈곳을 나눠갖는
우리는 다정한 친구 | 정혜수 (서울삼성초 5-3) |
| 우 수 상 | 손과 발은 묶어보고
내마음은 열어보자 | 최송아 (신화초 5-4) |
| | 장애인과 더불어
출발부터 결승까지 | 황선미 (대평초 6-2) |
| 장 려 상 | 마음주고 사랑주면
장애인도 나의친구 | 김유림 (동신초 5-1) |
| | 몸은 불편해도
우리들은 친구 | 조다영 (동신초 5-1) |
| | 장애의 편견속에
내마음도 장애된다 | 이수지 (동신초 6-5) |

인권교육실천사례집
2004년 인권교육실천사례 및 문예작품공모 수상작

찍은날 : 2004. 12

펴낸날 : 2004. 12

엮은곳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편낸이 : 김창국

펴낸곳 :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 (02) 2125-9676 Fax (02) 2125-9677

www.humanrights.go.kr

인 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 (02) 313-7593
